

軍

Military History

史

2021. 12. 제121호

-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1948~1950)
-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 · 나진상륙작전 연구
-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 연구

[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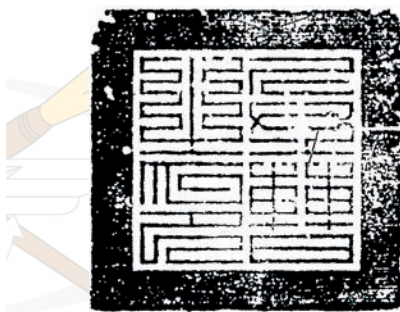
- 중국과 경쟁시대, 미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21號
2021.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1. 12. 제121호

- | | | |
|----|---|-----|
| 1 | ▶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1948~1950) | 이지원 |
| 39 | ▶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 김명섭 |
| 71 | ▶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나진상륙작전 연구 | 박희성 |



軍史



Contents | 2021. 12. 제121호

- 101 ▶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김덕원
- 143 ▶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 연구 양성민
- 185 ▶ [서평] 중국과 경쟁시대, 미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Christian Brose, Hachette Book Group, 2020,
『The Kill Chain: Defending America in the Future of
High-Tech Warfare.』 - 최영진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1-37
<https://doi.org/10.29212/mh.2021..12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 (1948~1950)

이지원*

- 
1. 서 론
 2. 미국의 봉쇄전략과 한국의 공격형 항공력 건설 시도
(1948년 11월~1949년 3월)
 3. 한국의 先양병정책과 방어형 항공력 건설 추진
(1949년 4월~1949년 12월)
 4. 미국의 군사원조 지연과 한국의 항공력 증강 실패
(1950년 1월~1950년 6월)
 5. 결 론

1. 서 론

북한과 한국이 각각 조선인민군과 국군을 창설한 직후 양측의 항공기 보유 대수 격차는 인상적이었다. 1949년 봄에 전투기 48대,

*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훈련기 19대로 총 67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북한군은 그 해 8월 중순에 소련으로부터 전투기 30대를 인도 받았다.¹⁾ 사고와 고장으로 인한 손실 등을 감안하면 이 무렵 북한군은 9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과반수가 전투기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한국군이 운용하던 항공기는 연락기 16대가 전부였다.²⁾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50년 4월과 6월에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전투기 60대씩 총 120대를 인수하는 동안 한국은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훈련기 10대를 구매했을 뿐이었다.³⁾ 개전 직전에 이르면, 북한군은 전투기 197대를 포함하여 총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연락기와 훈련기 22대를 운용했다.⁴⁾ 당시 한국 공군은 병력 규모가 북한 공군의 68% 수준에 달했지만, 항공기 대수는 10% 정도에 불과했다.⁵⁾

1)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인도받은 항공기는 IL-10 항공기와 YAK-9 항공기였다. 이신재,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1945~1950)」, 『현대북한연구』 19권 1호(2016), pp. 246-248. 전투용 항공기의 경우 전투기·폭격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북한의 경우 추격기·습격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나 이 연구에서는 주 임무가 공대공·공대지 공격인 모든 항공기를 전투기로 통칭한다.

2) 당시 한국은 L-4와 L-5를 각각 8대씩 보유하고 있었다. U.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AFHRA),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8. 29.).

3)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1950년 4월에 IL-10 항공기와 YAK-9 항공기 총 60대를, 6월 18일에 IL-10 항공기 60대를 추가로 인수했고, 한국은 T-6 훈련기 10대를 구매했다. 이신재(2016), p. 248.

4) 북한군은 추격기 84대, 습격기 113대를 보유하고, 한국군은 L-4 연락기 8대와 L-5 연락기 4대, T-6 훈련기 10대를 보유했다. 김선호, 「한국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軍史』, 第89號, (2013), p. 192;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p. 435; 박동찬(2014), p. 90;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1輯(1949.10.1.-1953. 7.27.)』(서울: 공군교재창, 1962), p. 66.

5) 당시 북한 공군은 총 2,8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한국 공군은 총 1,897명의 병력을 보유했다. 박동찬(2014), pp. 90, 435;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66.

한국이 항공기를 제때 확충하지 못한 대가는 컸다.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었고,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⁶⁾ 소련과 북한은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 부대로 한국의 방어선을 신속하게 돌파하고 전과를 확대하려는 공격계획을 수립했다.⁷⁾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의 항공력에 의해 전차의 진격이 저지될 가능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⁸⁾ 북한군 기계화 부대는 대전차 무기를 갖추지 못한 한국군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하고 남하했다. 개전 직후 미국의 항공력이 투입되어 북한군 전투기를 제압했지만, 일본에서 출격하는 미 공군의 제트기는 전차의 진격을 저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⁹⁾ 북한군이 공격하기 8개월 전에 이미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유사시 북한군 전차와 항공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F-51 전투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개전 이후 김정렬(金貞烈) 공군총참모장은 한국 공군이 그 전투기를 20대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육군으로 하여금 戰車恐怖症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아군의 사기를 올려 그 같은 치욕적인 참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¹⁰⁾ 그 “참패”는 충분히 인식하고

-
- 6) 전쟁발발 당시 소련과 북한은 한국군이 기종 불명의 항공기를 60대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항공기의 대수는 실제보다 2배 가까이 과장된 것이었지만, 그렇더라도 북한군이 압도적인 항공력 우세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서울: 천세, 2006), pp. 60~61.
- 7)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 전쟁의 배경과 원인』(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4), p. 551.
- 8) 북한은 항공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보병사단의 편제에도 항공타격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방공전력은 배비하지 않았다. 군사편찬연구소(2004), p. 592; 장성규, 『6·25전쟁기 미국의 항공전략: 현대항공전략의 기원』(서울: 좋은 땅, 2013), p. 98.
- 9) 당시 미국이 운용하던 F-80 제트 항공기의 항속거리(1,200km)로는 일본 이타즈케 기지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서울까지 출격할 경우 체공시간이 짧아서 전방통제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차를 탐색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Futrell(1983), p. 32.
- 1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 36; 김정렬, 『金貞烈 回顧錄』, (서울: 乙酉文化社, 1993), p. 466.

있던 안보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책 실패였다.¹¹⁾

이런 정책 실패는 어쩌다 초래된 것일까? 이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지극히 부분적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남북 간 군사력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주로 미국의 실패로 여겨진다. 소련이 북한의 군사력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안 미국은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대한군사원조에 소극적이어서 “한국 공군의 성장은 제외”되었다는 것이다.¹²⁾

이 과정에서 한국의 책임은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군사력 건설을 시도하여 그 정책 실패를 부채질했다는 점이 지목된다. 윤시원은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융통성 없는 협상 방식을 고집”한 것이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고, 정병준은 공격형 군대를 건설하려는 그 정부의 무모함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인 원조를 꺼리게 되어 한국군이 “공격의도를 가진 방어형 군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¹³⁾ 한편 전쟁 이전 한국과 북한의 항공력 건설

11) 항공력 열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는 1930년대 영국을 꼽을 수 있다. 1937년 10월에 영국은 “12월이 되면 최전선 항공기의 경우 독일은 3,240대인 반면 영국은 1,736대에 불과하게” 되어 “독일에 대해 실질적인 항공력에 있어서 엄청난 열세에 있다”는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급속하게 항공력을 증강하여 영국전투에서 승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Martin Gilbert, Churchill: A Life (London: Heinemann, 1992), pp. 571-575.

12) 박동찬,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주한미군사고문단』(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16), p. 199. 이 밖에도 이 시기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정애,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정책(1948~1950): 결정과 집행 및 한국정부의 추가군원 요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7, (1998); 박동찬(2016), pp. 117-228; Gregg Brazinsky, 나중남 역,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서울: 책과함께, 2011), pp. 51-65;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파주: 돌베개, 2006), pp. 227-403; 장성규(2013), pp. 64-73.

13)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 第77號, (2010); 정병준(2006), pp. 369-403, 673-674.

과정을 분석한 김경록은 양측 모두 “공군력을 지상군 전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외시”했음을 강조했다.¹⁴⁾

이 연구들은 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이 결과적으로 무익했다거나 심지어 해로웠던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공군이 발간한 역사서에서조차 공군이 창설되는 과정만 피상적으로 소개될 뿐 항공력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수준의 정책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1952년에 수립한 「대한민국공군3개년계획안」을 한국이 항공력을 건설하기 위해 스스로 추진한 계획의 시초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¹⁵⁾

이 연구에서는 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항공력을 건설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이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누고, 항공력을 건설하기 위한 이승만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질적인 노력을 미국과 한국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¹⁶⁾

14) 김경록, 「해방 이후 남북한의 공군력 인식과 한국전쟁 준비과정」, 『軍史』, 第67號, (2008); 김경록, 「6·25 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 第73號, (2009).

15)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63-66;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2輯(1953. 7.27.-1957. 12.31.)』, (서울: 공군교재창, 1964), pp. 87-89.

16) 미국 측 자료로서는 미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의 Record Group 330, 338 자료들과 미 국무부 외교사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이하 FRUS), 미 합동참모본부(U.S. Joint Chiefs of Staff, 이하 JCS)기록, 그리고 미 공군 역사연구소(U.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이하 AFHRA)의 역사자료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 측 자료로서는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서신, 명령서, 각종 일지 등을 검토한다.

2. 미국의 봉쇄전략과 한국의 공격형 항공력 건설 시도 (1948년 11월 ~ 1949년 3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미국은 대소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을 새로운 대전략으로 채택했다.¹⁷⁾ 1948년 11월에 미국가 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 20/4 보고서에서 트루먼(Harry S. Truman) 정부는 독일과 일본의 패망으로 발생한 힘의 공백지역을 소련이 지배하게 되는 상황을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힘의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변경 방어(perimeter defense)” 대신 “거점 방어(strong point defense)”를 택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곳에서 분쟁에 연루되는 일을 피하면서 중요한 곳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다.¹⁸⁾

이러한 초기 봉쇄전략을 배경으로 대한군사원조정책이 결정되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다. 단지 자립경제를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에서 민주주의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상징적 가치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원조를 하더라도 행여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대상이었다.¹⁹⁾

17) 대전략의 개념은 다음을 참고할 것. Nina Silove, “Beyond the Buzzword: The Three Meanings of “Grand Strategy”, *Security Studies*, no.27 (2018), p. 40.

18) John Lewis Gaddis, 홍지수, 강규형 역, 『미국의 봉쇄전략』(서울: 비봉, 2019), pp. 101-109.

19) 이철순,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 『國際政治論叢』, 제43집 (2003), pp. 163-180;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0년 1월 26일에

구체적으로 대한군사원조정책의 방향을 규정한 것은 1948년 4월 8일에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NSC 8 보고서였다. 여기에는 한국을 내팽개쳐서 소련이 지배하게 되는 일도, 미군을 주둔시켜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일도 피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트루먼은 원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했다.²⁰⁾ 1949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1억 8천 5백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경찰력을 확대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²¹⁾ 이를 통해 한국은 5개 경비병 여단 총 5만여 명 규모의 조선경비대와 합정 105척에 총 3천여 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갖추게 되었다.²²⁾

이승만 정부는 그 정도 군사력으로는 북한과의 정규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²³⁾ 정부가 구성된 지 3개월 만에 여수와 순천의 조선경비대 부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정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중국 대륙에서는 공산군이 승리를 이어가고 주한미군은 철수를 시작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감이 커졌다. 지리산과 제주도에서 ‘토벌작전’을 완료한 후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공산당을 토벌하고, 이들을 한만국경으로 몰아넣어 굶겨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할 정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미국의 원조는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원조가 주축을 이루었다. 김승기, 최정준, 『한국군 전력증강사1 (1945- 1960)』(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pp. 101-103.

20) James I. Matray, 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 미국의 대한 정책, 1941-1950』(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 185-189; 박동찬(2016), pp. 128-129.

21) FRUS 1948, *Volum V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한 미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보고서” (1948. 4. 2.).

22)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국방정책 연구: 한국군의 증강과 대미 군사외교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09), pp. 14-18; 백기인, 『建軍史』(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148-160, 196-208.

23)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2009), pp. 125-133.

로 ‘실지회복’ 혹은 ‘복벌’을 강조했다.”²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목표가 공식화되었다. 11월 5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李範奭) 국방장관이 준비한 목록을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어 대규모 군사원조를 요구했다. 그 가운데 항공기지사령부가 작성한 목록에는 2개 전투비행대대와 1개 폭격비행대대를 갖추기 위해 F-51 전투기 30대와 B-25 폭격기 12대, C-47 수송기 2대, T-6 훈련기 20대 등 총 64대의 항공기와 기타 무장이 필요하며, P-51 전투기 교관 3명과 B-25 폭격기 교관 2명을 포함한 고문관 10명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²⁵⁾

이승만 정부는 11월 27일에 필요한 군사력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주한미군사령부로 재차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1949년이 되면 북한 지상군이 8만 명 수준으로 증강되고, 약 10만 명에 달하는 만주와 중국 북부지역의 공산군이 지원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49년까지 정규군 10만 명에 예비군 5만 명을 보유하는 수준으로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기지사령부도 장교 174명에 항공병 826명으로 총 1,000명에 불과한 규모를 1949년 말에는 장교 1,044명에 항공병 4,956명 등 총 6,000명 수준으로 6배 증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추가로 필요한 항공기 총 350대를 그 해 연말까지 원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²⁶⁾ 이와 함께 이승만 정부는 『국군조직법』에 “육군의 항공력을 필요한 시기에

24) 정병준(2006), pp. 239-246.

25) JCS 1483/60(1949. 2. 1.), “Note by the Secretaries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on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Korea for U.S. Army, Navy, and Air Forces Equipment”; 장성규(2013), pp. 67-69.

26) NARA RG 338, Box 105,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Recommendation for Proposed Organization of Regular and Reserve Army for South Korea”(1948. 11. 27.).

공군으로 독립시킬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공군을 창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해군본부와 구분된 항공국을 국방부 직할로 설치하도록 법령을 제정하여 항공부대의 양병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²⁷⁾

〈표 1〉 한국 정부의 항공기 원조 요구목록(1948. 11. 25.)

1949년 3월 31일까지 인도		1949년 12월 31일까지 인도	
기종	대수	기종	대수
T-6	25	PT-17	30
AT-10 or C-45	5	T-6	50
P-51	55	AT-10 or C-45	20
B-25	12	P-51	120
C-47	3	B-25	25
-	-	C-47	5
총계	100	총계	250

* 출처: NARA RG 338, Box 105,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Recommendation for Proposed Organization of Regular and Reserve Army for South Korea” (1948. 11. 27.)

1948년 말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목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공격형 항공력을 건설하려 했다. ‘공격형(offensive)’ 군사력은 상호 간 공격의 이점이 너무 커서 선제공격을 당하면 단기간에 결정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상대방 군사력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 즉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설계된 군사력을 의미한다.²⁸⁾ 폭격기는 항공력에 있어서 그러한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27) 「國軍組織에 關한 法令」, (1948년 11월 30일 제정); 「國防部職制」, (1948년 12월 7일 제정); 강창부, 김기동, 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제64집, (2016), p. 241.

28) 이것은 포젠(Barry R. Posen)이 사용한 개념을 빌린 것이다. Barry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p. 13-33.

무기체계이다. B-25 폭격기는 미국이 1942년에 돌리틀(Doolittle) 공습에도 사용한 기종으로 한국은 북한 전역을 폭격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한 셈이었다. 그러한 폭격기를 37대나 보유하겠다는 계획은 이승만 정부의 목적이 단순한 방어에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제반 여건에 비해 건설하려는 규모가 과대했다. 연락기 16대만 운용하고 있던 항공기지사령부로서는 항공기 350대가 단 1년 만에 도입될 경우, 연료와 정비 등 군수적 소요를 감당할 역량이 없었다. 한국이 “경제적, 산업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공군력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무초 미대사의 평가는 단순한 폄훼가 아니었다.²⁹⁾ 또한 그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조종사도 부족했다. 미국에 원조를 요구하면서 한국은 80명의 숙련된 조종사와 150명의 예비조종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 공군의 정보보고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조종사는 총 30명에 불과했다.³⁰⁾ 적게 잡아 항공기 1대당 1명의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계산해도 총 35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종사의 수가 턱없이 모자랐다.³¹⁾ 게다가 요청한 항공기 규모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도 고

29) NARA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The Ambassador in Korea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9. 5. 3.)

30) 29 August 1949). 또한 국군조직법 초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왜왜 공군 창설이 빠져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참모총장대리 채병덕은 국군에 “항공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10여 명밖에 되지 않아” 여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제헌국회 제1회 제100차 국회본회의』, 1948년 11월 10일.

31) NARA RG 338, Box 105,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Recommendation, for Proposed Organization of Regular and Reserve Army for South Korea”(1948. 11. 27.) 1952년에 수립한 『대한민국공군3개년계획안』에서는 전투기 300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450명의 조종사(항공기 1대당 1.5명)가 필요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대한민국공군3개년계획안(大韓民國空軍三改年計劃案)』(1952).

려되지 않았다. 폭격기를 포함한 350대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요구되는 지휘참모조직과 전술통제조직, 비행훈련조직 등을 단기간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³²⁾

종합해 보면, 1948년 말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원조 요구에는 현대 항공력의 운용에서 당연한 내용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누락되어 있었다. 그 누락에서 한국의 진정한 결핍이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항공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목표했던 수준의 항공력을 운용할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³³⁾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요구는 그 항공기를 어떻게 유지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불분명하면서도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명확해 보였다. 또한 그러한 원조는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체의 경제 능력, 정치적 안정, 군사력을 배양시켜 스스로 방어하도록 하려는” 트루먼 정부의 대한원조정책과 충돌했다.³⁴⁾ 한마디로 한국의 항공력 건설 목표는 미국의 봉쇄전략에 부합하지 않았다. 미국이 우려하는 군사적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립 경제는 더욱 멀어지게 할 것으로 보였다.

32) 이지원, 「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5집, (2020), pp. 47-58; 항공기지사령부 예하에는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 뿐이었다. 공군본부, 『空軍發展略史 第1卷』(공군본부, 1954), pp. 2-4.

33) 항공기지사령부의 지휘부에는 작전적 수준의 항공작전을 계획하고 운용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초대 공군총참모장으로 임명된 김정렬의 경우, 1948년 11월에 만 31세로서 광복 이전에 일본군에서 전술제대에서 복무했을 뿐,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이나 참모 역할을 수행한 경험은 없었다.

34) Matray(1989), p. 188. 한국의 요구에 대하여 주한미군은 한국의 경제수준으로는 그 정도 규모의 항공력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라는 의견을 미 육군부에 표명했다. JCS 1483/60(1949. 2. 1.), “Request for United State Air Force and Navy Equipment”(1948. 11. 22.), “Request of Government of Korea for Army, Air Force and Naval Equipment”(1948. 12. 10).

이듬해 2월에 군사원조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로얄(Kenneth C. Royall) 육군부장관과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참모장 대리가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회담을 했다. 한국 측은 이전의 요구를 반복하면서 육군을 10만 명으로 증강하고 공군을 창설하겠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 역시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회담 이후 미국은 육군 6만 5천 명과 경찰 4만 5천 명, 그리고 해군 4천 명의 병력 규모로 원조하기로 결정했다. 항공력은 연락기만으로 구성된 “항공분견대(air detachment)”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³⁵⁾

이 결론은 1949년 3월 22일에 승인된 NSC 8/2 보고서에 그대로 담겼다. 한국에 정규 해군과 공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피해야 한다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주장에 따라 항공력은 육군과 통합된 형태인 ‘항공분견대’로 설치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조의 규모는 연락기 12대로 한정되었다.³⁶⁾ 이듬해 6월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목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때까지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항공력 원조의 기본 방침으로 간주되었다.³⁷⁾

35) 윤시원(2009), 33-34; JCS 1483/62 (1949. 3. 12.) “Memorandum by the Chief of Staff, U.S. Army to the Joint Chief of Staff on Strength of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1949. 3. 12.).

36) FRU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 969-978. “한국에 관한 미국의 입장”(1949. 3. 22.);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1950-1951 : The Korean War, Part One*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1998), pp. 11-12.

37) 미국은 이미 1948년에 L-4기 10대와 L-5 10대를 한국에 인계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항공기와 장비 이외에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항공력 원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AFHRA,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3. 한국의 先양병정책과 방어형 항공력 건설 추진 (1949년 4월 ~ 1949년 12월)

NSC 8/2가 대한군사원조정책의 방침으로 자리잡을 무렵, 이승만 정부는 항공력 열세를 현실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3월 1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이 “소련 소형 군용기 300대 및 일본제 군용기 28대가 이북에 도착되어 적극 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³⁸⁾

이승만 정부는 항공기 도입이 난망한 상황에서 우선 조종사를 충원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다. 조종사의 숫자는 항공기 원조를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인용되곤 했다.³⁹⁾ 미 공군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 시점에 육군항공사령부에는 60명 정도의 조종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기성 조종사들이 지휘부를 제외하고 26명, 비행시간 400시간 이하의 초급 조종사들이 34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광복 이전에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비행활동을 했던 경력자들이었다.⁴⁰⁾

38) 『제32회 국무회의록』(1949. 3. 18.), “이북괴뢰정권의 군사동향에 관한 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과장된 평가였다.

39) 가령,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9월 19일에 맥아더(Douglas MacArthur) 극동군사령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이 총 62명의 숙련조종사(superior fighters)와 44명의 초급조종사(experienced pilots)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 1944-194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이승만이 맥아더에게”(1949. 9. 19.).

40) NARA RG 330, Box 68,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1944-67*, “Proposed United States Assistance Program for The Korean Air Force”(1949. 12. 2.) 6·25전쟁 이후 공군은 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26명을 “A클래스”로, 400시간 이하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조종사들을 T-6 비행훈련을 받은 순서대로 “B클래스”로 분류했다.

항공분야 경력자들의 수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충원이 불가능했다. 이승만 정부는 무경력자를 대상으로 초급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사관후보생을 모집했다.⁴¹⁾ 또한 비행경력이 없는 항공병들 가운데 후보생을 선발하여 초급 조종사로 양성하는 ‘조종사사관’ 제도를 마련했다.⁴²⁾ 항공병도 급속하게 충원하여 1948년 7월부터 1949년 2월까지 7개월 간 모집한 병력 규모(817명)를 단 3개월 만에 모집했다.⁴³⁾

하지만 고등훈련기가 없으면 숙련 조종사를 양성할 수 없었다. 7월 1일에 주한미군사고문단이 설치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 미 대사에게 “일단의 숙련 조종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T-6 훈련기와 계기비행훈련장비, 그리고 F-80 제트전투기와 비행훈련을 위한

스”, “C클래스”, “D클래스”로 구분했다. 그 수가 34명인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장교자력기록부와 조종사명부 등을 대조하여 분석해 보면 대략 30~4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군역사기록단, 『T-6 수료조종사명부』(1957); 공군역사기록단, 『F-51 수료조종사명부』(1957); 『공군장교자력기록부』. 한편, 미군 자료를 바탕으로 미 공군사를 서술한 퍼트렐(Robert F. Futrell)은 1950년 4월에 한국 공군이 조종사 57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39명이 비행교육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기록했다.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Revised Edition*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 17. 한편, 항공기지사령부는 1948년 12월 1일부로 국군조직법이 발효됨에 따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했다.

41) 육군항공사관학교는 1949년 1월 14일에 창설되어 6월 10일에 97명의 사관 후보생(사관생도)이 입교했다.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공군사관학교 70년사』(계룡: 국군인쇄창, 2019), p. 175.

42) 이 제도는 1949년 8월 19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공군역사기록단, 『空軍日誌(1948-1953)』, 1949년 8월 19일자; 한편, 니콜스는 정보보고서에서 1949년 8월 18일에 총 25명의 항공병이 육군항공사관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AFHRA,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9. 12.).

43) 6월 13일에 340명, 8월 9일에 252명, 8월 19일에 229명 등 총 821명을 모집했다. 『空軍日誌(1948-1953)』, 1948년 7월 12일자, 9월 18일자, 1949년 2월 15일자, 6월 13일자, 8월 9일자, 8월 19일자.

교관조종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⁴⁴⁾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현재 L형 연락기만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군이 고비용에 고난도의 정비기술이 요구되는 F-80 제트전투기를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도약”이고 “야심찬” 시도라며 이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의 상황에서는 T-6 훈련기를 구입한 후 점차 전술 항공기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⁴⁵⁾

이승만 정부는 독자적으로 T-6 훈련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8월 19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어캐리어서비스社(Air Carrier Service Corporation)와 계약을 체결하여, 캐나다에서 운용하는 ‘Harvard Mark II’ 버전의 T-6 훈련기 10대에 기관총과 건 카메라, 폭탄걸이 등을 장착하고 여분의 부품 등을 함께 구매했다.⁴⁶⁾ 또한 이 항공기들의 구매 대금 마련을 위한 항공기구입기금 헌납운동을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2억 원을 모으기로 했다.⁴⁷⁾ 모금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항공기들은 선편으로 이듬해 3월에서 5월까지 2~3대씩 순차적으로 도착했다.⁴⁸⁾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서신을 보내어 랜달(Russell E. Randall) 공군 준장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고위급 장교가 항공력 건설 방안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⁴⁹⁾

44) NARA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이승만이 무초에게”(1949. 7. 1.).

45) *op. cit.*, “로버츠가 무초에게”(1949. 7. 18.); *op. cit.*, “브라운필드(Ralph O. Brownfield)가 무초에게”(1949. 7. 18.).

46) *op. cit.*, “실버(Ernest J. Silver)가 브라운필드에게”(1949. 8. 15.).

47) 『제84회 국무회의록』(1949. 9. 21.); 『제85회 국무회의록』(1949. 9. 23.); 『資料大韓民國史 第14卷: 1949年9-10月』(서울: 國史編纂委員會, 2000), “국무회의, 항공기구입기금헌납운동을 전개” 주보 제27호, pp. 26-27.

48) 『空軍日誌(1948-1953)』, 1950년 5월 14일자.

49) 국사편찬위원회(1996), “이승만이 맥아더에게”(1949. 9. 19.) 현대 항공력에 대한 경험이 없던 이승만 정부는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한 항공력 건설을 위한 조언이 시급하여 퇴역한 셔놀트(Claire L. Chennault)장군에게 공군 고

항공기구입기금 헌납운동을 개시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는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 제23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을 발령하여 공군을 창군했다.⁵⁰⁾ 당시 미 공군은 한국 공군이 창군된 것은 항공사상에 지극히 열성적(“extremely air-minded”)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중국군 및 일본군 출신 항공인들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⁵¹⁾ 그가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항공기 도입 이전에 우선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항공력을 원조하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⁵²⁾

트루먼 정부는 한국이 독립 공군을 운영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 무렵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은 한국의 항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분명하게 선회했다. “조직과 기구를 확대한 뒤 미국의 원조를 받아내려는”⁵³⁾ 이승만(李承晩)의 의도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항공력을 강화하

문이 되어 줄 것으로 요청했고, 그는 중국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기 대신 랜달 장군 준장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현역 장군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고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맥아더에게 그러한 승인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랜달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1949년 11월 26일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11월 30일부로 전역하였다. FRUS 1949(1969), “동북아시아과 존 윌리엄스(John Z. Williams)가 작성한 대화 비망록” (1949. 12. 7.).

50) 「國軍組織에 關한 法令」(1948년 11월 30일 제정); 「空軍本部職制」(1949년 10월 1일 제정).

51)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ROKAF-Origin and Political Background”(1951. 8. 7.).

52) Martha Byrd, *Chennault: Giving Wings to the Tiger* (Tuscaloosa: University Alabama Press, 1987), p. 343. 이와 관련하여 로버츠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은 신성모(申性模) 국방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어 “독립적인 공군을 창설하기로 한 결정이 우리 군사고문단의 어느 누구와의 협의도 없이 내려진데 대하여 유감”이며, “그 항공군(the air force)을 육군의 일부로 유지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ARA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로버츠가 신성모에게”(1949. 10. 7.).

53) 윤시원(2009), p. 46.

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이었던 까닭이었다.

1949년 9월 초에 미 제5공군은 소련이 북한에 항공기와 교관조종사, 고문단을 원조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보를 획득했다. 북한 공군은 이미 800명의 병력과 36대의 항공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달 말에는 6월 16일에 평양비행장에 훈련을 마친 60명의 북한 조종사와 70명의 소련조종사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⁵⁴⁾ 9월 16일에 무초 미대사는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최근 소련이 북한에 상대적으로 고성능인 군용기를 상당수 공급하고 있다”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보고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한국에 대한 항공력 원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⁵⁵⁾ 아울러 로버츠(William L. Roberts)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은 9월 21일에 T-6 훈련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을 도울 수 있는 교관조종사와 지원요원을 주한미군사고문단에 포함시켜 한국에 파견해 줄 것을 본국에 요청했다.⁵⁶⁾

얼마 후,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중국대륙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자, 항공력 격차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무초 미대사는 11월 8일에 국무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어 “현재 보유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의 항공기를 보강하여 한국 공군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이 북한 공군의 확장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로버츠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입장을 전달했다.⁵⁷⁾ 그리고 주한미군사고문단은 한국 공군에 대한

54) U.S. 5th Air Force, *The History of the Fifth Air Force, 25 June - 31 October 1950*, Chapter VI “North Korean Air Force”

55) FRUS 1949(1969), “무초가 애치슨에게”(1949. 9. 16.).

56) 그러나 미 공군과 공군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사고문단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RG 338, Box 19, KMAC,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Memorandum for Mr. E. F. Drumright: History of Requests for Air Aid for Korea”(1950. 4. 11.).

57) FRUS 1949(1969), “무초가 애치슨에게”(1949. 11. 8.).

군사고문 지원을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이승만 정부에 조언했다.⁵⁸⁾

이승만 정부는 랜달 장군이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국 공군을 위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제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에 무초 미대사를 통해 제출했다.⁵⁹⁾ 이 제안서에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현재 3개 대대 규모의 공군을 1952년 3월까지 15개 대대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지상군은 북한의 공중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며, 한국군은 “방공 무기가 없어서 공습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⁶⁰⁾

이에 따라 세 가지 측면에서 항공력 원조를 요청했다. 우선 조직 구조 측면에서 참모본부와 전술사령부, 사관학교 외에 훈련비행단 1개와 전투비행단 1개를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각 비행단에서 1개 대대 규모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총 75대의 항공기와 서울과 인천을 방어하기 위한 24문의 대공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문 및 훈련 지원을 위해 장교 10명, 항공병 18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⁶¹⁾

58) NARA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라이트(W. H. S. Wright)가 신성모에게”(1949. 11. 21.)

59) FRUS 1949(1969), “무초가 애치슨에게”(1949. 12. 7.); NARA RG 330, Box 68,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1944-67*, “Proposed United States Assistance Program for The Korean Air Force”(1949. 12. 2.); RG 338, Box 19, KMAC,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Memorandum for Mr. E. F. Drumright: History of Requests for Air Aid for Korea”(1950. 4. 11.).

60) *Ibid.*

61) *Ibid.*

〈표 2〉 한국 정부의 항공기 원조 요구목록(1949. 12. 2.)

유 형		보유 (예정)량	총 요구량	~1950. 4. 1.	~1950. 7. 1.	~1950. 10.1.	~1950. 12.31.	총계
정찰기	L-4	8	0	0	0	0	0	8
	L-5	6	15	0	5	5	5	21
훈련기 AT-6		10	20	0	5	5	10	30
수송기 C-47/C-46		0	9	0	3	3	3	9
장거리정찰기		0	6	0	2	2	2	6
F-47/F-51		0	25	6	19	0	0	25
총 계		24	75	6	33	15	20	99

* 출처: RG 330, Box 68, 330.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1944-67), 330.6.2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posed United States Assistance Program for The Korean Air Force"(1949. 12. 2.).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단연 첫 번째였다. 우선 전투비행단을 창설하여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제대를 갖추고, 일반참모본부와 전술사령부를 설립하여 작전적 수준의 용병(用兵) 구조를 건설하며, 전투조종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행단을 설치하여 양병(養兵)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1949년 말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목표는 그 이전과 뚜렷하게 비교되었다. 우선 북한 항공력의 선제공격을 거부하는데 요구되는 전력을 도입하여, 방어형 항공력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명백하게 밝혔다.⁶²⁾ 25대의 전투기와 9대의 수송기, 6대의 정찰기는 대공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 구성에 가까웠다.⁶³⁾

62) '방어형(offensive)' 군사력은 상대방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군사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선제공격이 비용 대비 효과는 적다는 가정이 바탕이 된다. Posen(1984), pp. 13-33.

63) 이승만 정부는 그 제안서의 말미에 "한국정부는 공격적인 목적으로 공군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려는 야망이나 의도가 없"으며, "유일한 관심사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한국의 안보와 방어"라고 밝혔다.NARA RG 330, Box 68,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1944-67., "Proposed United States Assistance Program for The Korean Air Force"(1949. 12. 2.).

다음으로 그 목표는 규모 면에서도 현실에 부합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원조를 요구한 전투기와 수송기, 장거리정찰기 40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60여 명의 조종사를 재훈련하면 운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또한 그 제안서에서 제시된 조직구조는 최소한의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군 조직의 마지막 주춧돌이었다.

4. 미국의 군사원조 지연과 한국의 항공력 증강 실패 (1950년 1월 ~ 1950년 6월)

무초 미대사는 장거리 정찰기 6대는 불필요하고 수송기는 3대면 충분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는 적절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의견은 “주한미군사고문단장, 공군 무관과도 일치”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 문서가 포함된 한국의 군사원조 요청 문서를 국무부에 전달하였다.⁶⁴⁾ 이와 별개로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은 주한미군사고문단 반기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1950년도 원조 목록에 40대의 F-51 전투기, 10대의 T-6 훈련기, 2대의 C-47 수송기, 그리고 약 25만 달러 수준의 지원 통신 장비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⁶⁵⁾ 그리고 1950년 1월 25일에 무초 미대사는 상호방위원조법 제303조의 자금을 활용하여 한국에 군사원조를 실시하자는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건의안을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은 “북한은 최소한 30대의 소련제 YAK-3 전투기를 이전 받았으며, 한국 공군은 이런 종류의 항공기와 맞서 싸

64) FRUS 1949(1969), “무초가 애치슨에게”(1949. 12. 7.); 박동찬(2016), p. 214.

65) Robert K. Sawyer, 이상호, 윤시원, 이동원, 박영실 역, 『주한미군사고문단사』 (서울: 선인, 2018), pp. 121-122.

을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이 요청한 전투기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⁶⁶⁾

이승만 정부로서는 1년 전보다는 희망적인 상황이었다. 주한미군 사고문단과 주한미대사가 적극적으로 항공력 원조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었고, 김포공항 운영권을 인수받는 등 항공력 건설 여건도 나아지고 있었다.⁶⁷⁾ 1950년 1월 26일에는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군사원조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⁶⁸⁾

다만 항공기가 도입될 것을 고려하면 先양병정책을 보다 서둘러야 했다. 창군 당시 공군의 장교단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1명 가운데 조종사가 약 60명이고 정비 및 통신 인력이 약 63명이었으며, 기타 참모업무를 위해 육군으로부터 편입한 인원이 총 28명이었다.⁶⁹⁾ 조종사의 수는 비행훈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새로 도입될 항공기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비 및 참모장교가 문제였다. 항공기가 대규모로 도입될 경우 급증할 정비와 보급, 행정 업무의 소요를 감당하기에는 정비장교와 기타 참모장교의 수가 부족했다. 김정렬 공군총참모장은 1951년에 작성한 회고록에서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66) FRUS 1950, *Volume VII, Korea*(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무초가 애치슨에게”(1950. 1. 25.); 이 건의안에서 주한미군 사고문단은 한국 공군에 대하여 F-51 25대, B-25 6대, C-47 9대, T-6 20대, L-5 15대 등 총 75대의 항공기를 원조할 것을 건의했다. 박동찬(2016), pp. 212-213.

67) 1950년 1월 14일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김포비행장 운영권을 인수 받았다. 미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이 자력으로 김포비행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1년간 63만 달러를 지원하고, 기타 기술적 원조금과 훈련, 법규 제정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항공회, 『대한민국항공사(1913-1969)』(서울: 대한민국항공회, 2015), pp. 296-294.

68) 김승기(2020), p. 110; 박동찬(2016), pp. 212-213.

69) 공군역사기록단, 『공군장교자력기록부』.

북괴군의 38선 침공으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아는 순간 나는 공군 2천 명 장병에 대하여 미안한 感에 가득 찼다. 왜냐 하면 건국기 10대와 L-5 4대, L-4 8대를 가지고 작전을 하는 데는 불과 350명 내지 400명의 인원만 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 1천 6백 명에 대하여는 하등의 임무도 부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 하지만 공군 2천 명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기초에서 나온 것이었다.

전투기 40대, 폭격기 10대, 수송기 5대, 고등 연습기 20대, 연락기 20대. 이것이 제1차 계획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2천 명이었던 것이다. 機材가 도착하기 전에 인원을 모집하고, 그 인적 요소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인원 보다 훨씬 많이 병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정밀한 기계를 능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기술자는 一朝一夕에 확보할 수 없으니 인원을 미리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⁷⁰⁾

김정렬이 회고하고 있는 ‘계획’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인원을 모집하고, 그 인적 요소를 양성”하겠다는 정책은 차근차근 추진되었다. 우선 이승만 정부는 정비 및 참모업무 수행을 위한 양병에 박차를 가했다. 주한미대사가 추가 항공력 원조를 요청한 직후 한국 공군은 단기간에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병들을 특별임관시키고, 공군사관학교에 경리사관후보생 과정과 정보사관후보생 과정을 개설하였다. 또한 항공병들을 단기간 교육하여 장교로 양성하는 소집학생 과정을 개설하여 4월에는 43명을 임관시켰다. 창군 이후 전쟁 이전까지 임관한 총 93명의 공군 장교 중 87명이 이 기간에 양성되었다.

70) 김정렬(1993), pp. 467-468.

〈표 3〉 창군 이후 한국 공군의 장교 양성 현황(1949. 10. 1. ~ 1950. 6. 25.)

기 간	총원(명)	양성 방법
1949년 10월	1	육편1
1949년 11월	2	육편2
1949년 12월	2	육편2
1950년 1월	1	육편1
1950년 2월	20	경리사관후보생19, 육편1
1950년 3월	15	육편1
		항공병 특별임관3, 정보사관후보생9
		육편2
1950년 4월	45	2차 소집학생 43, 민간인 특별임관2
1950년 5월	1	귀순자 특별임관1
1950년 6월	6	민간인 특별임관3
		여자항공병 특별임관2
		육편1
총 계	93	-

* 출처: 『공군장교자력기록부』

그러나 막상 트루먼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무부를 통해 이승만 정부의 요청서를 접수한 국방부 군사원조실장 램니처(Lyman L. Lemnitzer) 소장은 이를 공군부에 전달했다. 3월 11일에 공군부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NSC 8/2가 승인된 이후 한국의 상황이 군사원조계획의 확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력 원조 요청이 담긴 주한미군사고문단의 반기보고서는 4월 11일까지도 육군부에 회람되지 않았다. 그 시점까지 “한국에 추가로 항공기를 원조해야 한다는 수많은 요청들은 NSC 8/2의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육군부와 공군부에서 계류 중이었으며, 공군고문단 요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⁷¹⁾ 램니처 소장은 NSC 8/2가 개정되기 전까지

71) 박동찬(2016), pp. 223-228; RG 338, Box 19,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Memorandum for Mr. E. F. Drumright: History of Requests for Air Aid for Korea”(1950. 4. 11.).

는 역시 전투기 등을 원조할 목적으로 1950회계연도의 원조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⁷²⁾ 한국에 상호방위원조법 제 303조의 자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던 국무부 상호방위원조계획국은 국방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1950회계연도에는 그러한 정책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⁷³⁾

애치슨 국무장관은 무초 미대사에게 “미국적 개념에서 항공분견대는 통상적으로 육군과 연결된 경비행기부대와 육군 예하의 우편부대로 구성”되며, 한국은 이와 달리 “완전히 독립적인 공군”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국방부의 잠정적인 견해”를 설명했다.⁷⁴⁾ 애치슨의 답변을 듣고 무초는 즉각 미국으로 귀국하여 국방부 등을 상대로 직접 협상을 시도했다. 5월 10일에 국방부 군사원조실장과 공군 작전참모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대에서 40대 정도의 F-51 전투기를 긴급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에 추가로 항공력을 원조하려면 NSC 8/2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회의 이후 국무부는 무초 미대사에게 만약 F-51 전투기를 지원해 준다면 그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시설과 정비 부품 및 장비, 기타 운용 경비를 어떻게 획득할 것이며, 조종사와 정비사는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⁷⁵⁾

72) 윤시원(2009), pp. 64-65; 박동찬(2016), pp. 217-218; NARA RG 330, Box 82, 330.2 General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SD), 1941-87, 330.2.1 Records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s Division, Correspondence Control Section, Entry 199, Decimal File, 1951, “앨리슨(John M. Allison)이 할라비(Najeeb E. Halaby)에게 (1950. 1. 30.).

73) 박동찬(2016), p. 218; RG 338, Box 19,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Memorandum for Mr. E. F. Drumright: History of Requests for Air Aid for Korea”(1950. 4. 11.).

74) FRUS 1950(1976), “애치슨이 무초에게”(1950. 4. 13.).

75) 윤시원(2009), pp. 65-66; 박동찬(2016), pp. 218-221.

무초 미대사는 한국에 대한 항공기 원조 문제를 경제협조처(ECA)와 협의한 후 5월 23일에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건의안을 국무부에 발송했다. 여기에서 그는 무장과 통신장비를 갖춘 F-51 전투기 40대와 T-6 훈련기 10대, 그리고 C-47 수송기 3대와 그 부속 및 정비 장비를 지원하고 장교 6명과 병(부사관) 11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파견할 것을 국무부에 요청하였다. 이 항공기들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등은 한국 정부가 담당하겠지만, 한국의 조종사와 정비사를 훈련하기 위하여 공군고문단은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 건의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⁷⁶⁾

기대했던 항공기 원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자 한국의 항공력 열세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1950년 3월에 극동공군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38선 인근에 소형 비행장들을 건설하고 있으며, 건설이 완료될 경우 38선 이남에서 수월하게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지상군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⁷⁷⁾ 미국은 4월 28일에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조종사 이진순(李建淳)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해 5월에 북한이 YAK 항공기 100대, IL-10 항공기 70대, PO-2 정찰기 8대, 미국의 L형 항공기와 유사한 연락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⁷⁸⁾ 한국이 목표로 삼았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5월 초에 “급성장하고 있는 북한 공군에 대항할 수 있는 항공전력 지원 요청에 대해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⁷⁹⁾

76) FRUS 1950(1976), “무초가 애치슨에게”(1950. 5. 23.); 김승기(2020), p. 168.

77) 장성규(2013), pp. 95-96.

78) FRUS 1950(1976), “드럼라이트(Everett F. Drumright)가 애치슨에게”(1950. 5. 11.) 그 밖의 한국과 미국의 추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obert F. Futrell,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52), p. ix; 『空軍日誌(1948-1953)』, 1950년 4월 28일자.

79) FRUS 1950(1976), “드럼라이트의 대화록(1950. 5. 9.).

조종사 양성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와 주한미 군사고문단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공군고문단을 전쟁 전까지도 지원하지 않았다. 5월에 한국 정부가 구입한 T-6 훈련기가 도착했지만, 교관조종사와 해외훈련 지원이 실행되지 못하여 숙련조종사 양성이 제한되었다.⁸⁰⁾

미국의 대한원조정책은 1950년 4월이 지나서야 변화될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고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자 ‘거점방어’에서 ‘변경 방어’로 전환하고 군사적 수단까지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NSC 68 보고서가 작성되어, 4월 7일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⁸¹⁾ 박동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조건 속에서 “주한미대사관과 군사고문단이 기획·건의한 대한군사원조의 추가지원계획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원조는 1950년 6월에 접어들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기울어졌다.” 한국의 방위가 곧 일본의 방위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국무부는 “공군 지원을 포함하는 추가 군사원조가 NSC 8/2의 수정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화하였으며, 국방부와 합참 역시 국무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⁸²⁾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1950년 후반기에는 한국의 항공력 건설 목표가 실현되기 시작하여 북한에 대한 항공력 열세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6월 25일 김포공항에 대한 북한군 전투기 4대의 공격과 함께, 얼마 전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80) 김정렬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 조종사에 대한 훈련은 7월에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김정렬(1993), p. 466. T-6항공기로는 “10명의 조종사들에게만 한정된 훈련을 실시”하고 “나머지 조종사들은 T-6기에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는 이강화의 회고를 참고하면, 전쟁 직전까지 숙련조종사 양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6.25 출격 조종사이자 기록사진가 이강화 장군의 6.25전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p. 93.

81) Gaddis(2019), pp. 146-177.

82) 박동찬(2016), pp. 223-228.

는 사실은 한국 정부로서는 너무 늦게 전해진 복음(福音)이 되고 말았다.⁸³⁾

5. 결 론

항공력을 건설하려는 이승만 정부 최초의 목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 속에서 공식화되었다. B-25 폭격기 37대를 포함하여 총 350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에 원조를 요청했다.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뚜렷해 보이고 그 원조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너무나 흐릿해 보이는 요구였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연락기만으로 구성된 항공분견대 정도를 원조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확정했고, NSC 8/2 보고서에 이를 명문화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것은 한국에 대한 항공력 원조의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었다.

1949년 봄이 되자, 북한과의 항공력 격차가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이승만 정부는 항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조종사를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독자적으로 예비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고,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T-6 훈련기 10대를 도입했다.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북한과의 항공력 격차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견해를 본국에 전했다. 이승만 정부는 미 공군 장성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항공력 건설 목표를 수립하고 미국에 다시 원조를 요청했다. 전투비행단과 훈련비행단 각 1개씩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총 75대의 항공기와 24문의 대공포, 그리고 공군고문단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83) FRUS 1950(1976), “무초가 애치슨에게”(1950. 6. 25.).

는 방어적 의도가 명백하고 요청한 규모도 현실적이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주한미군사고문단과 주한미대사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승만 정부는 항공력 원조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우선 병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구성하려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여 단기간에 정비 및 참모장교와 항공병을 집중적으로 충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등은 NSC 8/2의 원칙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항공력 원조를 거부했다. 남북 간 항공기 보유 대수 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던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은 항공력 원조의 시급성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미 공군부와 국방부는 NSC 8/2를 개정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항공력 지원은 곤란하다는 뜻을 고수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6월 무렵이 되면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원조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이들의 입장도 전환되었지만, 원조가 실행되기 전에 북한이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원조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한국 공군은 “양병조직 및 지휘참모조직의 과대(過大)함과 용병조직 및 전술제대의 과소(過小)함”으로 특징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⁸⁴⁾

그동안 6·25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은 무모하고 무분별하여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비판은 주로 정부 수립 직후 세워진 최초의 항공력 건설 목표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작전적 수준의 항공력을 운용한 경험이 없는 이들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패의 원인은 무모함이나 무분별보다는 차라리 무지에서 찾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최초의 항공력 건설 목표가 좌절된 후 이승만 정부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항공력 건설 목표를 재수립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목표를

84) 이지원(2020), p. 38.

일관되게 추진했다. 1950년 6월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노력은 명백한 실패로 돌아갔으나,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T-6 훈련기를 구입하고 병력을 충원하며 각종 양병조직을 선제적으로 창설한 결과 전쟁이 발발한 직후 F-51 전투기가 도입되었을 때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쟁 중에도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목표로 계승되어 1953년 2월 무렵에는 거의 현실로 구현되었다.⁸⁵⁾ 이승만 정부는 그 목표를 달성한 후 『대한민국공군3개년계획안』을 수립하여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과정은 명백한 시행착오의 기간이었지만, 동시에 실패를 통한 학습의 과정이었다.

(원고투고일 : 2021. 7. 21,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공군력, 항공력, 공군, 한국 공군, 군사원조, 한미동맹,
6·25전쟁, 이승만 정부

85) 1951년 8월에 이승만 정부는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했고, 1952년 8월에는 제6146 공군교문단이 창설되었으며, 1953년 2월에는 제1훈련비행단을 창설하여 「한국 공군을 위한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 제안」에서 제시했던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참고문헌〉

1. 사 료

가. 미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_____, Box 19, KMAC,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_____, Box 105,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RG 330, Box 68, 330.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1944-67), 330.6.2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나. 미 국무부 외교사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FRUS)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Volum VI,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ume VII.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다. 미 합동참모본부(U.S. Joint Chiefs of Staff, JCS)

U.S. Joint Chiefs of Staff, 『합동참모본부기록』, 서울: 아람출판사, 1996.

J.C.S. 1483/60 (1949. 2. 1.).

J.C.S. 1483/62 (1949. 3. 12.).

라. 미 공군 역사연구소(U.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AFHRA)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Korea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8. 29.).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9. 12.).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ROKAF - Origin and Political Background”(1951. 8. 7.).

U.S. 5th Air Force, “The History of the Fifth Air Force, 25 June - 31 October 1950”.

마. 국사편찬위원회 및 국회

국사편찬위원회,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 1944-194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서울: 천세, 2006.

『資料大韓民國史 第14卷: 1949年9-10月』,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2000.

『제헌국회 제1회 제100차 국회본회의』, 1948년 11월 10일.

『제32회 국무회의의록』, 1949년 3월 18일.

『제84회 국무회의의록』, 1949년 9월 21일.

『제85회 국무회의의록』, 1949년 9월 23일.

「國軍組織에 關한 法令」, 1948년 11월 30일 제정.

「國防部職制」, 1948년 12월 7일 제정.

「空軍本部職制」, 1949년 10월 1일 제정.

바. 대한민국 공군역사기록관리단

『空軍前史資料(檀紀4281-4282)』, 1956.

『空軍日誌(1948-1953)』.

『공군장교자력기록부』.

『대한민국공군3개년계획안(大韓民國空軍三改年計劃案)』, 1952.

『T-6 수료조종사명부』, 1957.

『F-51 수료조종사명부』, 1957.

2. 논문 및 저서

Brazinsky, Gregg, 나종남 역,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서울: 책과함께, 2011,
<http://uci.or.kr//G901:A-0006362023>.

Byrd, Martha, Chennault: Giving Wings to the Tiger, Tuscaloosa: University Alabama Press, 1987.

Futrell, Robert F.,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25 June-1 November 1950,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52.

Futrell, Robert Frank,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Revised Edition,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1983.

Gaddis, John Lewis, 홍지수, 강규형 역, 『미국의 봉쇄전략』, 서울: 비봉, 2019.

Gilbert, Martin, Churchill: A Life, London: Heinemann, 1992.

-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1950-1951 : The Korean War, Part One, Washington, DC: Office of Joint History, 1998.
- Matray, James I., 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 미국의 대한 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1989,
<http://uci.or.kr//G701:B-00047855508>
- Posen, Barry R.,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 Sawyer, Robert K., 이상호, 윤시원, 이동원, 박영실 역, 『주한미군 사고문단사』, 서울: 선인, 2018.
-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 Silove, Nina, “Beyond the Buzzword”: The Three Meanings of “Grand Strategy”, “Security Studies”, no.27, 2018, DOI: <https://doi.org/10.1080/09636412.2017.1360073>.
- 강창부, 김기동, 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64, 2016,
<http://doi.org/10.15186/ikc.2016.12.64.219>.
- 공군본부, 『空軍發展略史 第1券』, 공군본부, 1954.
-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1輯(1949.10.1.-1953. 7.27.)』, 서울: 공군교재창, 1962.
-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2輯(1953.7.27.-1957. 12.31.)』, 서울: 공군교재창, 1964.
-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 二十年史(1949-1968)』, 서울: 공군교재창, 1974.

-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공군사관학교 70년사』, 계룡: 국군인쇄창, 2019.
-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1: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4.
- 김경록, “6·25 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第73號, 2009, <http://doi.org/10.29212/mh.2009..73.65>.
- , “해방 이후 남북한의 공군력 인식과 한국전쟁 준비과정”, 『軍史』第67號, 2008, <http://doi.org/10.29212/mh.2008..67.167>.
- 김선호, “한국전쟁 직전 북한공군의 실제전력 연구: 비행사단의 병력과 무기 현황을 중심으로”, 『軍史』第89號, 2013, <http://doi.org/10.29212/mh.2013..89.161>.
- 김승기, 최정준, 『한국군 전력증강사1(1945-1960)』,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 김정렬, 『金貞烈 回顧錄』, 서울: 乙酉文化社, 1993, <http://doi.org/G901:A-0008368112>.
-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2009.
- 대한민국항공회, 『대한민국항공사(1913-1969)』, 서울: 대한민국항공회, 2015, <http://uci.or.kr//G901:A-0006587689>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8963467>.
- ,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주한미군사고문단』,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http://uci.or.kr//2016G901:A-0006609629>.
- 백기인, 『建軍史』,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6864087>.
- 안정애, “미국의 대한군사원조정책(1948~1950): 결정과 집행 및 한국정부의 추가군원 요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7, 1998,

-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국방정책 연구: 한국군의 증강과 대미 군사의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09.
- _____,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 第77號, 2010, <http://doi.org/10.29212/mh.2010..77.217>.
- 이강화,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6.25출격 조종사이자 기록사진가 이강화 장군의 6.25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http://uci.or.kr//2014G901:A-0006500254>
- 이신재,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1945~1950)”, 『현대 북한연구』19, 2016, <http://doi.org/10.17321/rnks.2016.19.1.006>.
- 이지원, “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5, 2020, <http://doi.org/10.18013/jnar.2020.35.2.002>
- 장성규, 『6·25전쟁기 미국의 항공전략: 현대항공전략의 기원』, 서울: 좋은 땅, 2013, <http://uci.or.kr//G901:A-0006474899>.
-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파주: 돌베개, 2006, <http://uci.or.kr//G901:A-0006119246>.

(Abstract)

The Rhee(the first president of ROK) Government's Air Power Buildup Effort from 1948 to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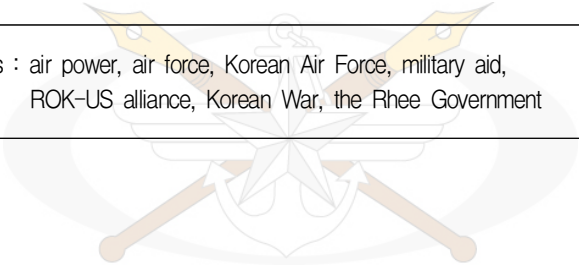
Lee, Ji-won

In 1949, DPRK had four times as many military aircrafts as ROK. Since then, the gap between them had continued to widen. Shortly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DPRK possessed ten times more aircrafts than ROK. Inferiority of ROK air power weakened the power of deterrence against the DPRK's attack, and became a serious obstacle to defending against the attack of mechanized units of DPRK at the beginning of the war.

In this paper, the failure of the air power buildup policy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Immediately after taking office, the Rhee government attempted to build an offensive air force, including B-25 bombers, but this policy conflicted with USA policy of containment against USSR. USA sets a criterion that air aid to ROK is limited to 'air liaison detachment' with the size of about 12 aircraft. In the spring of 1949, the Rhee government recognizing the threat of the air power inferiority, proposed a more realistic plan to build a defensive air power to USA and requested aid. However, USA held on the criterion of 'air detachment'. It was not until 1950 that USA began to sympathize with the problem of inferior air power. Korea pursued a policy of reinforcing the military units

with new recruit before receiving aircraft. However, the response of USA was too slow, and DPRK went to war before air aid for ROK was implemented.

Although Korea's air power buildup efforts failed, the personnel recruited during this period became the basis for rapid adaptation when receiving aircraft aid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However, the blueprint for air power buildup established at the time became the standard for ROK's air force buildup policy during the war period.



Keywords : air power, air force, Korean Air Force, military aid,
ROK-US alliance, Korean War, the Rhee Governmen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39-69
<https://doi.org/10.29212/mh.2021..121.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김명섭*

1. 머리말
2. 오광선의 성장과정과 만주 망명
3. 신흥무관학교 입교와 교관활동
4.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중 가장 강력하고 치열하게 전개된 방략은 바로 중국 만주에서의 항일 독립전쟁이었다.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투쟁을 이어받은 무장투쟁의 전통은 옛 고조선 영토인 중국 만주를 중심 무대로 삼아 한국독립군을 낳았고, 그 산실은 1911년 6월 서간도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에서 개교한 ‘신흥학교’(후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라

*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할 수 있다. 약 10여 년 동안 3,500여 명에 이른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청산리·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한국독립군을 비롯해 의열단과 광복군, 조선의용대와 동북항일연군 등의 핵심역량으로 성장하여 독립전쟁사와 한국현대사를 이끌었다.

신흥무관학교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지식인과 독립지사들이 적지 않지만, 교장을 역임한 여준 선생을 비롯해 용인 출신의 민족지사가 다수 참여했고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중 여준 선생의 제자이면서 신흥무관학교의 학생과 교관에 이어 한국독립군 부대의 중대장과 대대장 등 실전부대의 지휘관으로 큰 역할을 한 오광선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오광선(吳光鮮, 1896~1967)은 용인과 안성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펼친 부친 오인수 의병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1917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을 역임하고 이후 독립군 중추 간부로서 각종 항일전쟁에 참전하였다. 나아가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의 명에 따라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교관을 맡았고 일제 치하의 북경에서 첩보활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광복군 국내지대장을 맡아 임정의 환국을 도왔으며, 국군 창설에 참여해 복무하다가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전형적인 항일·건국 군인이다. 나아가 부친인 오인수 의병장에 이어 자녀 둘과 사위까지 독립운동 일선에 매진하였으니, 3대에 걸친 독립운동 참여 가문으로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독립운동가, 건국공신 군인으로서의 오광선에 대한 연구는 언론 잡지나 개인구술 등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본격적인 학술영역에서 조명되지 못했다. 다행히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재조명 차원에서 관련 유적 및 자료도 발굴되어 학술연구도 진척을 이루었다.¹⁾ 이 글에서는 오광선의 일생과 항일 독립군 활동

1)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종합 연구로는 박환, 『재만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

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독립군의 활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²⁾ 특히 최근 발굴된 오광선의 자필 이력서(1963년 작성)와 사위인 신송식(申松植)의 자필 이력서(1965년 작성)를 비롯한 부인 정현숙(鄭賢淑, 본명 鄭正山) 여사의 생전 구술기록, 따님인 오희옥 여사의 면담 인터뷰, 지청천(池靑天)·이규채(李圭彩)·이우석(李雨錫) 등 독립군 동지들의 수기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군에서 펼친 오광선의 무장투쟁 활동은 물론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겪은 고난과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오광선의 성장과정과 만주 망명

오광선(초명은 性默, 후일 光鮮으로 개명³⁾)은 1896년 5월 13일 용인 원삼면 죽능리 어현(일명 느리재)에서 아버지 오인수(吳寅秀, 1867~1935)와 어머니 이남천(李南天, 1872~1957)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로 호군공(護軍公) 오희보(吳希保)의 14대손이다. 형제는 4남매이다. 고개가 길게 늘어져 있어 ‘느리재’라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 김병기, 『100년만의 만남 신흥무관학교』, 국가보훈처, 2011 ; 박환, 『신흥무관학교』, 도서출판 선인, 2021 등을 참조.

2) 오광선 일가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용인향토문화연구』 5집, 2003) ;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吳姬玉여사 면담록」(『용인향토문화연구』 6집, 2006) ; 김병기, 「오희영·신송식의 광복군 활동」(『용인향토문화연구』 8집, 2007) ; 김명섭, 「오광선의 항일 독립운동연구」(『용인향토문화연구』 12집, 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오광선은 1917년 만주로 망명하면서 ‘조선의 광복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광선(光鮮)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다. 이후 1964년 3월 30일 서울민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개명하였다(〈오광선 호적등본〉, 서울시 동대문구청).

불리었던 어현마을은 해주오씨 집성촌으로서 충절의 상징인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인 오달제(吳達濟) 등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해온 가문이다.

부친 오인수는 18세부터 사냥을 시작해 용인·안성·여주 일대에서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고 한다. 인근 포수들의 친목모임인 화포계(火砲契)에서 매년 1등을 차지해 명포수로서 이름을 날렸다.⁴⁾ 사냥으로 전국을 떠도는 바람에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29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오인수는 장남 오광선을 같은 마을출신이며 일찍이 서울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꾀하고 있던 여준(呂準, 1862~1932)이 고향 죽릉리 능골에 세운 삼악(三岳)학교에 다니도록 했다. 삼악학교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치 않으나, 여준 선생이 평양의 오산학교에 교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본따 고향에도 같은 교육과정으로 1906년경 지은 학교로 여겨진다.⁵⁾ 오광선은 1907년 4월경 이 소학교를 졸업하였다.⁶⁾

1905년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강제강탈하자, 부친 오인수는 용인과 죽산 일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우선 용인지역에서 결기한 유지 정원욱(鄭元郁) 의병부대에 참여해 중군장을 맡았다. 이어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당하자, 그는 용인 용동(龍洞) 출신 유학자인 정

4) 오인수의 사격솜씨는 중국 망명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 옥고로 불편한 몸으로도 틈틈이 사냥을 했다고 한다. 당시 어린 손녀 오희옥은 “할아버지가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기억하고 있다(박숙현, 『마지막 증언』, 북소리, 2019, 41쪽).

5) 《대한매일신보》1908년 9월 19일자 기사에는 여준이 吳恒善 등과 협의하여 학교를 창설하였다고 전하면서, “吳恒善이 자기 집을 교사로 기부했다”고 한다. 용인 원삼면 문촌리 뒷산에 있는 吳建泳 목사의 묘비명에 의하면, 고인이 1906년 삼악학교 훈도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오광선이 작성한 이력서에는 1907년 4월 삼악소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오광선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이로 보아 삼악학교는 최소한 1906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6) 〈오광선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철화(鄭哲和)의 의병부대에 가담해 중군장으로 참여하였다. 약 1백여 명에 이른 이 부대는 남상목·김군필 부대와 합진하여 안성 매봉재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였다.⁷⁾

그러나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패퇴한 의병부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병력이 없어진 중군장 오인수는 빈 총을 메고 애견과 함께 산야를 헤매다 다리 상처를 이끌고 야음을 틈타 고향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당시 용인 양지면에서 친일활동을 벌인 일진회 회장 송병준의 아들 송중헌(宋鍾憲)이 조직한 토벌대와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당시의 상황을 지켜본 아들 오광선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토벌대는 아버님을 체포하기 전에 아버님의 반려나 다른없는 애견부터 죽였다. 당시 11살이던 나는 붙잡혀 가시는 아버님을 동구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와서 죽은 애견을 묻으면서 한없이 울었다.”⁸⁾

이처럼 토벌대에 끌려가는 부친을 지켜본 어린 광선은 죽은 애견을 땅에 묻으며 독립운동에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오인수는 약 7개월간의 모진 고문을 받으며 8년 징역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해야 했다. 오인수는 6년 동안의 모진 옥살이를 한 후, 병든 몸을 이끌고 1913년 12월 출감하였다.⁹⁾

오광선은 부친이 옥살이하는 와중에도 1911년 삼악학교의 고등과에 들어가 1913년 3월 졸업하였다.¹⁰⁾ 가세가 기울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게 되자, 백부는 그의 나이 17세에 1913년 12월 부친이 출

7) 이인영 편, 『내고장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용인문화원, 1989, 84쪽; 김명섭, 「한말 용인 항일의병의 활동과 그 특징」 『용인향토문화연구』 7집, 2006.

8)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31쪽.

9)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28~229쪽.

10) <오광선 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옥하자마자 서둘러 결혼시켰다. 신부는 14세로서 산하나 넘는 이웃 마을인 용인 이동면 화산리(華山里) 태생인 정정산(鄭正山, 1900~1992)이었다.¹¹⁾

이미 독립운동에 큰 뜻을 품은 오광선은 신혼생활 와중임에도, 1914년 여름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남대문로에 있는 상동(尙洞)청년 학원에 입학하였다. 우당 이회영이 숙감을 맡은 바 있는 이 학원은 북간도 용정(龍井)에서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한 뒤 평양 오산 학교에 재직했던 여준(呂準)도 학감을 지낸 민족사학이었다. 아울러 학원은 상동교회와 함께 신민회 간부들의 비밀회합 장소로 활용되었다. 학원에는 친족이면서 같은 용인 삼악학교 출신인 조카 오일선(吳一善)과 오의선(義善) 등 동기생들이 진학했고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민족적 사립학교를 없애고 식민지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규제법을 공포하였다. 이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던 상동청년학원은 1915년 문을 닫게 되었다.¹³⁾ 어렵게 고학하던 학교가 폐교되자, 오광선은 학원의 은사인 장지영(張志映) 선생의 소개로 잠시 한약국 급사로 일하였다. 하지만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싶었던 그는 장지영 선생에게 자신의 꿈을 토로하고 노자를 받았다. 함께 망명길에 오른 동지는 조카 오일선·의선

11) 정정산(1900~1992) 여사는 중국 망명 후 정현숙(賢淑)으로 개명하였다. 그녀는 용인 죽령리에서의 신혼살림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14살 신혼살림때)남의 땅에다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으니 언제나 쪼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님께서 포수일을 하시면서 간간히 살림을 보태주셨지요. 나는 그때부터 일복을 타고 났다고나 할까? 농한기에도 다른 집 일을 해면서 살림을 꾸려 갔었지요. 워낙 힘이 곳곳해서 여자지만 남자 이상의 일을 했거든요”(이성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87쪽).

12) 오광선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는 1913년 4월 경성청년학원(京城靑年學院)에 입학하여 1915년 3월 졸업한 것으로 적혀있다. 경성청년학원은 상동청년학원의 오기로 여겨진다.

13)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상동교회일백년사』, 1988, 139~147쪽.

형제, 그리고 김중훈(金重勳)·이동민(李東民) 등 5명이다. 이들은 1915년 가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 신의주에 내린 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망명하였다.¹⁴⁾

독립운동을 결심한 오광선 일행은 북경에 도착해 당시 중국 실권자들과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던 신규식(申圭植)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으로서 일찍이 항일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규식은 오광선 일행을 원세개(袁世凱) 총통에게 소개하여 중국의 군관학교에 입학하도록 주선하였다.¹⁵⁾ 오광선은 원세개 총통 앞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할 것이며 중국에 대해 신의를 지키겠다는 선서식을 하였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광선(光鮮)으로 바꾸어 서명하였는데, ‘조선의 광복을 되찾겠다’는 뜻이라 한다.¹⁶⁾

오광선 일행은 원세개 총통의 주선으로 북경 북부 하북성에 위치한 보정(保定)군관학교¹⁷⁾에 입학하게 되었다. 오광선 일행은 6개월을 기한으로 폭탄제조법은 물론, 군관이 되기 위한 특수훈련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가 중국 내전으로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¹⁸⁾ 여기저기 방황하던 차에 그가 마침내 찾아가기로 결심한 곳은 바로 남만주 일대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학교였다. 봉천(현 심양)에서 출발한 오광선은 유하현 삼원포 합니까까지 700리에 이르는 먼길을 떠나 6일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14) 이성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주간여성》1974년, 88쪽 ;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2002, 239~240쪽.

15) 한시준, 『한국광복군 연구』, 일조각, 1993, 21쪽.

16) 김두찬, 「오광선 장군」『신동아』1971년 2월호, 231쪽.

17) 보정군관학교는 1912년 북경 근교의 보정에서 元世凱 정부의 육군군관학교로 개교하였으나, 1923년 8월 폐교하였다. 약 6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장개석과 부이 등이 이 학교출신이다. 한인 중에는 김무정 장군이 1924년 포병과를 졸업했다(한상도,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86~87쪽 ; 王新哲劉志強任方明 편저, 『保定陸軍軍官學校史研究』,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5).

18)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2002, 240쪽.

3. 신흥무관학교 입교와 교관활동

오광선이 찾은 합니하의 신흥학교는 통화현에서 고뢰산·청하자의 첩첩산중을 한참을 돌아 현재 광화진(光華鎭)으로부터 동북쪽으로 2~3km 떨어진 합니하 강가에 자리하였다. 훈강(파저강波瀾江) 상류에 해당하는 합니하는 구릉진 산을 휘감으며 넓은 평야와 언덕을 만들었는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은 요새였다. 교사와 연병장은 광화진 쪽에서는 물론, 합니하가 흐르는 곳이나 있는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겨져 있어 적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¹⁹⁾

부푼 꿈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신흥학교를 찾아온 오광선은 그러나 학생들에게 일제 밀정으로 오인받아 감금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시 신흥학교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었던 탓에 낮은 사람이 나타나 거동이 수상쩍으면 일제 밀정으로 오인받아 학생들이 자체

19) 1991년 10월 신흥무관학교 터를 답사한 조선족 연구자 강룡권(1999년 작고)이 묘사한 주위 풍경은 다음과 같다. “주위가 고산준령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남북 10리나 되는 평원이 있고 그 남쪽끝이 논밭보다 약 30m 정도 높게 덩실하게 언덕을 이루었는데, 언덕 위엔 20정보가량되는 구릉을 이루어 마치 합니하 ‘평원’을 연상케 했다. 군사적으로도 영락없는 요새였다....천연무대와 서쪽십산이 맞붙어 있기에 실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2001)을 저술한 서중석 교수 역시 합니하가 “마치 (성벽 아래의)해자처럼 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 그는 “광화진 쪽의 들판을 제외하면 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주룡로인 광화진 쪽의 들판을 제외하면 산길에 익숙한 한인들에게 유리한, 천험의 요새”라고 평가하였다. 2007년 8월 10일 필자와 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일행이 하룻밤을 묵으며 산 언덕을 현장답사한 바에 의하면, 무관학교 교사와 연병장 터는 ‘까우리판즈(高麗館子)’라는 한족 마을의 강 맞은 편에 위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은 산 속의 큰 구릉 사이로 드넓은 분지가 펼쳐져 있어, 김산(본명 장지락)이 표현한 대로 “열여덟 개의 교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산허리를 따라서 줄지어 있었다.”(김산·님 웨일즈, 『아리랑』. 동녘, 1984, 88쪽)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사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²⁰⁾ 다행히 삼악학교 은사였던 여준이 교장을 맡고 있어 면담을 통해 오해에서 풀려나 입교를 허락 받을 수 있었다. 오광선은 이곳에서 1916년 4월에 입교하여 1918년 2월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열심히 학업과 훈련에 임한 그는 수석이라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²¹⁾

1919년 3월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 이후 무장투쟁에 의한 결전의 필요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외의 수많은 청년들이 입학을 지원하였다. 이 무렵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현역 장교였던 지청천(池青天, 1888~1957)이 동지 김광서(金光瑞)와 함께 만주로 망명해 신흥학교에 합류하였다. 이에 신흥학교는 장래 항일 무장투쟁을 수행할 군대의 양성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군사훈련기관, 무관양성기관으로 개편하며 5월 3일(음력) 정식으로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여 개교식을 갖게 되었다. 이어 통화현 합니하의 본교에 이어 분교로 통화현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유하현 고산자(孤山子) 하동대두자(河東大肚子) 등에 군사기지를 신설하였다. 즉 합니하 본교와 칠도구(七道溝) 쾌대모자(快大帽子) 분교에는 3개월의 일반훈련과 6개월 과정의 후보훈련을 실시하였고, 유하현 고산자에는 2년제 고등군사반을 두어 고급 간부를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항일전쟁의 시기가 점차 앞당겨짐에 따라 고등군사반과 초등군사반 모두 3개월간의 단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일제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1920년 1월 당시 통화현 합니하 본교의 학생수가 97명이며 고산자의 학생 수가 약 120명, 유하현 쾌대모자의 학생 수가 100명 정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교

20) 대표적인 사례로 만해 한용운이 일제강점 직후 신흥무관학교를 찾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생도들이 총을 쏘 죽을 뻔한 일이나, 1919년 8월 밀정혐의로 구타하여 사망시킨 윤치국 사건을 꼽을 수 있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188~190쪽).

21) <오광선 이력서>(1963년 자필작성)에는 ‘1915년 4월~1918년 3월 남만주신흥무관학교 졸업’으로 적혀있는데, 1916년의 착오로 여겨진다.

관이었던 원병상은 한 학년 학생 수가 600여 명 규모였다고 증언하였다.²²⁾

무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오광선에게 학교측은 합니하에서 북쪽으로 200여리 떨어진 해룡현(海龍縣) 성수하자(成水河子)에 위치한 동흥(東興)학교 군사교관과 체육교사로 재직하게 하였다. 이후 지청천이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신흥무관학교 교육훈련대장에 취임하자, 오광선은 다시 합니하로 와 교관으로 일했다. 오광선은 합니하의 초등 군사반에서 학도단장에 이어 교장 대리, 훈련감교장을 맡은 이장녕(李章寧)과 함께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당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은 교장 이천민, 부감 이갑수, 교사 윤기섭에 이어 학도단장인 이장녕, 학도단 부교사 김창환·성준용, 경리 이호영 등이다.²³⁾ 여준 선생은 그에게 부친과 부인 등 가족을 합니하 무관학교로 불러들여 같이 살게 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본국 고향으로 몰래 소식을 전하였는데, 용인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정정산 여사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1919년-편자 주) 봄 그이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압록강 대안(對岸)에서 2백리 떨어진 합니하의 신흥무관학교에 와 있으니 그리로 오라는 것이었지요. 간단한 살림 도구를 챙겨 용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명죽리에서 내렸어요. 거기서부터 육로를 한달동안이나 걸어 만주로 들어갔지요.”²⁴⁾

육고로 몸이 불편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오광선의 동

22) 원병상,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독립운동사 사료집』10, 1975, 12~15쪽

23) 김주용,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활동연구-충남 목천 출신 이장녕을 중심으로」 『유관순연구』 24호, 2020, 10쪽.

24)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 《주간여성》 1974년, 89쪽.

생과 부인 정정산과 여동생 2명 등 6명이 지게에 짐을 지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한다.²⁵⁾ 약 한 달동안의 피나는 여정 끝에 오인수 망명 일행은 합니하 신흥학교에서 오광선과 상봉할 수 있었다. 짧지만 단란한 그녀의 가정생활이었지만, 피나는 독립운동 뒷바라지의 시작이기도 했다.²⁶⁾

오광선 일가는 이곳에서 화전을 일구고 옥수수과 조를 심어 어려운 살림을 이어갔다. 쌀을 구할 수 있을 때는 1년에 한번, 설날뿐이었다. 교관인 오광선이 밤이건 새벽이건 갑자기 부하들을 데려와 밥을 먹였기에 집안의 식량은 매일 비었다고 한다.

“밥만 먹으면 빨래하고, 산에 들어가 풀을 베거나 나무를 태우는게 일이었어요. 저녁에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왔습니다. 이웃의 중국사람들이 퍽 친절해서 빵이나 밀가루 등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²⁷⁾

1919년 5월 고산자진 대두자(大肚子) 마을에 새로 분교가 설치되었다. 오광선도 고산자진 신흥무관학교에 교관으로 오에 따라 독립군 양성에 더 활기가 띠었다.²⁸⁾ 이후 그는 항시 지청천 장군의 고급 참모로서 평생 동지이자 상관으로 모시게 되었다.

25) 박환, <여자 독립군 오희옥여사 면담기> (『경기지역3·1독립운동사』, 선인, 2007), 502~504쪽.

26) 신흥무관학교 터 강 건너편에는 현재 ‘까우리팰스(高麗館子)’라는 한족 마을이 있는데, 아마 오광선 일가도 이 마을에서 거주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27) 이성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주간여성》1974년, 89쪽.

28)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2, 182쪽. 2007년 8월 11일 필자와 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일행이 답사하여 현장을 확인한 고산자진 대두자 신흥무관학교의 위치는 합니하로부터 약 40키로 떨어진 ‘孤山子鎮 全勝鄉 勝喜村’ 조선족촌 뒷산이다. 마을이름은 청산리전투의 승리를 기뻐한다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한다(전승향 조선족소학교 전 교장 閔泳海(1946년생) 진술).

4.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

가. 서로군정서 활동과 자유시 참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으로 무장독립전쟁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서간도와 북간도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은 본격적인 무장단체로 개편하였다. 우선 서간도에서 활동 중인 한족회(韓族會)와 신흥무관학교 등이 상해 임정과 협의하여 5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를 설립하고, 독판에 이상룡·부독판 여준, 사령관에 지청천, 참모부장에 김동삼을 각각 임명했다. 12월에는 북간도에서 대중교계인 중광단(重光團)을 이끈 서일(徐一) 총재가 김좌진을 영입하여 대한군정서(大韓軍政署, 일명 북로군정서)를 조직하였다. 홍범도 부대는 1920년 6월 7일 벌어진 봉오동 전투에서, 김좌진 부대는 10월 21~26일의 청산리에서 각각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오광선은 1920년 10월 서로군정서(부독판 여준)의 제1대대 제1중대장과 3중대장을 거쳐 경비대장과 별동대장을 맡았다. 그해 12월 러시아 국경인 밀산(密山)에서 각 독립군 부대가 통합되어 대한독립군단(총재 徐一, 부총재 洪範圖·金佐鎭·曹成煥, 참모총장 李章寧, 여단장 池青天, 부대원 약 3천5백여 명)으로 재발족되었다. 홍범도 총사령관에 이어 지청천이 부사령관을 맡은 대한독립군단에서 군사부장은 용인 기흥 출신의 김혁이 맡았고, 오광선은 이 군단 3대대의 제1 중대장에 임명되었다.²⁹⁾ 대한독립군단은 1921년 1월 러시아령인 이만을 거쳐 5월 중순경 자유시(현재의 스보보드니)로 들어가게 되었다.

29)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민족문화사, 1985, 98~99쪽.

1921년 6월 대한독립군이 겪은 ‘흑하사변’(이른바 자유시참변)은 한국 독립운동사상 일대 참극이었다. 제정러시아의 짜르정권을 무너뜨린 공산계 러시아군(적로군)은 왕당파인 백계 러시아군(백로군) 사이의 내전에서 한인 독립군 부대를 이용할 목적으로 1918년부터 자유시로 불러들이고자 했다. 이에 홍범도·지청천·김혁 등은 자유시로 이동해 신무기로 무장을 갖추고 만주와 러시아 지역 무장부대의 단결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다보니 러시아로 망명한 한인 2세 출신 파르티잔으로 구성된 빨치산 출신부대와 만주 독립군 간에 세력다툼이 일어났다. 급기야 한인 독립군 부대의 무장을 두려워한 소비에트 정부의 배신에 의해 빨치산 출신 부대로 하여금 대한독립군을 공격하게 하는 ‘동족간의 참변’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독립군의 피해는 사망 272명, 익사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다.³⁰⁾

흑하사변으로 인해 독립군 지휘관 지청천과 채영·오광선 등 간부급 84명은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극동공화국 제5군단 관할 하의 이르쿠츠크 군 형무소로 이송되어 특별수용 되었다. 대부분의 나머지 병사들은 탄광과 벌목장에 노역병으로 보내졌다. 형무소의 수형생활은 춥고 배고팠을 뿐 아니라, 가혹한 민족차별과 좌익으로의 전향을 강요당했다. 지청천과 오광선에게는 일본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회유를 하려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급수·급식을 단절하였다. 이들은 “영하 40도의 감방에서 통나무 의자의 나무껍질을 조용히 씹으면서” 계속 전향을 거부하였다.³¹⁾ 오광선도 당시를 회고하기를, “물도 없이 검은 빵 두 쪽으로 연명해야 했던 옥살이 아래 옆에 놓인 생나무 책상을 씹어 먹을 만큼 허기가 졌던 사형수였다.”고 전하였다.³²⁾

30) 오광선, 「반세기의 증언」《조선일보》1964년 3월 27일 ;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3권』, 국학자료원, 1980, 284쪽.

31) 김두찬, 「오광선 장군」『신동아』1971년 2월호, 238~241쪽.

32) 오광선, 「반세기의 증언」, 『조선일보』1964년 3월 27일자.

이러한 러시아군의 만행이 계속되자, 지청천 장군은 몰래 오광선을 탈출시킴으로써 수형생활의 참상을 동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오광선은 야음을 틈타 운명의 탈출을 결행하였고, 다행히 감시망을 벗어나 만주 국경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흥안령 북쪽을 돌아 시베리아 흑룡강변 우루강의 배달촌(倍達村)³³⁾을 거쳐 밀산에 이르러 김좌진 장군을 만날 수 있었다. 흑한과 배고픔을 참아내며 약 한 달만에 “얼음에 뒤덮인 바이칼호를 맨발로 걸어” 2만여 리나 되는 길을 헤치고 걷는 극한의 탈출이었던 것이다.³⁴⁾

결국 김좌진 장군은 상해 임정의 김구 선생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임정의 국제적 여론환기 노력을 전개했다. 당시 상해에서 발간되고 있던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에 실린 ‘동포에게 읊고하노라’라는 기사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더욱 급박한 일은 이르쿠츠크에 있는 채영·지청천 등 장교 70여 명이 러시아 감옥에서 하루 검은 떡 한 근씩 먹으니 며칠 안에 말라죽을 것이외다....당지(노령-필자 주) 천여 명 군대가 저들의 횡포 흉악을 미워함은 물론 일치하고 다만 몇십 명의 무리가 저놈들과 부야하여 러시아(러시아-필자 주)의 세력을 빌어서 제 동족을 이같이 잔학함은 차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의 희망사항을 요약해 강조하였다.

중아(中俄) 양지에 있는 어느 통일기관이나 각 단체에서 연합하여 대표를 뽑아 극동 공화국 정부에 보내어 흑하참변과 우리

33) 박민영, 「북만주 오운현의 독립운동 근거지 배달촌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2020.

34) <오광선 이력사>(1963년 자필작성) ;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231쪽.

군대 일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케하며, 우리 군대를 해방케 할 일. 먼저 급히 할 일은 북경에 주재한 러시아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게하며 우리 군대를 해방하기로 모스크바 정부에 전보 하게 하며, 또는 상해에 있는 극동정부 연락기관에도 이 사실을 소개할 일.³⁵⁾

이러한 목숨을 건 오광선의 탈출과 폭로,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곧 러시아 레닌정부에 강력한 항의가 들어갔다. 이에 레닌이 외국 혁명가를 함부로 처형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관례에 따라 억류된 독립군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지시하게 되었다. 이에 1922년 8월 지청천 등 독립군 간부들이 풀려날 수 있었다.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로 강제 이송된 독립군 간부 84명이 1년만에 70명으로 줄어든 것은 이처럼 모진 학대와 시베리아의 혹한, 영양부족 등으로 희생된 결과라 하겠다.³⁶⁾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의 주력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자, 여준은 서간도 일대의 독립군을 규합하기 위해 새 무관학교를 만들려 했다. 여준은 일제와 러시아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임시정부의 처사에 반발하여 그의 개조를 요구하는 한편,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발송한 터였다. 나아가 폐교되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아예 길림시 액목현(額穆縣) 황야강자향(潢池崗子鄉)으로 옮기기로 하고, 1922년 초 액목현 대황지(大荒地, 현 蛟河市 남강자)에 검성학장(儉成學莊, 혹은 검성학당, 후에 검성중학으로 개칭)을 세우고 교장에 취임했다. 여준 선생이 숭선하고 교포들이 힘을 모아 세운 이 학교에 믿음직한 제자인 오광선을 불러 체육선생으로 삼았다. 검성중학을 다닌 졸업생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35) <同胞에게 泣告하노라>《독립신문》1922년 7월 22일자.

36) 池憲模, 『靑天將軍의 革命鬪爭史; 池大亨』, 삼성출판사, 1949, 100~104쪽.

“학당 창건 초기에 여준이 교장 겸 영어과를 가르치고 원 신 흥무관학교 군사교관이었던 오광선이 체육교원으로 있었고, 오 일선과 박일준 등이 기타 학과목 교수를 맡았다. 학생 수는 70~80명이었다. 학당에는 기숙사와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집단생활을 하였다. 학과목은 교수의 수요에 따라 자체로 설치하였는 바 조선어문과 영어, 산술통편, 동국지리, 대동력사(이상룡 편) 및 박물 등이 있었다. 교재로 처음에 구한국의 것을 쓰다가 후에는 자체로 편집하여 썼다. 교수 가운데 학교운영 취지를 관통시키어 반일사상 교양과 군사교육을 자못 중시하였다..... 처음 대항지에 학교를 지을 때 3채에 10여 칸이 달린 집을 지었다. 그후 하북산 기슭의 사황지(지금의 신안툰)로 옮겨가 넓은 집 15칸을 사고 또 일부 간의건물을 지어 교실(3개)과 학생기숙사, 교무실로 썼다. 비록 학교조건이 아주 보잘것 없었지만, 교원과 학생들의 교수 및 학습열성은 아주 드높았다.”³⁷⁾

지청천 장군의 딸인 지복영(池復榮, 1920~2007)의 오빠도 검성중학을 다녔다. 그녀의 회고에 의하면, 검성중학교는 둔전제 방식으로 운영했기에 교사와 학생 구분 없이 모두 들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오전에 학과 공부에 오후에 농사일을 해야 했기에 새벽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 군사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목총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진짜 총 못지않게 이용하면서 군사지식을 터득하는 동시에 체력을 단련했다.”고 한다.³⁸⁾ 여준이 세운 액목현의 검성학교에 대해 이곳에 거주했던 이상룡의 며느리인 허은(許銀, 1907~1997)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남만주의 난리(경신참변-필자 주) 후에 신흥무관학교는 길림

37) 김동림, <검성학당>『길림조선후』,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5), 479~480쪽.

38)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116쪽.

성 액목현 교하에다 옮기고 ‘금성중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교장에 여시당(여준) 선생님, 평교사에 오광선 선생님이 맡았다. 오광선 씨는 여준 선생의 처가쪽 조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동안 남만청년동맹(사회주의단체-필자 주)의 청년들이 금성중학교를 점령하려 했으나 훌훌히 그들 뜻대로 물려줄 리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세우고, 어떻게 꾸려 온 학교인데....³⁹⁾

금성중학교는 1924년 가을 무렵 제1회 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여준과 오광선은 이곳을 서로군정서의 새로운 기지로 삼기 위해 둔전제를 실시하여 장기 전략을 세웠다. 오광선은 액목현으로 부친과 부인 등 가족을 옮기고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하였다.⁴⁰⁾ 그러던 중 마적단의 습격과 추위,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오광선은 이후 용인출신의 무관이자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출된 김혁(金赫, 1875~1939)이 주관하여 만든 대한독립군단에서 여단부관을 맡았다. 이곳에서 오광선은 제1대대장(1921.2~1923.7), 그리고 별동대장(1923.8~1925.9)과 경비대장(1925.10~1927.4)을 맡아 일선에서 활동하였다.⁴¹⁾ 같은 동향 출신인 김혁 장군과도 이 무렵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취송(聚松)이라는 그의 호도 김혁 장군이 지어 준 것이라 한다.⁴²⁾

그런 속에서도 정 여사는 첫딸인 오희영(1925년 4월 23일생)에 이

39) 허은 구술·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음사, 1995, 94쪽.

40) 액목현 오광선의 집에 대한 기록은 청산리대첩에 함께 참전했던 동지 이우석(李雨錫, 1896~1994)의 수기에도 나와 있다. “액목현(額穆縣)은 吳光鮮이 있던 데이다.....자꾸 자살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점점 고독감을 느꼈다. 하루는 吳光鮮의 집 뒤에 큰 늪(沼)이 있다. 세수를 하러갔다. 그날은 세수를 하려고 물을 들 여다보니 하늘이 비친다. 풍덩 들어갔다. 그렇게 무서울 수 없다. 요행이 나왔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신흥무관학교』, 역사공간, 2013, 58쪽).

41) <오광선 이력서>(1963년 자필작성)

42) <不逞團體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州の部(41)>, 1925년 5월 21일 ;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주간여성》1974년, 89쪽.

어 2년 후에 둘째딸 오희옥(1927년 4월 3일생)을 낳았다.⁴³⁾ 둘째딸 오희옥은 검성중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어머니는 만주 가서 산의 나무를 다 자르고 밀어 논밭을 만들었대요. 농사짓고 거기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여장군 같아요. 일꾼 일곱명 두고 농사짓는데, 거기서 하루에 12가마씩 밥을 지어서 독립군들에게 먹였대요. 무관 학교 교관이고 체육교사였던 아버지가 밤늦게 여러 학생들을 데려오면 밥 다 해먹이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마당이 무척 넓고 그 안에 학교가 또 하나 있고, 대문 쪽에 총 쏘는 건물을 만들었어. 건물 밖으로 지나가면서 일본 놈하구 싸우려고, 대문이 있구 무척 넓어요. 학교 마당 같아요. 옆에는 학교라해서 가서 애들 공부하구....”⁴⁴⁾

이렇게 헌신적인 독립군 뒷바라지를 한 정정산 여사가 얻은 별명은 ‘만주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검성중학교는 점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좌경화됨에 따라 1927년 청년강습소로 개칭되고야 말았다.⁴⁵⁾ 그러자 교장인 여준과 교관 오광선 등은 더 학교에 머물지 않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여준과 지청천·홍진 등과 함께 길림성 아성현(阿成縣)의 대석하(大石河)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산리대첩의 동지 이우석(李雨錫)의 수기에도 나와 있다.

43) 호적상 오희영은 1924년생, 동생 희옥은 1926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군을 피해 독립투쟁을 벌여야 했던 부친 오광선의 착오로 1년씩 늦게 기록되었다고 한다. 오희옥의 인터뷰는 박숙현, 『마지막 증언』(북스토리, 2019, 41쪽) 참조.

44)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항토문화연구』 5집, 2003, 178쪽.

45) 김동립, <검성학당> 『길림조선후』, 중국: 연변인민출판사, 1995), 480쪽 ; 원시희, 『중국조선후발차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726~728쪽.

“32세에 장가를 들고 阿城縣 大石河에 農庄을 租得하였다. 吳光鮮과 申肅 先生과 沈萬湖先生이 첫 해 농사를 하였다. 呂時堂(여준)先生 · 李青天先生 · 洪震先生도 가까운 곳에 移舍하여 오셨다.... 大石河에는 吳光鮮에 家族 · 沈萬湖 家族도 있고 化均 이도 있다.”⁴⁶⁾

나. 한국독립군에서의 한 · 중 연합투쟁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 무렵 중국 만주의 정세는 일본군의 침략 노골화와 공산주의자들의 발흥으로 매우 불안하게 변화하였다. 전쟁 발발의 위기와 내부 좌익세력의 도전 속에서 재만 한인 민족주의 세력은 각 진영의 대동단결과 무장투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북만주의 신민부 관할지역에서는 김종진·이을규 등 아나키스트들의 지원으로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해 자유연합적 정치이념을 모색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의 김좌진·김종진 암살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지청천과 홍진 등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내걸고 1930년 7월 위하현가(葦河縣街)에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다. ‘민본정치의 실현, 노본(勞本)경제의 조직, 인본문화의 건설’을 주요 당강으로 삼은 한국독립당은 군사·총무·경리·조직·감찰·선전 등 6개 부서로 이루어진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31년경 당원만 수만여 명에 달하고 군구도 36개 지구로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한 한국독립당은 홍진이 중앙위원장을 맡았고 지청천이 당의 군사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오광선 역시 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군사부 위원에 배치되었다.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청산리대첩 이우석수기 · 신흥무관학교』, 역사공간, 2013, 158~165쪽. 오인수의 사망지가 ‘滿洲國 吉林省 大溝府 四方台屯 15號’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가족들이 길림성 내로 이전해 산 것으로 보인다(<오성목 제적등본> 참조).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이 본격 만주를 침략하는 ‘9·18 사변’이 일어났다. 이에 한국독립당은 10월 2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재향군인을 소집하여 군대를 편성하는 한편, 연변에서 봉기한 2천여 중동선호로군(中東線護路軍) 겸 길림자위군(吉林自衛軍)과 교섭하여 공동 항일작전과 무기원조를 협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11월 2일 한국독립군 총사령부가 구성되었는데 총사령 지청천, 참모장 이장녕(후임 신숙), 참모 조경한·김상덕이 맡았다. 오광선은 영군(營軍)의 일원으로서 의용군 중대장을 맡게 되었다.⁴⁷⁾

1932년 2월 초 한국독립군 지도부는 길림성 아성현(阿成縣) 대석하(大石河)에서 열린 임시대회에서 중국 길림자위군과 합류하여 항일 공동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독립군 부대는 유격독립여단으로 명명하고 한·중 연합의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 무렵 오광선은 한국독립군의 제3군을 영솔하는 대대장을 맡아 직접 전투에 참전했다. 한국독립군의 주요 전투지역을 살펴보면, ▶일면파(一面坡) 전투(1932. 2~3) ▶연수현 전투(1932. 3~4) ▶아성전투(1932. 5) ▶쌍성전투(1932. 8 ; 11)⁴⁸⁾ ▶경박호전투(1933. 1) ▶동경성전투(1933. 6) ▶대전자령 전투(1933. 6) ▶동녕현 전투(1933. 9) 등이다. 이 중 경박호전투와 함께 대전자령(大甸子嶺)에서의 승리는 독립군 사상 3대 승첩의 하나로 기록될 만큼 매우 값진 승리였다.⁴⁹⁾

그러나 한·중 연합군은 중국군 내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으로 한

47)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회, 1979, 94~97쪽 ; 황민호,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8, 119~121쪽.

48) 1932년 무렵 오광선은 한국독립군의 대대장을 맡아 아성(阿城)과 쌍성(雙城)전투의 일선에서 참전했음은 참모였던 이규채의 자술 연보에도 잘 나와있다(이규채 지음·박경목 옮김, 『이규채기억록』, 일빛, 2019, 48~57쪽).

49) <00군총사령지청천 풍옥상동맹군에 가담>《동아일보》1933년 7월 31일 ; 《신한민보》1933년 9월 31일. 한중 연합군의 무장투쟁에 대하여는 이현주,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107~145 참조.

국군 지도부가 체포되고 무장해제당하는 등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해 10월 구금된 한국독립군이 풀려나긴 했지만, 다수의 장병들이 흩어지고 중국군에 대한 배신감이 깊어 더이상 공동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 또한 대전자령에서 큰 피해를 본 일본군이 10월 대대적인 토벌에 나설 계획이어서 한·중 연합군의 활동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갔다.

이 무렵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의 밀사가 도착했다. 윤봉길 의거 이후 김구 주석과 장개석 국민당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어 곧 낙양에 군관학교를 세울 계획이니 중국 본토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한국독립군 지도부는 이를 승낙하고 지청천을 책임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지청천·오광선 등 39명은 1933년 11월 중국노무자로 변장하여 2~3명씩 조를 이루어 산해관을 넘어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⁵⁰⁾

1934년 2월 28일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서 중국 전역에서 모집된 한인 92명이 특별반으로 편성되어 본격적인 군관 양성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청천이 총책임자로서 군사훈련을 지도했고, 오광선이 교관으로 초빙되었다.⁵¹⁾ 그러나 낙양분교 한인반은 한국독립군 출신과 김구 계열, 김원봉 계열로 나뉘져 세력간의 경쟁이 일어나 갈등이 쌓임에 따라 2기생을 배출한 이듬해 4월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지청천과 이범석, 오광선 등 교관들도 사직하고 말았다.

오광선이 낙양에서 북경으로 파견될 무렵, 그의 가족들은 지청천의 가족과 함께 북경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정산 여사와

50) 지청천·오광선의 중국 관내로의 탈출에 대하여는 <李圭彩 신문조서(제3회)>(이규채 지음·박경목 옮김, 『이규채기억록』, 일빛, 2019, 48~57쪽)과 지청천, 「광복군과 나의 투쟁」《희망》1953년 2월호, 18쪽을 참조.

51) <지청천휘하 40명 낙양군관교에 입학>《조선일보》1934년 8월 22일; 김학민·이병갑 주해, 『정본 백범일지』, 학민사, 1997, 321쪽.

가족들은 북경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천진으로 옮겨 2년 정도 살았다.⁵²⁾ 당시 오광선이 중국철도에 공무원으로 다녔으므로, 가족의 생활비는 물론 지청천 장군의 가족을 봉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천진에서 살던 오광선의 가족들은 다시 남경으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 가족들과 합류하였다. 이 무렵 남경에서 첫 아들인 오영걸(1936~2001.4.27)이 태어났다.

이후 오광선은 첩보공작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1934년 10월 당시 남경에서 신한독립당에서 군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청천이 오광선을 만주로 파견하여 만주국의 중요시설 정탐과 반만 공작대 구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오광선은 북만주 오상(五常)현에서 왕덕림(王德林) 등을 만나 반만·반일 운동을 협의했다고 한다.⁵³⁾ 이어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지시에 따라 북경으로 파견되어 비밀공작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김구 주석은 만주에서의 독립기지를 재건할 목적으로 오광선으로 하여금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규합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오광선은 1936년 북경에서 금은방을 차리며 잠행하게 되었다.

북경에 홀로 남아 첩보활동을 펼치던 오광선은 마침 그 곳에 들른 일본 관동군 참모장인 도이하라(土肥源) 중장의 암살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국내에 침투한 다른 공작원의 체포에 따라 근거지가 노출되고 말았다. 1백여 명의 만주군 보안대와 일본 경찰의 기습으로 오광선은 1937년 1월 2일 체포되고 말았다.⁵⁴⁾

일본군에게 피체된 오광선은 약 11개월에 걸친 온갖 고문과 조사를 거쳐 1937년 11월 11일 3년형을 선고받고 신의주 형무소에 수감

52)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吳姬玉여사 면담록」《용인향토문화연구》 6집, 2006, 362쪽.

53) <지청천의 밀사 入滿, 反滿공작을 획책>《동아일보》 1934년 11월 3일자.

54) 이정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하)』, 18쪽 ;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184쪽.

되었다. 다행히 고문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행세를 하며 가명을 써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아버지 오광선에게 직접 전해 들은 둘째딸 오희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비밀공작 사명을 맡겼어. 청
년 몇 명 데리고 가서 비밀공작하라고. …아버지는 북경서 금은
방을 잘했는데, 어떤 한국인 스파이한테 걸려서 별안간 다들 자
는데 한밤중에 우당탕 쳐들어 와 담을 넘어서 잠옷바람에 다
걸렸대요. 그중에서 한사람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이 있었대요.
창칼 끈으로 끊고 뛰어내렸는데, 50미터 간 후에 우리 아버지
가 마지막 총을 옆구리를 맞았대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옥으
로 가신거죠. 고문형을 받아서 일본 순사들이 가시로 막 찌르고
고문해서 정신을 몇 번 까무러쳤대요. 그래도 중국 낙양군관학
교만 나왔다고, 끝끝내 다른 얘기를 안했대요. 여기 ‘오원지(吳
原之)’라는 중국사람으로 행세한 거잖아요. 신흥무관학교 나왔다
고 하면, 죽이지 뭐 한국사람인데….그래, 3년만에 풀려 나온거
죠. 다 죽어 가는 것을 들판에 그냥 버렸대. 겨우 기어가 중국
집으로 들어갔대요.”⁵⁵⁾

오광선의 체포 소식을 들은 남경의 임시정부 지도부와 가족들은
그가 처형당했을 것으로 여겼다.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임
정 요인들은 그의 아들을 유복자로 여겨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수감 직후 부친 오인수도 사망하여 가족의 고통은 매우 컸던
것이다.⁵⁶⁾

이후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터져 임시정부 요인들 모두 피난길

55)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향토문화연
구』 5집, 2003, 184쪽.

56) 오인수의 사망지는 ‘滿洲國 吉林省 大溝府 四方台屯 15號’로 되어 있다(〈오성묵
제적등본〉 참조). 이성부, <광복군 따라 대륙유랑 30년>《주간여성》1974년, 91쪽.

에 오르게 되자, 오광선의 가족들 역시 남경에서 호남성 장사(長沙)로, 다시 광둥(廣東)으로, 다시 유주(柳州)를 거쳐 기강(綦江)으로, 다시 중경(重慶)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오희영과 희옥 자매는 1939년 2월 유주(柳州)에서 결성된 임시정부의 문화공작 부대인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대장 高雲起)에 가입했다. 총 34명 중 여성 11명으로 편성된 공작대에서 자매는 일본군 이동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지원병 모집을 위한 연극과 노래공연 등 문화선전 활동을 펼쳤다. 이 중 송면수(宋免秀)가 직접 쓰고 연출한 연극 〈전선의 밤〉은 중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⁵⁷⁾ 당시 활동을 오희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연극하고 우리도 나와서 연극하고 또 중국과 합작해서 연극하고 일본놈이 저지르는 참상을 전부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는 공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두에 나가 선전공작도 하고, 가두연설을 하고 극장에서는 무용, 연극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14살이고, 무대에 올라 무용이나 러시아 춤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나는 남자로 러시아 음악을 하모니카로 불면서 올라가 춤을 추니 대환영을 받았습니다.”⁵⁸⁾

중경에서는 토교(土橋)라는 작은 마을에서 임정 요인 식구들 10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정 여사 식구들과 함께 토교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정정화 여사(김가진의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토교에서도 정씨는 홀로 삼남매를 키우느라 늘 궁색한 처지

5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4, 1975, 205쪽 ;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1, 64~68쪽.

58) 김태근, 「내 기억 속의 언니 오희영」 『용인향토문화연구』 8집, 2007.

로 형편 필 날이 없었고, 백범은 오광선의 가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다....이들에 비하면 영걸 어머니 정씨는 아무래도 고생이 심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특히 영걸 어머니에게 정을 쏟고 희영이나 희옥이에게 좀더 잘해 주려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영걸 어머니는 만주에서 농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몸도 건강해서 내 발일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나는 그 대신 그집 삼남매의 옷가지 손질이며 이부자리 만들기 등 주로 바느질 일을 도와주었다. 큰 딸 희영은 일찍 광복군에 가담해서 일을 하다가 같은 광복군 동지인 신송식(申松植)군과 ‘동지결혼’을 했다.”⁵⁹⁾

정정산 여사는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이 결성되자, 그 맹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 당원에 가입하여 임정 활동에 참여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오희영과 희옥 자매 역시 광복군에 입대해 초모공작 등에 활약하였다. 특히 맏딸 희영은 아버지 오광선을 찾아가기 위해 일본군 점령지역에 파견되는 최전방을 자원했다.⁶⁰⁾ 이후 그녀는 1944년 김구 주석의 비서와 경호업무를 맡고 있던 신송식(申松植, 별명 宋洋浩·申三澤, 1914~1973)과 혼인하여 ‘부부 광복군’의 모범을 보였다.⁶¹⁾

오광선은 1940년 11월 중순 출옥하였다. 이후 그는 다시 중국으로 망명해 흑룡강성 하얼빈 인근의 대석하와 흥안령지역에서 항일 빨치산들과 만나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만주 각 곳을 편력하면서 지하활동을 피하다가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59)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184~185쪽. 장남 오영걸도 구술하기를 부친이 북경에서 잡혀간 후 주로 김구와 이시영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누님 오희영의 결혼식에 김구 주석이 주례를 서 주었다고 기억하였다(이정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하)』, 34~35쪽).

60)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239~245쪽.

61) 김병기, 「오희영·신송식의 광복군 활동」 『용인향토문화연구』 8집, 2007.

5. 맺음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 소식을 중국 흑룡강성에서 전해 들은 오광선은 어렵게 서울로 귀국하였다. 이후 상해로 건너가 광복군 총사령관인 지청천 장군을 찾아가 만났다. 지 장군은 그에게 광복군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고 국내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미군정 당국과 협의해 광복군을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국군 자격으로 입국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인과 두 딸, 아들을 상해에서 만난 후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오광선은 이기봉(李起鵬)을 통역으로 하여 미군정 하지 중장과 담판하였다.

그러나 임정과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군정의 방침으로 인해 교섭은 수포로 돌아갔고, 직접 전용 항공기로 중국에 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그는 11월 임정을 법통으로 추대한 대한국군준비위원회(위원장 柳東悅)의 총사령을 맡았다. 하지만 미군정에 의해 모든 사설군대의 해산을 종용받자, 1946년 4월 광복청년회를 조직하였다.⁶²⁾ 또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 지청천 장군이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자 여기에 참여하였다. 미 군정의 국방경비대 창설에 반대하다가 정부 수립을 계기로 국군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다. 1948년 12월 육사 8기 1차로 입교하여 이듬해 1월 육군 대령으로 임관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을 맞았다. 당시 오광선은 서울에 남아 있다가 단신으로 월남해 내려가 국군에 합류하였다. 이후 전주지구위수사령관을 8년 동안 지낸 후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하지만 예편 후 그의

62) 해방 후 오광선의 건군활동에 대하여는 이경남, 『분단시대의 청년운동(하)』, 1989 ; 김민호,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의 결성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를 참조.

삶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절망과 분노, 빈곤만 남았다.⁶³⁾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에서 김홍일(金弘壹)·김학규(金學奎) 등과 함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⁶⁴⁾ 1960년 독립운동자 표창을 받은 후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다.⁶⁵⁾ 오광선 장군은 1967년 5월 3일 향년 73세로 서울 회기동 42-71 자택에서 작고하였다.⁶⁶⁾

오광선의 일생은 항일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국군 건설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의병장이었던 부친과 고향 삼악학교의 스승인 여준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상동청년학원에 이어 만주로 망명하였고,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여 교관생활과 독립군 간부로 성장하였다. 또 한국독립군 실전 부대장으로 한·중 연합군을 이끌고 전장을 누비는 등 부친과 스승의 유지를 충실히 받들었다. 여준 선생의 사망 이후에는 임정 백범 주석의 명에 따라 이청천과 함께 독립군 양성 간부로 활약하고 나아가 일제 치하의 북경으로 잠입해 첩보활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렀다. 항일전쟁과 대한민국 건설에 뿌려진 그의 삶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거대한 뿌리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위만조선과 漢나라의 전쟁 원인 및 전쟁 양상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한다.

(원고투고일 : 2021. 10. 6,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오광선, 여준, 신흥무관학교, 이청천, 한국독립군,
광복군 국내지대

63) <빛나는 독립투쟁의 거성들>(4) 오광선옹-빈곤에 묻혀 사는 노병>《경향신문》1960년 10월 5일.

64) 《조선일보》1963년 1월 9일자.

65) 《경향신문》1960년 9월 30일 ; 10월 5일 ; 《동아일보》1962년 2월 24일자.

66) 《조선일보》1967년 5월 5일자.

〈참고문헌〉

1. 사 료

『독립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한민보』

不逞團體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州의 部(41), 1925.5.21.

오광선 호적등본, 1964년, 서울시 동대문구청

오광선 자필이력서, 1963년 작성

원병상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10, 197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청산리대첩이우석수기 · 신흥무관학교』, 역사공간, 2013.

2. 단행본 및 논문

김두찬, 「오광선 장군」 『신동아』 1971년 2월호.

김민호,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014.

<http://doi.org/10.15799/kimos.2014..49.006>

김명섭, 「용인지역 3대독립운동가연구 서설-오희옥 여사 인터뷰」 『용인향토문화연구』 5집, 2003.

_____, 「오광선의 민족운동과 한국광복군」 『한국독립운동 속의 용인』, 용인향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09.

_____, 『한국사가 기억해야 할 용인의 근대 역사인물』, 노스보스, 2015.

박환, 「용인출신 여자독립군 오희옥여사 면담록」 『용인향토문화연구』 6, 2006.

_____, 『신흥무관학교』, 선인, 202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http://www.uci.or.kr/G901:A-0006029379>

- 용인문화원 편, 『한국독립운동과 용인』, 노스보스, 2019.
- 원시희,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 이규채 지음 · 박경목 옮김, 『이규채기억록』, 일빛, 2019.
- 이성부, 「정정산 여사 인생증언 ‘광복군 따라 유랑생활 30년」 『주간여성』, 1974.8.
- 이인영 편, 『내 고장 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항쟁사』, 용인문화원, 1989.
-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 지복영 지음 이준식 정리, 『여성 한국광복군 지복영 회고록 - 민들레의 비상』, 민족문제연구소, 2015.
<http://www.uci.or.kr/G901:A-0006562708>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민족문화사, 1985.
<http://www.uci.or.kr/G901:A-0007883670>
- 한상도, 『중국혁명 속의 한국독립운동』, 집문당, 2004
<http://www.uci.or.kr/G901:A-0006058579>
- 허은 구술 · 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정음사, 1995.

(Abstract)

The Independent Activities in Manchria conducted by military Instructor 'Oh Kwanghyun' in Sinheung Military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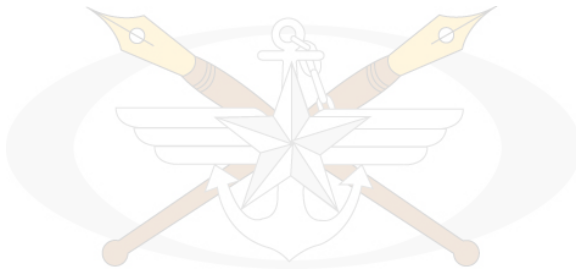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Kim, Myung-seob

Oh-Kwangsun sought asylum to China in 1917 following the teachings of his father's "Righteous Army" against imperial Japan and his hometown teacher, Yeo-jun. He joined Sinheung Military school in Seogando, China, where he became an instructor and an independent military official. He also led the Korean-Chinese coalition to the battlefield as the head of the Korean Independent Army.

As his mentor Yeo Jun passed away, he served as a official for the cultivation of the Independence Army along with Yi,Cheong-chun under the orders of President Kim-Gu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Furthermore, he infiltrated Beijing, an occupied area of the Japanese military, and was sentenced to prison for spying. After his country's liberation,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Liberation Army's domestic zone to help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turn to the country, and was a typical anti-Japanese and founding soldier who had served till his last rank of brigadier general while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the Korean military. Furthermore, his two children and his son-in-law worked hard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deed, he is a well-known family member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three consecutive generations. Oh-Gwang-seon's life is dominated by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and the construction of a liberated Korea. Not only did he participate in

various battles at the forefront of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war, but he also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His life in the construction of a liberated Korea must be the great root of today's Republic of Korea.

Keywords : Oh-Kwangsun, Yeo-jun, Sinheung military school,
Lee Cheong-chun, Korean Independent army,
Domestic Branch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71-99
<https://doi.org/10.29212/mh.2021..121.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45년 8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나진상륙작전 연구

박희성*

- 
1. 서 론
 2. 소련 해군의 북한지역 진군
 3. 웅기 상륙작전 : 1945년 8월 11~12일
 4. 나진 상륙작전 : 1945년 8월 12~15일
 5. 결 론

1. 서 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연합국 미국은 태평양의 섬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고, 일본 본토에는 B-29기가 네이빔탄과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리고 연합

* 육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국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력 투입하였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력을 투입했다며 소련군의 대일전(對日戰) 참전 의미를 축소하고 주목하지 않았다.¹⁾ 하지만 소련 및 러시아에서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만주와 한반도 해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해방 직후 한동안은 북한에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 같은 소련 및 러시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연합군으로서의 역할 모두를 폄하해서도 안 될 것이다.

냉전 시기 이래로 구소련과 러시아에서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수많은 문헌이 생산되었다. 이들 연구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주장들은 생소하기만 하다.²⁾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945년 8월 이전까지 소련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국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사항이었다. 국방부의 공간사³⁾에서는 1945년 8월 9일 대일선전 포고부터 8월 말까지 소련군의 북한 진주과정을 약 4~5쪽으로 정리한 것이 전부이다.

개인 연구자의 연구도 일부 군사적인 전개상황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대일전 참전과정 등 정치문제와 국제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연구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군사(軍史)와 전쟁사(戰爭

1) 기광서는 그 이유를 “설사 소련군 진공에 관한 사실이 언급되었더라도 그것이 지닌 의미는 우리 상황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의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였다. 기광서, 「8.15해방에서의 소련군 참전 요인과 북한의 인식」, 『북한연구학회보』 9(1), 2005, p.2.

2) 기광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와 평가」, 군사 78, 2015, pp.72~73. 구소련과 러시아에 생산된 문헌 중 대표적 저술과 국내 소개된 문헌의 세부내용은 기광서의 논문 참고.

3)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2004.

史)에 집중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⁴⁾ 이희진은 석사논문⁵⁾과 관련 논문⁶⁾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다루었다. 이후 이완범은 박사논문⁷⁾과 관련 논문⁸⁾에서 국제관계사의 관점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문제를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정 및 소련의 한반도 진공까지를 다루었다. 전현수는 관련 논문⁹⁾에서 소련군의 대북한정책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전 단계로 소련군의 대일참전 과정을 언급하였다.

이후 기광서는 관련 논문¹⁰⁾에서 8.15해방에 대한 소련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을 다루었다. 기광서는 이후 단행본¹¹⁾을 통해 대일전 과정을 10쪽에 걸쳐 재정리하였다. 이완범과 기광서의 연구는 숫자로 적지만, 풍부한 자료(소련과 미국)를 활용하며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에서 군사적인 측면의 세부작전 상황은 잘 그려지지 않았다. 특히나 기존 연구에서는 소련군 지상군이 주가 되어 서술되었고, 소련 해군의 역할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

4) 국내에서 이 부분을 다룬 초기 논문은 이용희, 「38선 획정신고 : 소련대일참전사」, 『아세아학보』 1집, 1965.이다.

5) 이희진,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하지만 ‘소련군의 전투력과 동원능력이 형편없었다’라는 군사적인 의견은 소련군을 오평가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 이희진,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9권, 1992.

7) 이완범, 「美國의 韓半島 分割線 劃定에 관한 研究(1944~1945)」,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8) 이완범,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38선 수락, 1942~1945」,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4; 이완범, 「미국의 38선 획정 과정과 그 정치적 의도 -1945년 8월 10일~15일」,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 이완범, 「동북아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소련의 대일전참전문제를 둘러싼 미 소간의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1941년 12월~1945년 2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 2003.

9)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10) 기광서, 앞의 논문.

11)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만 실제로 한반도에 먼저 접촉하여 작전을 실시하였고, 주요 지역을 장악한 것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였다. 소련과 북한의 첫 대면은 해군이었으며, 이후 6·25전쟁까지 소련 해군은 북한 해군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존재였다.

이 글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대일전 참전과 한반도 초기 작전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시도이다. 특히 1947년 소련이 작성한 가치 높은 자료인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아카이브(史料)를 꼼꼼하게 살펴 군사(軍史)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재정리하고자 하였다. 1947년 N.B. 파블로비치(Павлович) 해군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나움 이즈라일레비치 치룰니코프(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Цирульников) 대령은 소련 태평양 함대의 북한 항구 상륙작전 경험을 요약하고, 상륙작전 동안 적용된 전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1945년도 북한 항구들에 대한 태평양함대의 상륙작전(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용된 적 없는 귀중한 사료이며, 소련 해군이 직접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실증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대일전 참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1945년 8월에 실시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웅기·나진·청진·원산 상륙작전에 관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더하여 소련 및 러시아에서 발간된 책들을 첨가하여 그 내용을 충실성을 높였다. 특히 유리 바닌(Ю. В. Ванин)의 간행물을 주로 활용하였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원로 한국사 연구자로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학술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활발히 하는 학자이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보고서 중에서 선행되는 작전인 웅기상륙작전과 나진상륙작전을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상대인 일본군과 북한 내 해당지역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기록인 “朝鮮終戰の記録”을 상호비교하면서 보충하였다.

2. 소련 해군의 북한지역 진군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대일전 이전까지 바로 앞에 있는 일본 해군보다 낮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먼바다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던 강력한 잠수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상함 전력은 극심하게 부족하였다. 그 결과 어뢰정과 항공대는 작전반경의 제약이 많았고, 기상이 좋은 날만 운용되는 등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육상국경 침범, 러시아 상선 나포 방지, 캄차가 인근 영해 침범 방지 등에 주력을 두고 있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게는 연안 방어가 주 임무였으며, 함대의 전력 증가 역시도 연안 방어를 기초로 했다.¹²⁾ 실제로 정보를 기초로 한 당시 함대 전력을 보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일본 해군 함대 전력보다 열세했다.¹³⁾

12)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урсы офиц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пр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ордена Ленина Академии имени К. Е. Ворошилова, 1947, С.1.

13) ibid., С.3.

〈표 1〉 대일전 직전 소련이 파악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와 일본 해군의 전력 비교

함급	태평양함대	일본 해군
전함	-	5
항공모함	-	6
중순양함	-	16
경순양함	2	12
구축함	11	40
수뢰정	2	19
프리깃	10	정보 없음
어뢰정	204	정보 없음
상륙정	19	정보 없음
잠수함	78	60

* 출처 :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3.

1945년 2월 알타회담 직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일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지 못했던 이유로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은 일본군의 도발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불허한다는 것이 소련 정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극히 적었다. 함정의 항해와 항공기의 비행은 일본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본군 관할 해안지역에 대한 숙지가 불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원으로부터 입수한 일본 기지 및 항구에서 행해지는 일본군의 일상적인 작전 관련 정보들도 제대로 확인 및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정찰 지역은 가모프 섬과 위도 41도선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전쟁 발발 직전까지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다.¹⁴⁾

14) ibid., p.2

그래도 정보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상황 판단에 따르면,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방어하는 연안으로 일본 해군 순양함대가 출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전함 및 항공모함의 주력함대가 출현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다. 또한, 미군 항공전력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북한의 항구들에 체계적으로 기뢰를 살포하였다.¹⁵⁾ 7월 17일에는 B-29기가 원산, 청진, 나남, 나진 부근에, 7월 19일에는 청진과 나진 부근에, 7월 24일에는 나진에, 7월 31일에는 나진에, 8월 3일에는 청진과 나진에, 8월 7일에는 나진에 기뢰를 살포하였다.¹⁶⁾ 미군이 항구에 기뢰를 살포한다는 것은 소련군 정찰대의 활동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기뢰의 수량이나 종류, 살포 지역에 대한 정보는 군사작전이 종결된 이후에서야 미군에게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군이 이미 살포한 기뢰들은 오히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작전을 펼치는데 큰 난관이 될 수 있었다.¹⁷⁾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항복했고, 정확히 3개월 후인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했다.¹⁸⁾ 8월 9일은 알타회담에서 스탈린이 약속한 참전일자 마지막 날이었다. 소련의 개전일 결정은 6월 말 소련군 최고총사령부에 의해 계획되었다. 총참모부는 6월 27일 극동전 구상을 완성하였으며 28일 사령부의 승인을 받았다. 만주라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작전계획은 20~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한반도에 대한 지상전이나 점령 논의는 없었고, 만주를 포함한 해공군 작전구획만 확정되었다. 즉 한반도 작전은 차후 작전이었다. 그러나 만주 작전에는 웅기, 나진, 청

15) ibid., p.4.

16)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朝鮮終戦の記録. 第1巻: 資料篇: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 1979, pp.91~97.

17)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4

18)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С.325.

진, 원산 등 북한 항구가 포함되었다. 이들 항구에 대한 작전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와 육전대에 임무가 부여되었다. 한반도로의 자체 진공이 아닌 만주 진공의 보조작전으로 일본 관동군의 후퇴와 증원을 방지하고 만주와 일본 본토 사이의 연락차단을 목적으로 한 작전이었다. 특히 동해안 작전을 담당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주요 임무는 일본 함정의 북한 항구 정박을 저지하는 것이었고, 북한 항구 장악 임무는 전투작전 개시 후에 부여되었다. 지상군의 투입도 개전이 임박하면서 소련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¹⁹⁾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사령관 바실레프스키 A. M. Василевский 원수)는 제1극동전선군(사령관 메레츠코프 K. A. Мерецков 원수, 군사위원 쉬피코프 상장), 제2극동전선군,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 유마셰프 И.С. Юмашев 해군 대장), 아무르강 적기 소함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제1극동전선군 소속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 И. М. Чистяков 대장)과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가 한반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8월 10일 메레츠코프 원수는 제25군에 제88보병군단(제258소총사단, 제105소총사단, 제209기계화여단, 제220군단포병여단)과 제10기계화군단(제42기계화여단, 제72기계화여단, 제204기계화여단, 3개 자주포 연대, 제621기계화연대, 제970고사포연대, 2개 근위박격포대대, 제55독립코터사이클대대), 제17보병군단(제187소총사단, 제366소총사단, 제72기계화사단, 제219군단포병여단), 제393소총사단을 배속하였고,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는 제335소총사단을 배속시켰다. 그러나 제25군이 처음부터 직접적인 한반도 진공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예비 전력 중 1개 군단은 북한 항구에 상륙시키도록 하였다.²⁰⁾

19) 기광서, 앞의 책, pp.110~111; 이완범,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38선 수락, 1942-1945」, pp.270~271, 279.

20) 기광서, 앞의 책, pp.113~114; 이완범, 앞의 논문, p.279; 기광서, 앞의 논문, p.78.

8월 9일 및 10일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항공대(항공대장 레 메스코 П. Н. Лемешко 공군 중장)은 웅기, 나진, 청진 소재 일본 해군 기지에 폭격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어뢰 정들은 일본 해군 함정에 타격을 가하고, 8월 10일 오전 제12군 예하부대는 경흥을 점령하였다. 보조역할을 하던 제25군이 주력으로 나선 것은 8월 10일부터였다. 메레츠코프는 제25군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와 함께 해안지역으로 진격하여 주요 항구인 청진, 원산 등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니콜라이 레베데프(Николай Лебедев)에게는 8월 12일 아침까지 웅기와 나진을 점령하라는 구체적 임무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8월 11일에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정찰대 140명이 별다른 일본군의 저항없이 웅기에 상륙하였고, 8월 12일에는 육전대 주력과 제393소총사단이 함께 웅기를 장악하였다.²¹⁾

3. 웅기 상륙작전 : 1945년 8월 11~12일

가. 상륙작전 준비

일본 해군의 주전력은 남쪽 해상 및 본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일부 함선들만 한반도 북부 항구인 웅기, 나진, 청진에 정박하고 있었다. 웅기항은 일본 해군의 소규모 함대의 기동기지였으며, 일본에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로 보내는 병력과 군수물자 및 기타 물자들을 하역하는 항구였다. 1945년 3월 1일부터 군사작전 개시 직전까지 항공정찰 정보에 따르면 웅기, 나진, 청진항과 일본 본토 사이에 수송 선박들의 많은 이동이 확인되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기

21) 기광서, 앞의 책, p.114; 이완범, 앞의 논문, p.279.

존의 방어적 작전 수행에서 적극적 공격 작전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했다. 주공격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련 지상군의 강력한 공격과 소련 공군의 공습은 상륙작전에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했다. 항구 수비 부대는 소련 공군의 공습 후에는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고, 상륙부대는 일본군의 적극적인 대항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했다.²²⁾

웅기항 점령작전은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유마셰프 해군 대장이 직접 맡았으며, 다음과 같은 전투자산이 할당되었다. 선박은 프리깃 2척, 소해정 1척, 어뢰정 8척, MO선 2척이었다. 상륙사령관은 이바노프스키(Н. С. Ивановский) 해군 소장이었고, 정찰대는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 정찰단 제140정찰대(정찰대장 콜류바킨 Колубакин 소좌)의 2개 기관단총부대 총 139명으로 구성하였다. 주상륙부대는 제13육전여단 제75육전대대(대대장 마르킨 Маркин 소좌) 783명이었다. 상륙부대의 항해 및 연안 상륙을 엄호하기 위해 전투기 및 공격기가 할당되었다.²³⁾

웅기항 점령작전은 3단계 작전으로 계획되었다. 1단계에는 항공정찰 및 어뢰정의 정찰 이후 공군의 항구 및 도시 목표물에 대한 폭격 및 근접항공공격 실시였다. 2단계는 어뢰정을 이용하여 상륙한 정찰대의 항구와 도시 내 정찰 활동이었으며, 이후 3단계에서 주상륙부대가 상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 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항공부대와 어뢰정의 협동작전으로 출구와 접근로 상에 있는 일본 해군 함정과 수송선을 섬멸하며, 대공포 및 해안포를 제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육전대의 기습상륙으로 항구를 장악한 뒤에는 제25군이 도착하기까지 항구를

22)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7~8.

23) ibid., С.8.

사수해야 하며, 상륙부대에 대한 함포 지원은 프리깃함 ЭК-7, ЭК-10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²⁴⁾

웅기항 작전을 위해 8월 10~11일 노빅(Новик) 만에 선박들과 상륙부대가 집결하였으며, 조별로 나누어 선적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는 작전을 위한 전투 및 조직 명령을 작성하였으며, 상륙부대 지휘관 이바노프스키 해군 대장은 항해 및 연안 상륙 관련 추가명령을 하달하였다. 상륙작전에 앞서 8월 9일 00시 44분부터 10일 18시 14분까지 공군의 사전 폭격이 실시되었다. 공습에는 MBF-2 12기, IL-2기 74기, Yak-9기와 LaGG-3기 82기가 동원되었다. 공습 결과 수송선 4척 격침, 수송선 4척과 경비정 1척 파손, 중(中)구경 대공포 2문 및 소구경 대공포 3문을 파괴하였다.²⁵⁾

8월 9일 아침부터 소련 공군의 저공 폭격이 반복되자 웅기시는 각 관청과 경방단(警防團) 본부를 사전에 설치한 방공호로 옮겼다. 항구에 있던 배들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항구 밖으로 도망쳤다. 고사포 진지에서 사격을 실시하였지만, 폭격과 기총소사는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시 뒷산으로 일시 피난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은 9일 밤 자정을 지나서 퇴각을 실시하였다. 웅기 경방단은 나진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헌병대장, 군잔류대장, 군수, 읍장, 서장과 협의하여 웅기에 남아있는 모든 시민을 긴급 피난하기로 결정하였다. 10일 아침부터 일본인, 한국인 모두 피난을 시작하여 오전 중에는 시내에 인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²⁶⁾

24) ibid., C.9.

25) ibid., C.9.

26)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朝鮮終戦の記録 第3巻: 資料篇: 北朝鮮地域日本人の引場』, 巖南堂, 1979, p.448.

나. 상륙작전 실시

소련 공군의 사전 폭격 결과 일본군의 웅기 해안방어 체계는 완전하게 방어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약화되었고, 소련 해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²⁷⁾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정찰대는 작전계획에 따라 2개 정찰조²⁸⁾가 편성되었다. 정찰 1조는 68명, 정찰 2조는 71명이었다. 정찰대는 웅기항에서 일본군의 유무를 밝히고, 항구 접근로와 상륙 예상 지점을 수비하며, 적시에 정찰 효과를 내고 상륙 1제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8월 11일 15시, 정찰 1조가 어뢰정 2척²⁹⁾에 탑승하고 노빅 만을 출발하였고, 17시에는 정찰 2조도 어뢰정 2척³⁰⁾에 탑승하고 노빅 만을 출발하였다. 당일 날씨는 안개가 자욱했고, 풍향은 남동풍이었다. 정찰 1조는 19시 웅기항에 진입하였고, 상륙에는 30~40초가 소요되었으며 일본군의 저항은 없었다. 상륙한 정찰대원들은 즉시 소규모로 나누어 도시의 여러 방향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정찰 2조는 8월 12일 05시 25분에 상륙하여 도시로 침투하였다.³¹⁾ 정찰대원들이 상륙할 시 웅기 시내의 한국인들

27)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С.327

28) 1정찰조는 레오노프(В. Н. Леонов) 상위가 지휘했고, 2정찰조는 데브야토프(Девятова) 상위가 지휘했다.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Япония. Независим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Глава 33 Десант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Десант в порт Юки, <https://history.wikireading.ru/64619>. 특히 레오노프 상위의 정찰대는 독일과의 전쟁 동안 적진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고, 레오노프는 영웅 칭호를 받았다.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С.328; Ю. В. Ванин,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1945-1948”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С.24~25.

29) 보스퍼(Воспер) 타입의 T-567 및 T-578 어뢰정.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ibid*.

30) T-569 및 T-579 어뢰정.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ibid*.

31)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0~11.

은 소련군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도 하였다.³²⁾

정찰대의 활동 결과 일본군의 항구 방비는 전혀 없었고, 포대에도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12일 아침까지 한국인 주민 소수만 있었을 뿐이다. 한국인들에게 일본군 수비대는 대략 2,000명이었고, 11일 10시까지는 일부 남아있었으나, 현재는 북쪽 10~15km 지점으로 후퇴한 상태라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소련 공군의 폭격으로 철도역 지역과 소형 선박용 항만 지역에서는 화재가 있었으며, 부둣가와 정박지에는 많은 부유물이 떠 있었다.³³⁾

제13육전여단 제75육전대대 병력 783명은 8월 11일 16시에 여러 함선³⁴⁾에 승선을 시작하여 18시 30분에 승선 완료하였다. 함대의 지시에 21시 30분에 노빅 만을 출발하여 정찰대와 같은 항로로 9~14노트의 속도로 항해하였다. 정찰대로부터 주상륙부대의 상륙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받은 상륙부대 지휘관은 항구의 3개 지점에서 상륙하기로 결정한 뒤 각 중대에 임무를 하달하였다. 1중대는 기관총소대 및 대전차소대와 함께 부두 서쪽에 상륙하며 해안 화력 거점을 소탕하고 철도역과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한 뒤, 용수호 동쪽으로 진격하고 동쪽 강변 출구를 점령하고 강화하라고 하였다. 2중대는 대전차소대와 함께 부두 중앙에 상륙하며, 해안 화력 거점을 소탕하고 창고를 점령한 뒤, 도시 서쪽 외곽을 따라 진격하여 1중대보다 우측 동쪽 강변 하구를 점령하고 방어를 실시하였다. 3중대는 기관총소대 및 기관단총소대와 함께 남동쪽 부대에 상륙하며, 해안 화력

32)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앞의 책, p.449.

33)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1.

34) 주 상륙부대 수송을 위해 호위함 ㉠K-7 및 ㉠K-10, «AM» 타입 T-271 소해함, 경비선 2척, ㉠K-3 및 ㉠K-4, 어뢰정 T-514, T-515, T-516, T-531이 동원되었다.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ibid.

거점을 소탕하고 철도역과 창고·기상대를 점령한 뒤, 도시의 동쪽 외곽을 따라 진격하여 북쪽 외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하였다. 대대 예비대는 기관총소대와 대전차소대, 기관단총소대로 편성하였다.³⁵⁾

매우 짙은 안개로 인해 주상륙부대는 포시예트(Посыет) 만에 대피하여 8월 12일 10시까지 대기하였다. 웅기항에서 활동 중인 정찰부대로부터 특별한 저항이 없다는 정보를 받은 뒤 다시 이동을 시작하였다. 15시 45분 상륙부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어뢰정대는 예인선을 내보내 정찰을 먼저 실시한 뒤, 16시 20분에 웅기항으로 진입했다. 16시 30분에 기관단총중대가 상륙을 하였고, 18시 30분에는 주상륙부대가 상륙을 개시하여 20시 10분 완료하였다. 상륙간에 일본군의 저항은 없었다.³⁶⁾ 8월 12일 20시 10분, 상륙부대는 웅기항과 웅기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³⁷⁾

이후 웅기항에는 해상 방어강화를 위해 제2어뢰정여단 어뢰정 13척이 도착하였다. 8월 14일 웅기항 상공에 정찰기 편대가 출현하여 함선 대공포로 공격하였다. 8월 15일까지 17일까지 웅기항과 도시를 점령 및 소탕한 후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상륙부대는 도시 밖 10~15km지점까지 정찰대를 파견하여 적정을 살폈다. 8월 18일에는 웅기항 방어 강화를 위해 소련군 제284포병사단, 제192독립대공사단, 제20독립보병대대, 제624독립보병중대가 도착하였다.³⁸⁾

35)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2.

36) ibid., С.12~13.

37) ibid., С.15.

38) ibid., С.13.

4. 나진 상륙작전 : 1945년 8월 12 ~ 15일

가. 상륙작전 준비

1945년 8월 12~13일, 제393소총사단과 육전대는 함께 나진으로 진출하여 일본군 보병대대와 교전을 하였으며, 13시 도시 외곽에서 자동화기 부대를 괴멸시키고 나진을 점령하였다. 이 나진 점령은 일본 해군 기지이자 대단위 산업 중심지인 청진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³⁹⁾

나진항은 일본 함대의 기동기지로 일본에서 한반도 북부로 오는 병력이나 물자들의 하역이 이루어지던 항구였다.⁴⁰⁾ 나진의 일본인은 군인을 제외하고 약 5,000명이었다. 나진에는 9일(8일 자정이 후)부터 소련 공군의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9일 이른 아침에는 부두가 일제히 폭격을 받았다. 정박 중인 큰 배가 14척이 있었지만, 그 중 1척은 폭침되었다. 일부 배들은 항구 밖으로 도망을 치려다, 미군이 살포한 기뢰에 의해 폭침되거나 파손되었다. 일본인 중 만주 철도 관계자들은 9일부터 특별열차로 가족들을 데리고 만주로 도피하고 있었다. 10일 12시경에는 나진 경찰서장이 일부 피난 명령을 내렸다. 일본인들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피난을 시작하였다.⁴¹⁾

1945년 8월 10~11일, 사전 항공 및 어뢰정 정찰결과 나진항에는 수송선 8척과 여러 소형 선박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39) 기광서, 앞의 책, p.114.

40)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4.

41)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앞의 책, p.457.

소련 공군의 공습으로 항구와 도시는 불타고 있었으며,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의 항구와 일본 본토로 탈출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런 정찰결과를 기초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일본군이 항구와 도시를 파괴하거나 항구를 통해 한반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막고, 나진항을 소련군 지상부대 및 항공부대를 위한 기지로 삼기로 결정하였다.⁴²⁾

상륙작전 부대는 제358육전대대(대대장 스비쉴프 A. P. Свищев 대좌) 617명과 76mm 4문 및 45mm 포 2문, 제63차량화정찰대대 정찰중대 99명, 제354육전대대(대대장 미노로프 Миронов 중령) 기관단총중대 95명, 함대사령부 정찰대(정찰대장 콜류바킨 소좌) 68명으로 편성하였다. 제1진인 정찰대는 제354육전대대 기관단총중대, 함대사령부 정찰대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였다. 주상륙부대는 제358육전대대와 제63차량화대대 정찰중대였으며, 나진항과 나진시를 점령하고 소련군 지상군이 올 때까지 수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추가적으로 주상륙부대 상륙간 좌측면 엄호는 포시에트 만에 정박하고 있는 구축함 트빌리시에 탑승하고 있던 제354육전대대 기관단총중대(중대장 자하렌코 Захаренко 상위) 100명에게 부여되었다.⁴³⁾

나진항 상륙작전에 투입된 함선은 프리깃 1척(Θ K-5), AM형 소해정 2척(ТЩ-279호, ТЩ-281호), БО-1형 어뢰정 2척(БО-303호, БО-305호), МО-4형 어뢰정 2척(МО-8호, МО-16호), ПК형 어뢰정 4척(27호, 28호, 29호, 30호), А-1형 어뢰정 2척(ТКА-567호, ТКА-568호)이었다. 이 함선들은 3개 조로 편성되었는데, БО-1형 어뢰정 2척과 А-1형 어뢰정 2척은 1, 2조로 편성되어 나진항으로

42)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14-15.

43) ibid., С.15~16.

사전정찰대를 상륙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3조는 프리깃 ЭК-5, AM형 소해정, МО-4형, ПК형 어뢰정으로 구성되어 주상륙부대를 상륙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상륙 병력의 항해 중 엄호 및 해안 상륙작전 간 엄호를 위해서 공군사령관은 전투기와 공격기를 할당하였으며, 나진항 점령작전 총지휘는 함대사령관이 담당하였다. 상륙지휘관 및 작전 성공 후의 나진항 선임 지휘관으로는 폴타프스키(Е. Е. Полтавский) 대좌가 임명되었다.⁴⁴⁾

8월 11일, 나진항 작전을 위한 상륙부대와 함선들을 주 기지로 집결시키고 선적작업을 실시했다. 함대사령부는 작전을 위한 전투조직 및 명령을 작성하였고, 상륙지휘관은 항해 및 해안상륙을 위한 추가명령을 작성했다.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공군 폭격기 및 공격기에 의한 공습이 418 소터 실시되었다. 공군 작전의 결과로 수송선 15척, 경비정 1척을 침몰시켰으며, 철도역과 차고, 창고 5개소와 항구시설 일부를 파괴하였다. 대공포 5문과 중구경 대공포대 2개 부대, 자주포 1대를 격파하였다. 어뢰정의 항구 습격작전으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송선 11척이 격침되었다고 추정하였다.⁴⁵⁾

나. 상륙작전 실시

작전계획에 따라 정찰 1조는 БО-1형 어뢰정 2척에 승선을 마치고 8월 11일 18시에 블라디보스토크 금각만(金角灣, Золотой Рог)을 출발했다. 12일 09시 30분에는 구축함 트빌리시에 승선하고 있던 제354육전대대 기관단총중대가 어뢰정 3척에 탑승하여 비타지 만((Бухта Витязь)을 출발했다. 12일 10시, 정찰 2조는 어뢰정 2척이 탑승하여 웅기항을 출발했다. 같은 시각, 주상륙부대인 제358육전대대와 제68차량화정찰부대의 정찰중대도 프리깃 1척, 소해정

44) ibid., C.17~18.

45) ibid., C.19.

2척, MO-4형 어뢰정 2척, IIK형 어뢰정에 탑승하여 금각만을 출발하였다.⁴⁶⁾

8월 12일 09시, BO 어뢰정은 일본군의 탐색을 피하기 위해 화재 연기 속에 은폐하여 나진만으로 진입했다. 당시 항구에는 어뢰에 피격된 수송선 8척이 있었으며, 부두와 항구 창고들은 불타고 있었다. 제1진의 어뢰정 2척은 소초도를 지나갈 때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지만, 11시~12시 사이 정찰조를 상륙시킬 수 있었다.⁴⁷⁾ 항구에 상륙한 정찰 1조는 항구를 방어하고 있던 일본군 보병 1개 소대의 저항을 분쇄했다. 도시로 진입한 정찰 1조는 도시 내에는 일본군 낙오병을 제외한 대규모 부대는 없으며, 현지 주민을 탐문한 결과 도시 외곽에 연대 규모의 일본군 보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항구를 점령한다는 임무를 완수한 정찰 1조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상륙부대를 지원할 준비를 하였다. 또한, 항구 상륙을 마친 정찰 2조는 상륙 후 2개 조로 구분하여 정찰을 실시하였다. 정찰결과 항구의 서부지역은 소련 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며, 항구 지역에는 많은 시체와 함께 화물, 차량 및 창고들이 불타고 있었다. 항구에 있던 많은 수송선들도 어뢰에 피격당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⁴⁸⁾ 정찰대는 항구의 교두보를 장악하고 주상륙부대가 접근할 때까지 교두보를 유지했다.⁴⁹⁾

자하렌코 상위의 기관단총중대를 태운 어뢰정 3척은 8월 12일 12시, 간진(間津)호 만으로 진입한 뒤, 인접 고지에 있는 일본군의 포격을 받으면서도 해안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였다.⁵⁰⁾ 상륙한 기관단

46) ibid., C.20.

47) ibid., C.21.

48) ibid., C.21~22.

49)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2016, С.328; Ю. В. Ванин,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1945 - 1948”, С.24.

50) 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21.

총중대는 72고지 및 68고지로 공격을 실시하여, 144고지에서 발사되는 일본군의 포격을 극복하고 13시에 72고지 및 68고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나진에서 청진 방향으로 이어진 도로로 이동 중인 대대 규모의 일본군 보병 및 포병의 행렬을 발견하였다. 기관단총중대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대응하지 않았고, 21명의 전사자를 낸 채 화포를 버리고 144고지를 우회하여 사라졌다. 포로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나진에서 청진까지 장교 없이 행군하던 병력으로, 장교들은 차량을 타고 먼저 청진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16시, 사라졌던 대대가 144고지 지역에 다시 출현했지만 포격에 의해 와해되었다. 18시, 144고지로 파견된 기관단총중대 정찰대는 일본군 포병과 교전을 벌여 12명을 사살한 뒤 경계지역으로 물러났다. 19시가 되자 일본군 포병은 자신들의 포대를 폭파하고 청진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8월 13일 02시, 기관단총중대는 205고지를 점령하였고, 이어진 한수-만산 지역에 대한 정찰 활동을 통해 일본군이 446고지에서 남쪽으로 물러난 것을 확인하였다. 13시, 기관단총중대는 한수-만산의 산지를 점령하였다. 15시 20분, 기관단총 중대는 136고지에서 퇴각하는 소대 규모의 일본군에게 사격을 가해 12명을 사살했고, 일본군은 청진 방향으로 도망쳤다. 13일 이후 15일까지 기관단총중대는 수색정찰을 실시하고 소규모 부대를 섬멸하였다. 15일 19시 30분, 기관단총중대는 청진으로 진출하던 소련군 지상군 정찰부대와 합류하여 보급품을 보급받을 수 있었다. 8월 16일 기관단총중대는 나진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17시에 나진에 도착했다. 이후 기관단총중대는 후방에서 6일 동안 작전을 실시하면서, 일본군에게 물리적 손실과 함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실시하였다.⁵¹⁾

주상륙부대는 8월 13일 02시 20분에 항구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51) *ibid.*, C.22~24.

05시 45분에 상륙을 개시하여 06시 05분에 상륙을 완료하였다.⁵²⁾ 상륙을 마친 제358육전대대는 도시 내의 일본군을 소탕하고, 방어 구역을 점령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제1소총중대는 기관총소대, 박격포소대, 76mm 포 및 45mm 포로 편성된 대전차소대를 배속받아, 도시 북동쪽 외곽 129고지 방향으로 진출하여 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제3소총중대도 기관총소대, 박격포소대, 76mm 포 및 45mm 포로 편성된 대전차소대를 배속받아, 도시 남서쪽 외곽으로 진출하여 무명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대대(-)는 129.09고지 및 도시 남서쪽 방면에서 일본군의 반격을 격퇴하기 위해 예비대로 있었다. 12시, 한국인을 통해 나진 북서쪽 5km 지점에 4,000명의 일본군이 참호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129고지의 군수품 창고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2시 30분, 창고로 파견된 소총소대가 일본군을 발견하고 사격을 개시하여, 장교 1명과 병사 7명을 포로로 잡고 9명을 사살했다. 20시, 북서쪽으로 파견되었던 정찰대는 버려진 차량과 자재, 장비, 불탄 술, 쌀가마, 파다만 참호와 같이 점진적으로 퇴각하는 일본군 부대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일본군 2명을 사살하고 포로 8명을 잡았다. 21시, 2개 소총소대를 대대 전방 5km 지점까지 정찰을 보냈으며, 기관단총소대는 일본군 유무 여부를 확인하라는 임무를 받고 정찰을 실시했다.⁵³⁾

제358육전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함선에서 수병 100명이 증원하였다. 8월 13일 야간은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고, 소초도에서는 어뢰정 및 소해정에 대한 기관총 사격도 있었다. 14일 06시, 야간 정찰에서 복귀한 소총소대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은 전선 전방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웅기 방면 도로 및 북서방면에는 일본군의 흔적은 없었다. 10시, 선임 해군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소총

52) *ibid.*, C.21.

53) *ibid.*, C.24~26.

소대 및 기관단총소대가 대초도와 소초도를 소탕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소해정 TⅢ-279호, TⅢ-281호의 함포 지원 사격을 받은 부대는 13시 15분에 대초도의 일본군을 소탕하고 대초도를 완전점령하였다. 13시 40분, 부대는 소초도로 향했고 격렬한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하지만 15시까지 일본군을 소탕하고 섬을 점령는데 성공하였다. 대초도와 소초도 점령작전 중, 나진만에는 여러 대의 일본군 항공기가 나타났으나 함선의 대공사격으로 쫓겨났고, 1대 만이 대초도에 250kg 폭탄을 투하하는 데 성공하였다.⁵⁴⁾

8월 15일 동안 제358육전대대는 계속해서 정찰과 잔여 일본군 소탕을 하였으며, 교란 임무를 부여받은 자살공격대로부터 도시를 방어했다. 12시, 웅기 남서쪽 3km 지점에 있던 제393소총사단과 통신이 연결되었다. 14시, 대대 지휘부로 제393소총사단 정찰지휘관이 도착하였고, 사단 예하부대의 현 위치와 진격계획을 통보하여 주었다. 이후 8월 17일 18시, 제393소총사단이 나진에 통과하였으며, 계속하여 청진으로 진격하였다.⁵⁵⁾

상륙부대를 상륙시킨 후, 함선들은 바다로부터 만을 방어하고 항구와 도시로 상륙한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집결했다. 8월 13일 12시 58분, 소초도로 향하는 순찰구역에서 소해정 TⅢ-279호의 15m 지점에서 기뢰 폭발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대한 소해작업에 착수하고, 전투함들은 지정된 항로로만 항해하게 하였다. 나진항을 이용한다는 계획이 진행되면서, 함대의 기동전력 주둔을 위해 함대 모항에서는 수송선 2척 및 유조선에 함대 기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무기, 탄약, 연료가 적재되었다. 14일 07시와 10시 30분에 2개 어뢰정 부대가 도착했다. 이 부대의 임무는 기지를 해상에서 방어하고, 함대 작전상황

54) *ibid.*, C.26~27.

55) *ibid.*, C.27.

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11시 39분부터 TⅢ-279호가 소해작전을 실시하였다. 12시에는 TⅢ-279호, TⅢ-281호가 섬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초도에 함포사격을 가했다. 소해 작업과 상륙부대 함포사격을 지원하면서 12시 55분에 TⅢ-279호가 동시에 기뢰 3개에 피해를 입었다. 항로를 잃고, 키와 항법장치 및 통신장치가 고장났다. 그리고 전사 2명, 중상 20명, 경상 7명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소해함은 계속해서 바다 위에서 대초도에 상륙하는 부대를 지원하였다. 13시 40분, TⅢ-279호, TⅢ-281호는 대초도에서 소초도로 목표를 변경하여 소초도에 함포사격을 시작하였고, 인근에 머무르면서 교두보 확보를 지원하고 일본군 항공기를 격퇴했다.⁵⁶⁾

나진항으로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에 있던 어뢰정에 게 지정된 항로 접경지역에 장거리 포격을 실시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시 구역 경계는 3번 부두에서 대초도 북쪽 끝단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8월 14일 20시 30분, 어뢰정 6척이 항로 포격을 위해 출항하였고, 포탄 33발을 발사하고 기뢰 4개를 제거하였다. 20시 35분, 어뢰정 4척도 출항하여 포탄 16발을 발사하고 기뢰 4개를 제거하였다. 21시 50분 함대 모항으로부터 상륙함 캄차트네프티(Камчатнефть)와 수송선 수찬(Сучан), 그리고 1호 유조선으로 구성된 선단이 출발했다. 소르킨 소장이 지휘하는 선단에는 아르툰 지역 육상방어부대와 제152독립대공사단 및 제192독립대공사단의 일부 병력, 기동부대 기지 조직을 위한 군수품 및 연료를 적재했다. 선단의 나진항 진입을 위해 8월 15일 21시 40분 BO 어뢰정 2척이 나진만으로부터 나와 선단을 맞이했다. 22시 30분, 만 입구 대초도 구역에서 수송선 수찬이 기뢰에 접촉하였지만,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23시 05분에는 상륙함 캄차트네프티가, 23시 20분에는 1호

56) ibid. C.27~28.

유조선이 기뢰에 접촉하였지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직후 나진항은 일단 폐쇄되었다.⁵⁷⁾ 소련 함선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기뢰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나진항을 기동기지로 사용하려던 최초 목적을 포기해야만 했다.⁵⁸⁾

8월 16일, 함대 모항에서 나진항으로 소해정 5척, 소형 소해정 3척, 기뢰부설함 2척, 소해 바지선, 자주 탈자기로 구성된 특별소해부대가 파견되었다. 8월 29일이 되자 나진항의 소해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항구가 개방되었다. 총 116개의 기뢰가 제거되었다. 나진항 폐쇄 동안 모든 선박의 항해와 바다를 통한 화물 환적 및 승객 환승은 웅기항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육지를 통해 나진으로 연결되었다.⁵⁹⁾

결론적으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에게 부여되었던 항구와 나진 점령 임무는 완수되었다. 다행히도 항구와 도시 점령 시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으며, 개별 집단 및 자살특공대원의 저항만 있었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피해는 전사 7명, 부상 37명이었다. 또한, 어뢰정 1척 침몰하고 소해정, 1호 유조선, 8호 경비정, 수송선 2척이 손상을 입었다. 일본군의 피해는 전사 277명, 포로 292명이었다.⁶⁰⁾

57) *ibid.*, C.28~29.

58) С. Е. Захаров, В. Н. Багров, С. С. Бевз, М. Н. Захаров, М. П. Котухов,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Глава одиннадцатая Десанты в 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Высадка в Южи и Расин,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 М., Воениздат, 1973, http://militera.lib.ru/h/tihookeanskiy_flot/11.html

59)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С.29.

60) *ibid.*, C.29.

5. 결 론

북한에게 있어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조직, 6·25전쟁 준비 및 전쟁수행과정에서 소련군의 영향은 지대하고 할 수 있다. 육군에서는 편제와 교육훈련 등 대부분의 체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각종 장비 지원을 해주었다. 공군에서는 실제로 MiG 전투기가 비공식적으로 참전을 하였다. 또한, 해군에서도 각종 함정을 지원하고 무기 및 기뢰 등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인 북한군과 소련군의 관계는 1945년 8월,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으로 소련군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 북부에 진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소련군 제25군이 지상으로 진격하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런 지상군의 진격과정에 맞춰 먼저 작전을 실시한 것이 바로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였다.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기항으로 한 함대로서, 한반도 북부인 용기, 나진, 청진, 원산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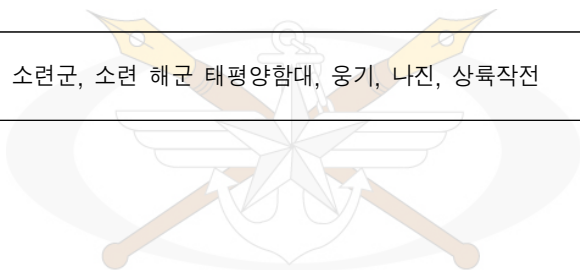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1947년 소련이 작성한 귀중한 아카이브와 소련 및 러시아의 발간물을 통해 그동안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만 의미가 컸던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일련의 상륙작전 중 용기상륙작전과 나진상륙작전의 군사적인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물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소련군(해군 및 공군 포함)의 역할에 대해 과대평가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축소되었던 소련군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재평가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실제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시발점이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이어, 필자는 그동안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의 상륙작전을 군사사, 전쟁사적 측면의 연구논문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연구 정리는 다른 연구자들이 폭넓은 영역에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이 글이 군사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고 소련군의 작전을 강조하면 묘사했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고투고일 : 2021. 9. 30,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소련군, 소련 해군 태평양함대, 웅기, 나진, 상륙작전



〈참고문헌〉

1. 사료

Цирульников Наум Израилевич, РЕФЕРАТ НА ТЕМУ: "ДЕСАНТНЫЕ ОП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 ПОРТ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1945 ГОДУ",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урсы офицерского состава при Военно-морской академии имени К. Е. Ворошилова., 1947.

2. 단행본

Ю. В. Ванин, "ИСТОРИЯ КОРЕИ",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_____,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1945 - 1948" Москва: ИВ РАН, 2016.

Широкоград Александр Борисович, "Япония. Незавершенн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Глава 33 Десанты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Десант в порт Юки.
(<https://history.wikireading.ru/64619>)

С. Е. Захаров, В. Н. Багров, С. С. Бевз, М. Н. Захаров, М. П. Котухов,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Глава одиннадцатая Десанты в корейские порты, Высадка в Юки и Расин, Краснознаменный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 М., Воениздат, 1973.
(http://militera.lib.ru/h/tihookeanskiy_flot/11.htm)

森田芳夫 長田かな子, 『朝鮮終戦の記録. 第1巻 : 資料篇 : 日本統治の終焉』, 巖南堂, 1979.

_____, 『朝鮮終戦の記録 第3巻 : 資料篇 : 北朝鮮地域日本人の引場』,

巖南堂, 1979,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2004.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3. 논 문

기광서, 「8.15해방에서의 소련군 참전 요인과 북한의 인식」, 『북한연구학회보』 9(1), 2005.

_____,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과 러시아에서 본 광복의 의의와 평가」, 『군사』 78, 2015.

<https://doi.org/10.29212/mh.2015..96.71>

_____, 「2000년대 이후 북한사 연구의 성과와 문제」, 『역사와 현실』 97, 2015.

<http://uci.or.kr//G704-000054.2015..97.017>

이완범, 「美國의 韓半島 分割線 劃定에 관한 研究(1944~1945)」,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http://uci.or.kr//G704-000054.2015..97.017>

_____,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38선 수락, 1942-1945」,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4.

<https://doi.org/10.29212/mh.2015..9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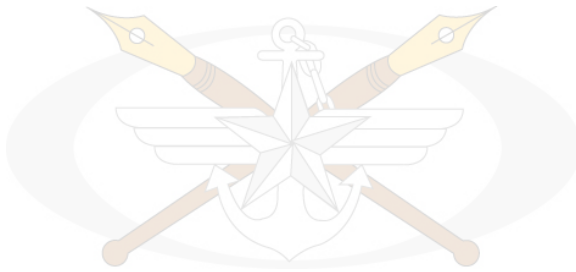
_____, 「미국의 38선 획정 과정과 그 정치적 의도 -1945년 8월 10일~15」,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

<http://uci.or.kr//G901:A-0001050761>

_____, 「동북아냉전의 원초적 전개과정: 소련의 대일전참전문제를 둘러싼 미 소간의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1941년 12월~1945년 2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 2003.

<http://uci.or.kr//G901:A-0002090606>

- 이희진,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http://uci.or.kr//G901:A-0004591182>
- , 「韓半島 分割 背景에 대한 연구 :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정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9권, 1992.
<http://uci.or.kr//I410-ECN-0102-2019-900-001745708>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9집, 1995.
<http://uci.or.kr//G901:A-0001529064>



(Abstract)

A study on the Amphibious operations of the Unggi and Rajin area conducted by the Pacific Fleet (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Park, Hui-seong

This article looked at the Unggi and Rajin Amphibious operations of the Soviet Navy's Pacific Fleet in August 1945. As the Allied Forces won World War II, Korea was liberated. The Soviet Army declared war on Japan on August 8, 1945 and participated in the second world war. The Soviet ground forces attacked Manchuria and defeated the Japanese Kwandong Army. And as a subsequent operation, they advanced to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cific Fleet occupied ports in the North Korean region, with the aim of preventing the retreat and reinforcement of Japanese Kwandong forces.

Air units belonging to the Pacific Fleet bombed the Japanese naval bases in Unggi, Rajin and Chongjin on August 9 and 10, 1945. The Pacific Fleet attacked Unggi on August 11, 1945. Operation Unggi was carried out by the Fleet Command's reconnaissance units and marines. And on the 12th, the landing force occupied Unggi Port and Unggi City without much resistance.

The operation to Rajin began on August 12. Also, the Fleet Command's reconnaissance unit and marines were in charge of the operation. The reconnaissance unit occupied Rajin Port first and secured a bridgehead, and the main landing unit completed the landing on the morning of the 13th. Subsequently, while occupying Unggi and the outlying hills, they attacked the Japanese forces and cleared out the Japanese forces in Daechodo and Sochodo.

Keywords : Soviet army, Pacific Fleet(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Unggi, Rajin, Amphibious operation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101-142
<https://doi.org/10.29212/mh.2021..121.1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김덕원*

1. 머리말
2. 한강유역의 진출과 려라밀약의 성립
3. 신주의 설치와 관산성 전투의 발생
4. 맺음말

1. 머리말

551년 신라는 백제·가야와 함께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공략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에 10군을,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에 6군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강유역으로의 진출은 백제 성왕이 주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¹⁾ 신라 진흥왕

* 명지대학교 사학과 강사

- 1)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1981 ; 연세대 국학연구원 편, 『고구려사연구 I -논문편-』, 연세대 출판부, 1987 ;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의 의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였다.²⁾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마침내 삼국통일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신라사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의 전반적인 판도를 변화시켰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였던 여러 사건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551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부터 554년 관산성 전투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강 戰役(551~554)’³⁾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강 전역’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기는 551년 신라가 백제가야와 함께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10군을 설치하고, 이후 고구려와 려라밀약을⁴⁾ 체결하여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기 전까지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반기는 553년 백제의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한 이후 이듬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가 신라를 침입하여 관산성 전투가 발생하고 성왕이 죽임을 당하는 시기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2)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3) 본고에서의 ‘戰役’이라는 용어는 단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단발적으로 벌어지는 ‘전투’ 보다는 크고, 장기간에 걸쳐 광역의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전쟁’ 보다는 작은 형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4) 려라밀약에 대한 연구성과는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棄)와 신라고구려의 밀약설」, 『선사와 고대』 40, 2014 ; 이영재, 「려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참조. 한편 고구려가 신라에게 화친을 제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려라밀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의미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먼저 화친을 제의한 ‘제라동맹’ 역시 마찬가지이다(김덕원, 앞의 논문, 2021, 8쪽 주 4) 참조).

‘한강 전역’은 시기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반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이고, 후반기는 한강유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는 거칠부가 그리고 후반기는 김무력이 대표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진흥왕대의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진지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강 전역’의 특징은 그 전후에 발생하였던 다른 전투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였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인 551년 한강유역의 진출은 백제·신라·가야와 고구려의 대결이었고, 마지막인 554년 관산성 전투는 백제·가야·왜와 신라·고구려가 대결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⁵⁾ 이후 최대의 국제전이었고, 그만큼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을 살펴보면서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성립된 려라밀약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신주의 설치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도 고찰하면서 ‘한강 전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언급된 문제들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18~19쪽.

2. 한강유역의 진출과 려라밀약의 성립

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신라 진흥왕은 548년 15세가 되자 친정을 실시하였고, 이듬해 양의 사신이 파견되었던 것을 계기로 한강유역의 진출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였던 것 같다.⁶⁾ 그리고 550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때 두 성을 모두 차지하면서⁷⁾ 한강유역의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551년에는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하고, 낭성으로 순수를 하면서⁸⁾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신라가 백제와 더불어 한강유역의 진출을 협의하였던 시기는 아마도 도살성과 금현성을 차지한 이후인 550년 후반기 무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백제 성왕이 한강유역의 진출 계획을 먼저 제안하였고, 신라 진흥왕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이후 양국은 일정한 직위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신라에서는 거칠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젊었을 때 고구려 지역을 정찰하였기 때문에 한강유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도 정통하였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540년(성왕 18) 고구려의 우산성을 공격하

6)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22쪽.

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1년 3월.

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 정월 및 3월.

9)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1쪽.

10) 임평섭, 「진흥왕 집권 초기의 정치구도와 한강 유역 진출」, 『신라문화』 53, 2019, 73쪽.

였던 연회나,¹¹⁾ 550년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격하였던 달기가¹²⁾ 참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들은 공략 시기와 지역, 방법 등의 군사 작전을 비롯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끝마친 후에 양국은 드디어 한강유역을 공략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1. (3월)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케 하여, 이긴 기세를 타고 10군을 빼앗았다.¹³⁾

A-2. 12년 신미에 왕이 거칠부와 대각찬 구진, 각찬 비태, 잡찬 탐지, 잡찬 비서, 파진찬 노추, 파진찬 서력부, 대아찬 비차부, 아찬 미진부 등 여덟 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백제 사람들이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리의 기세를 타서 죽령 바깥, 고현 이내의 10군을 취하였다. ...¹⁴⁾

A-3. (가을 9월) 신라가 공격해 와서 10성을 빼앗아 갔다.¹⁵⁾

A-4. 이해. 백제 성명왕이 몸소 군사와 두 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두 나라는 신라와 임나이다.〉 고구려를 정벌하여 한성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다. 모두 6군으로 마침내 고지를 회복하였다.¹⁶⁾

위의 기록은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인 신라와 백제가야의 한강유역 진출에 대한 내용이다. 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공략 시기와 지역, 방법 등 당시의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략 시기에

1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18년 가을 9월.

1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28년 봄 정월.

1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

14)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15)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

1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 시세.

대한 문제인데, 사료 A-2는 백제가 먼저 평양을 격파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사료 A-4는 백제가 한성의 땅을 차지한 후에 또 진군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사료 A-1·2에는 백제가 평양을 격파한 후에 신라가 고구려를 공략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라는 백제가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고구려에 대한 공략을 시작하였다. 신라가 백제의 승리 소식을 확인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당시 양국의 주력군이 주둔하였던 지역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리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며칠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라와 백제가 동시에 고구려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신라와 백제의 공략 지역은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백제가 한강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였다. 다시 말하면 양국은 동일한 지역을 합동으로 공략한 것이 아니라 각각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술이라는 사실이다. 즉 551년 이전에는 제라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쪽이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을 요청 받은 쪽이 해당 지역에 구원군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방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551년에는 신라와 백제가 각각 고구려의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였는데, 이것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전술이다. 또한 제라동맹 성립 이

17) 임평섭은 진흥왕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백제가 공격을 선행하고 그 추이에 따라 군사를 움직이는 것으로 백제와 합의했을 것이라고 하였다(임평섭, 앞의 논문, 2019, 74쪽).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 공략에 실패한다면 신라는 공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제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양국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백제가 신라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였을지 의문이다. 한편 이도화는 신라는 지금의 장호원 켜에서 백제와 합류한 후에 여주이천을 지나 광주(한성)를 공취하고 서울(남평양)까지 점령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절령 진입은 신라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라고 하였다(이도화, 「신라의 북진정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 1987, 32~33쪽)

후 고구려에 대한 최초의 공동 공략이며, 특히 공략 지역을 상이하게 선정한 것 역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었다.

공략 지역의 선정은 공략 방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다. 신라와 백제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각각 선택하였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양국은 공략 지역을 광범위하게 선정함으로써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귀족들의 내분과 서북방지역에서 북제와 돌궐 등 이민족 침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¹⁸⁾ 따라서 전선이 확대되면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것은 신라와 백제의 공략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에 10군을,¹⁹⁾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에 6군을²⁰⁾ 차지하였다. 이곳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주요 교통로였으므로,²¹⁾ 양국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구려 영역 내의 깊은 곳까지 진출할 수가 있었다.

신라와 백제의 공략 방법은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

18) 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403~404쪽 ;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4쪽 ; 이인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57, 1997, 17쪽 ;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45쪽.

19) 10군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5쪽 ;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2쪽 ; 임기환, 「고구려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2002, 14쪽 ; 장창은,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관산성 전투」, 『진단학보』 111, 2011 ;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67~171쪽 참조. 한편 강민식은 신라가 얻은 10성은 551년 전투에 한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548년 백제를 구원한 이후 계속된 대고구려 전투의 결과라고 하였다(강민식, 앞의 논문, 2014, 152쪽)

20) 6군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5쪽 ;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3쪽 ; 임기환, 앞의 논문, 2002, 14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72~176쪽 참조.

21)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72쪽.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서 양국은 최우선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의 방어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해서는 기습 공격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의동 보루와 아차산 보루에서 출토된 유물의 출토 상태 등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²²⁾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는 위장전술 또는 기만전술을 사용하여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와 백제는 이러한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한강유역을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던 시기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백제본기에는 551년의 기록이 누락되었고, 신라본기에는 3월, 고구려본기에는 9월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라 진흥왕은 3월에 낭성으로 순행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한강유역의 진출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²³⁾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9월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²⁴⁾ 아마도 신라와 백제는 551년 9월에 돌궐이 고구려를 침입하였던 것을 이용하여²⁵⁾ 기습적으로 한강유역을 공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공격을 하였던 가해자인 신라와 백제의 기록보다 공격을 받았던 피해자인 고구려의 기록이 더 정확

22) 서울대 박물관 편, 『고구려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2000, 42쪽;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역』, 서경문화사, 2013, 19~32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6쪽;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8~99쪽.

23)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3쪽.

24) 노중국, 앞의 논문, 2016, 50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앞의 책, 2014, 166쪽 주 37). 한편 김주성은 전투가 3월에 시작되어 9월에 끝났을 것으로 파악하였다(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300쪽).

25) 이인철은 돌궐이 고구려에 침입함으로써 고구려와 나제 양국 간에 군사적 대결의 팽팽한 균형관계가 깨어지고 신라와 백제가 복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이인철, 앞의 논문, 1997, 17쪽).

하다는 사실이다.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은 거칠부이다.²⁶⁾ 이것은 그의 젊었을 때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인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 거칠부는 젊었을 때 사소한 일에 거리끼지 않았고 원대한 뜻을 품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다. 문득 고구려를 정찰하려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법사 혜량이 절을 개창하여 불경을 설법한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그곳에 나아가 강경을 들었다. … 이때 혜량법사가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길거리로 나오니,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로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전에 유학할 때 법사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전하였는데, 지금 뜻밖에 서로 만나니 어떻게 보은하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법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라건대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에 거칠부가 수레에 태워 함께 돌아와서 왕을 뵈게 하니, 왕이 법사를 승통으로 삼았다. …²⁷⁾

위의 기록은 거칠부의 젊었을 때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거칠부는 젊었을 때 승려가 되어 고구려를 정찰하였는데, 아마도 고구려의 영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던 것 같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한강유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도 정통하였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가 한강유역으로의 진출을 주도하였다.²⁸⁾

26) 거칠부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주보돈, 「거칠부의 출가와 출사」,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참조.

27)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28) 주보돈, 앞의 논문, 2014, 188~189쪽 ; 임평섭, 앞의 논문, 2019, 68쪽.

신라가 고현(지금의 철령)까지²⁹⁾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거칠부의 경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거칠부는 젊었을 때 고구려의 남진 교통로를 따라 고현까지 갔었던 것 같으며, 이때의 경험이 신라의 북진에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흥왕은 이러한 점을 기대하고 병부령인 이사부를 대신하여 거칠부를 중용하였으며, 그는 진흥왕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였다.

거칠부는 북진 과정에서 고구려의 해량법사를 만나는 성과도 거두었다. 거칠부는 젊은 시절에 고구려를 정찰할 때 해량법사에게 강경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해량법사는 고구려의 국내 정치가 불안하자 지방으로 피신하였는데, 아마도 고현 부근의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⁰⁾ 해량법사는 거칠부가 이곳까지 진출하자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으며, 거칠부는 해량법사와 함께 신라로 돌아왔다.³¹⁾ 진흥왕은 해량법사를 승통(국통)으로 삼았고, 이후 진흥왕대의 정치와 불교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9) 고현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3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67~168쪽 참조.

30) 해량법사가 활동하였던 지역은 국경지대인 죽령 이북 고현 이내의 10군의 근방(이정숙, 「진흥왕대 우륵 망명의 사회 정치적 의미」, 『이화사학연구』 30, 2003 ;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혜안, 2012, 45쪽), 또는 한강유역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나(주보돈, 앞의 논문, 2014, 189쪽) 한성 주위로(임평섭, 앞의 논문, 2019, 68쪽) 이해하고 있다. 당시 해량법사는 고구려의 국내 정치가 불안하여 지방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남진의 전진 기지였던 한성의 주변 지역에 거주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현과 같은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한다.

31) 540년대 후반 무렵에 대가야의 우륵이 신라로 망명하였을 때 거칠부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이정숙, 앞의 논문, 2003 ; 앞의 책, 혜안, 2012, 46쪽 ; 백승충, 「우륵의 망명과 신라 대악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29, 2007, 165쪽 ; 유우창, 「6세기 우륵의 망명과 경계」, 『역사와 경계』 108, 2018, 59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4쪽), 해량법사가 망명할 때에도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해결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나. 러라밀약의 성립

551년 신라와 백제는 상호 연합하여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이곳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양국 사이에는 틈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 5월 무진 초하루 을해에 백제·가라·안라가 중부의 덕솔 木笏 今敦河內部阿斯比多 등을 보내어 “고(구)려가 신라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임나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해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은 천황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³²⁾

위의 기록은 신라와 고구려의 화친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기록은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³³⁾ 성립된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552년 백제는 가라·안라와 함께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와 고구려가 화친하여 백제와 임나의 멸망을 도모한다고 알리고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이 5월이었기 때문에 백제는 그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적어도 신라와 고구려가 화친하였던 시기는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이후부터 552년 5월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32)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5월 무진.

33) 일반적으로 ‘밀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429~434쪽), 화호(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0쪽), 협약(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7쪽), 통호(박윤선,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이나사마도」, 『역사와 현실』 77, 2010, 216쪽 주 1) 참조), 담판(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3쪽 주 3) 참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당사국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방법에 따라 표현한 것인데, 큰 관점에서 보면 모두 ‘동맹’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다.³⁴⁾ 아마도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직후에 이미 고구려와 밀약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 승성 3년 9월 백제 병사가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이보다 앞서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하였는데, 진흥왕이 말하기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고구려가 망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이 말이 고구려에 전해지니 고구려는 그 말에 감복하여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 그러나 백제는 이를 원망하였으므로 (신라를) 침범하였다.³⁵⁾

위의 기록은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승성 3년인 554년에 백제가 신라의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백제가 진성을 침범한 이유는 함께 고구려를 치자는 백제의 제안을 신라가 거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바탕으로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밀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⁶⁾

주목되는 것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밀약’을 주도한 것은 대체로

34) 김주성, 앞의 논문, 2000, 301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0쪽; 후보돈, 앞의 논문, 2006, 96~97쪽; 김수태, 「백제 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4, 2006, 137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앞의 책, 2014, 181쪽;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8쪽.

35)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

36) 최근에 러라밀약을 부정하는 견해와(강민식, 앞의 논문, 2014) 더불어 백제가 조작하여 만들었다거나(이영재, 앞의 논문, 2015) 또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설득력이 약하다는(임평섭, 「신라 진흥왕대 주의 폐치와 순수 -진흥왕순수비를 통해 살펴본 순수의 전략적 의미-」, 『신라문화』 48, 2016, 79쪽 주 25) 및 85쪽)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신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⁷⁾ 신라는 한강유역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고구려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시키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흥왕의 말이 고구려에 전해지면서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라보다 고구려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귀족들의 내분과 서북방지역에서 북제와 돌궐 등 이민족 침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라에게 밀약을 제안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³⁸⁾ 사실 신라는 10군을 차지한 승자의 입장이라 다소 느긋한 상황이었고,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급하였을 것이다. 고구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신라가 먼저 밀약을 제안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하고 다급하였던 고구려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진흥왕의 말이 고구려에 전해진 것은 사신 파견 등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³⁹⁾ 아마도 신라에서 활동하였던 고구려 첩자나 세작의 정보 수집의 결과와 같은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가 진흥왕의 말에 감복하였다는 표현에는 이미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하려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진흥왕의 말은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가 밀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한강유역의 진출을 위

37)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3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9~50쪽;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5쪽; 김수태, 앞의 논문, 2006, 137쪽;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8쪽. 한편 노태돈은 신라와 고구려간의 화호는 어느 편이 선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노태돈, 앞의 논문, 1976; 앞의 책, 1999, 433쪽).

38) 전덕재,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 2009, 48쪽.

39) 임평섭, 앞의 논문, 2019, 75쪽.

해 신라와 백제가 협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위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에도 신라에서는 거칠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⁰⁾ 여기에도 그의 젊었을 때의 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하여 고구려는 뚜렷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데, 551년(양원왕 7)에 돌궐의 침입을 물리쳤던 고희이나,⁴¹⁾ 557년 태자로 책봉된 양성이⁴²⁾ 참여하지 않았을까 한다. 아마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태자 양성이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들은 밀약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양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현실적인 목적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신주의 설치와 관산성 전투의 발생

가. 신주의 설치

551년 한강 상류지역에 10군을 차지한 신라는 고구려의 추가 공략을 요구하는 백제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고구려와 밀약을 제

40) 주보돈은 거칠부가 헤랑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밀약을 주도하고 성사시켰다고 하였는데(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8~99쪽),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쩌면 헤랑법사가 밀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헤랑법사의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기 바란대(願致之貴域).”라는 말에는 밀사로서의 사명이 숨어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를 수레에 태워 돌아왔다는 거칠부의 집대에서도 그에 대한 일정한 차원의 예우가 반영되어 있다. 비록 헤랑법사는 고구려의 국내 정치가 불안하여 지방으로 피신하였지만, 조국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끝내 외면하지는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선석열은 러라밀약은 거칠부와 헤랑법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고(선석열, 앞의 논문, 2013, 113쪽), 박윤선은 여러 간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에 대해 안라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나사와 마도 등으로 보았다(박윤선, 앞의 논문, 2010, 216쪽).

41)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 가을 9월.

42)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13년 여름 4월.

결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던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E-1. 가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⁴³⁾
- E-2. 조부 무력은 신주도행군총관이 되었다.⁴⁴⁾
- E-3. 가을 7월에 신라가 동북쪽의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⁴⁵⁾
- E-4. 이 해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현재 신라의 우두방·니미방이다<지명은 자세하지 않다>.⁴⁶⁾

위의 기록은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이다. 신라의 신주 설치와⁴⁷⁾ 관련하여 대체로 백제에게 빼앗은 지역의 범위, ‘동북 변경[東北鄙]’과 평양의 위치, 그리고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린[棄] 이유, 『일본서기』 기록의 시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려라밀약이 성립된 것이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하였던 직후인 551년 9월부터라고 하면 약 2년 정도,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냈던 552년 5월 이전이라고 하면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삼국은 한강유역의 진출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의 체제정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553년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가 신주를

4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가을 7월.

44)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45)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1년 가을 7월.

4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 시제.

47) 황보경, 「신주 위치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53, 1999 ; 『신라문화연구』, 주류성, 2009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향토서울』 73, 2009.

설치한 것은 한강유역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실시하여 거점지배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⁴⁸⁾ 결국 신라와 고구려는 각각 현실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을 이루었으며,⁴⁹⁾ 이러한 의미에서 러라밀약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던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F. 8월 신묘 초하루 정유에 백제가 상부의 나솔 科野新羅, 하부의 固德汶休帶山 등을 보내 표를 올려 “... 올해 문득 들으니 신라가 박국과 함께 모의하여 ‘백제와 임나가 자주 일본에 나아가니, 생각건대 군사를 빌려 우리나라를 치려는 듯하다. 이 일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패망은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일본의 군대가 떠나기 전에 안라를 공격해 빼앗아 일본과의 통로를 끊자.’라 하였고 합니다. 그 계획이 이와 같으니, 신 등이 이를 듣고 두려운 마음을 깊이 품었습니다. 바로 빠른 배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아뢰입니다. 천황께서 빨리 전군과 후군을 보내 서로 이어 와서 구원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⁵⁰⁾

48) 이와 관련하여 임기환은 고구려와 신라는 한강유역인 서울지역 지배방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고구려는 군사 거점적 성격이 훨씬 두드러졌던 것에 반하여 신라는 주민의 이주를 피하여 영역화 방향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파악하였다(임기환, 앞의 논문, 2002, 30쪽). 김영심도 고구려나 백제는 한강유역을 통치하기 위해 특별히 지방제도나 군사제도를 정비한 사실이 없었지만,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의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상주정을 설치하였다고 파악하였다(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248쪽 주 51) 참조). 이러한 견해들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방제도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지배를 추진하였음을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49) 러라밀약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가장 큰 목적은 신라는 한강유역을 장악하여 중국과 직접 통교하는 것이고, 고구려는 제라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이도학, 앞의 논문, 1987, 34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9~50쪽; 후보돈, 앞의 논문, 2006, 104쪽; 전덕재, 앞의 논문, 2009, 48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앞의 책, 2014, 181쪽).

위의 기록은 백제가 왜에 신라와 고구려의 공격 모의를 전하였다는 내용이다. 553년 8월 이전에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안라를 공격하려고 모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군을 요청하였다. 백제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곧바로 빠른 배로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다급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당시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한강 하류지역이 아니라 안라의 공격을 모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백제의 사신이 왜에 도착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다는 것은, 신라가 신주를 설치하기 이전에 백제를 출발하였음을 뜻한다.⁵¹⁾ 백제의 사신은 그 사이에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모의한다는 사실만 전하였다. 신라와 고구려가 백제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인지, 아니면 백제가 정세 판단을 잘못된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아마도 가야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백제 성왕의 대외정책을⁵²⁾ 감안하면 후자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신라의 신주 설치에 백제 성왕의 국제정세의 판단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라가 신주를 설치하였던 것은 가야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백제와의 대결 과정과 관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와 안라를 공격할 것처럼 모의함으로써 백제가 가야지역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는

50)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8월 신묘.

51)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신라의 신주 설치는 7월 말 무렵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김영삼은 백제 사신이 왜에 파견되었던 것은 한강유역을 탈취당한 이후의 기록으로 파악하였다(김영삼, 앞의 논문, 2007, 252쪽 주 56) 참조). 그렇다면 백제 사신은 신라와 고구려의 공격 모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은 사실이나 신주를 설치한 사실을 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 사신은 한강유역을 탈취당하기 이전에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2) 강종원, 「성왕의 대외정책과 551년 전쟁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57~65쪽.

일종의 기만전술을 사용하였다. 아마도 551년에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사용하였던 전술을 바탕으로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신라는 ‘무혈입성’이라고⁵³⁾ 이해할 정도로 비교적 손쉽게 이 지역을 차지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보다는 가야지역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게 선택하여 이 지역을 포기하였고,⁵⁴⁾ 이후 더 이상 한강유역으로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신라의 신주 설치의 한강유역의 확보뿐만 아니라 신라의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新’州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의 이름 앞에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주보다 특별하였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인데,⁵⁵⁾ 이것은 당시 신주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주는 진흥왕대에 처음으로 설치한 지방제도이다. 특히 진흥왕이 551년(진흥왕 12) 정월에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하고⁵⁶⁾ 추진하였던 한강유역 진출의 성공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진흥왕이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신라를 계획한 것으

53)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0~51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91~92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8쪽

54) 김수태, 앞의 논문, 2006, 138~139쪽.

55) 6세기 이후 설치한 ‘주’에 대한 기록은 505년(지증마립간 6) 실질주, 512년(지증마립간 13) 명주와 하슬라주, 524년(법흥왕 11) 상주, 525년 사벌주 등이 있다. 524년의 상주는 525년의 사벌주와 동일하지만, 1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상주는 하주와 대응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552년(진흥왕 13)에 함께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데(주보돈, 『6세기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 『한국고대사연구』 11, 1997 ;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104~107쪽), 하주는 555년에 설치되었다(『삼국사기』 권34, 지리1, 양주, 화왕군). 상주는 ‘위의 주’, 하주는 ‘아래의 주’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지리적인 기준은 경주를 중심으로 상하로 구분하였음을 물론이다.

56) 일반적으로 진흥왕은 551년 18세가 되자 왕태후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실시하면서 개국으로 연호를 개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669쪽). 그러나 진흥왕은 548년 15세가 되었을 때 친정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김덕원, 앞의 논문, 2021, 24쪽).

로, 진흥왕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⁵⁷⁾ 즉 개국이라는 연호에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진흥왕의 정치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⁵⁸⁾ 개국과 신주는 같은 해에 한강유역의 진출이라는 같은 목적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열은[開國]’ 신라의 ‘새로운 주[新州]’라고 하는 진흥왕의 정치적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신주는 진흥왕이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개국의 결과로써 한강유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주에 아찬 김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신라의 군주는 급찬~이찬까지의 관등이 임명되었는데,⁵⁹⁾ 실제로 중고기에는 사찬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군주를 거쳐야만 병부령과 상대등으로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대 제1급의 인물이 임명되었다.⁶⁰⁾ 그런데 김무력은 532년(법흥왕 19) 신라에 투항하였던 금관가야 구형(해)왕의 아들로,⁶¹⁾ ‘가야계’ 출신이었다. 이러한 김무력을 진흥왕의 정치적 이상이 깃들어 있는 신주의 군주로 삼았던 것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51년 한강유역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진흥왕의 왕권과 권위는 이전에 비하여 한층 높아졌다. 김무력도 적성지역으로의 진출⁶²⁾ 등 활발한 군사활동을 바탕으로 진흥왕대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삼을 수 있었

57) 주보돈, 앞의 논문, 2014, 190쪽 ; 「황룡사의 창건과 그 의도」, 『한국사연구』 176, 2017, 19쪽.

58)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32쪽.

59)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외관.

60) 신형식, 「신라군주고」, 『백산학보』 19, 1975 ;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212~215쪽.

6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9년 및 권41, 열전1, 김유신 (상).

62) 「적성비」에 「武力智」가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김무력이 적성지역으로 진출할 때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35쪽).

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무력은 역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칠부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진흥왕대의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진지왕대까지 이어졌다.⁶³⁾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삼았던 것은 진흥왕대의 대북속민정책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532년 금관가야 세력의 투항을 비롯하여 새롭게 복속한 적성지역의 주민들과 망명한 우륵의 대가야 세력 등을 편입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포섭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적성비」와⁶⁴⁾ 「마운령비」의⁶⁵⁾ 비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⁶⁾

이와 같이 진흥왕대에는 새로운 복속지의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영역화를 추진하면서 신라에 편입된 세력들을 포섭하여 신라화를 꾀하였다. 김무력을 신주의 군주로 삼았던 것도 이러한 진흥왕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신주에 소속된 군사들 중에는 ‘가야계’의 세력들이 존재하였던 것 같은데,⁶⁷⁾ 이들은 544년 관산성 전투에 참여하여 신라가 승리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관산성 전투의 발생

553년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가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음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

63) 김덕원, 「신라 진지왕대의 정국운영」, 『이화사학연구』 30, 2003 ;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49~50쪽 ; 임평섭, 앞의 논문, 2019, 79~80쪽.

6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35~36쪽.

6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앞의 책, 1992, 90쪽.

66) 이일규, 「신라 진흥왕대의 새 영토·주민 시책」,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282~284쪽.

67)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157~158쪽.

앗겼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의외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G-1. 겨울 10월에 백제왕의 딸을 맞아들여 소비로 삼았다.⁶⁸⁾

G-2. 겨울 10월에 왕의 딸을 신라에 시집보냈다.⁶⁹⁾

G-3. 겨울 10월 경인 초하루 기유에 백제의 왕자 여창<명왕의 아들 위덕왕이다.>이 나라 안의 모든 군대를 내어 고려국을 향했는데, 백합의 들판에 보루를 쌓고 군사들 속에서 함께 먹고 잤다. 이 날 저녁에 바라보니 커다란 들은 비옥하고 평원은 끝없이 넓은데, 사람의 자취는 드물고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갑자기 북치고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니 여창이 크게 놀라 북을 쳐 대응하였다. 밤새 군계 지키다가 새벽이 되어 일어나 텅 비었던 들판을 보니 군대가 푸른 산처럼 덮여 있었고 깃발이 가득하였다. 때마침 날이 밝자 … 모두 5기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와서 문기를 “어린아이들이 ‘우리 들판에 손님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맞이하는 예를 행하지 않는가! 우리와 더불어 예로써 문답할 만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관위를 미리 알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여창이 “성은(고려 왕실과) 동성이고, 관위는 한솔이며, 나이는 29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이때 백제는 고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머리를 창끝에 찔러 들고 돌아와 군사들에게 보이니, 고려군 장수들의 분노가 더욱 심하였다. 이때 백제군이 환호하는 소리에 천지가 찢어질 듯하였다. 다시 그 부장이 북을 치며 달려 나아가 고려왕을 동성산 위에까지 쫓아가 물리쳤다.⁷⁰⁾

6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4년 겨울 10월.

69)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1년 겨울 10월.

70)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겨울 10월.

위의 기록은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긴 이후 백제가 신라와 고구려에 대응한 내용이다.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은 신라에게는 보복 대신에 왕녀를 시집보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고구려와는 오히려 전쟁을 벌였다. 이 두 사건은 각각 신라와 고구려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라와 관련된 문제였음은 물론이다.⁷¹⁾

성왕이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은 신라에게 왕녀를 시집보낸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⁷²⁾ 따라서 이것은 대체로 신라에 대한 기만술 내지 위장전술로 이해하고 있다.⁷³⁾ 이와는 다르게 관산성 전투를 대비한 각종 고급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⁷⁴⁾ 인질의 성격인 왕녀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이며,⁷⁵⁾ 설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그것을 백제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지도 의문이다.

한편 백합야 전투는 그 시기와 위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백합야 전투의 시기는 기년을 수정하

71) 김영삼은 백제가 신라의 동맹국인 고구려는 공격하고, 신라는 왕녀를 시집보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강은 양면정책을 실시한 것이라고 하였다(김영삼, 앞의 논문, 2007, 255쪽).

72) 성왕은 왕녀를 신라에 시집을 보낼 정도로 한강유역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다. 성왕의 이러한 모습은 한강유역의 회복이 필생의 작업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거나(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3쪽), 고구려와 대결하면서 연합의 맹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발로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김영삼, 앞의 논문, 2007, 250쪽). 한편 강종원은 신라가 백제의 곤궁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왕녀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강종원, 앞의 논문, 2021, 76쪽).

73)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300쪽 ; 김갑동,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산학보』 52, 1999, 196쪽 ;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101~102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184쪽.

74) 김주성, 앞의 논문, 2000, 307쪽 ; 「관산성 전투의 배경」, 『중원문화논총』 12, 2008, 14쪽.

75) 강종원, 앞의 논문, 2021, 76쪽.

여 551년으로 보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⁷⁶⁾ 553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⁷⁷⁾ 그리고 백합야의 위치는 양주 일대로 이해하기도 하지만,⁷⁸⁾ 안성천 일대,⁷⁹⁾ 황해도나⁸⁰⁾ 황해도 蒜山,⁸¹⁾ 또는 고구려 남쪽 방면의 접경지나 변경 일대⁸²⁾ 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백합야 전투의 시기와 위치에 대한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먼저 시기에 대한 문제는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백제가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한강 하류지역 장악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즉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면 백제가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지금의 경기도 서부지역인 서해안의 한강 하류지역까지는 장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³⁾ 백제는 이 지역을 통하여 고구려의 영내로 진출하였던 것 같다.⁸⁴⁾

백제가 진출하였던 지역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료 G-3

76) 김주성, 앞의 논문, 2000, 304쪽; 김주성, 앞의 논문, 2008, 7쪽;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Ⅱ)』, 일지사, 2003, 268쪽; 김병남,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2010, 9쪽 주 12);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앞의 책, 2014, 186쪽 주 94); 강종원, 앞의 논문, 2021, 67쪽.

77)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4쪽; 주보돈, 앞의 논문, 2006, 102쪽; 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55쪽;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6쪽; 방용철, 「553년 백제-고구려의 백합야 전투 검토」, 『민족문화논총』 73, 2019, 385쪽.

78)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4쪽;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6쪽.

79)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2013, 147~148쪽.

80)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5쪽.

81) 坂本太郎 外,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1967, 106쪽; 김현구 외, 앞의 책, 2003, 267쪽.

82) 방용철, 앞의 논문, 2019, 381쪽.

83) 이인철, 앞의 논문, 1997, 25쪽.

84) 백제가 해로를 이용하여 진출하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353쪽;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116쪽).

의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백합야의 지형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이곳은 “커다란 들은 비옥하고 평원은 끝없이 넓은”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은 백제군에게도 매우 낯설었던 것 같다. 다음은 고구려군의 동향과 관련된 것으로, 백제군과의 전투 전후에 고구려군의 이동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백제가 백합야에 보루를 쌓은 지 하루 만에 고구려군이 도착하였고, 또 고구려왕을 동성산까지⁸⁵⁾ 쫓아갔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백합야의 위치는 고구려의 영내 깊숙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아마도 황해도지역인 연백평야의 배천이나 또는 재령평야의 재령 부근이 아닐까 한다.

553년에 발생하였던 두 사건은 결국 554년 관산성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단계의 성격이었다. 백제는 이러한 준비를 마친 후에 드디어 신라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H-1. 백제왕 명농이 가랑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해 왔다. 군주 각각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 군주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함에 비장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군사 2만 9천 6백명을 목 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⁸⁶⁾

H-2. (조부 무력은) …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백제왕과 그 장수 네 사람을 잡고 1만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⁸⁷⁾

85) 동성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평양 동북의 대성산으로 추정하고 있다(坂本太郎 外, 앞의 책, 1967, 108쪽; 최근영 외, 『일본 6국사 한국관계기사 역주』,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4, 112쪽 주 2); 김현구 외, 앞의 책, 2003, 267쪽).

8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

87)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 H-3.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난병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⁸⁸⁾
- H-4. 승성 3년 9월 백제 병사가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필을 빼앗아 갔다. ...⁸⁹⁾
- H-5. 겨울에 백제 웅천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⁹⁰⁾
- H-6.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천성을 공격해 왔으나 패하여 돌아갔다.⁹¹⁾
- H-7. 겨울 12월 백제가 하부의 杆率汶斯干奴를 보내 표를 올려 “... 12월 9일에 사라를 공격하러 보내면서, 신이 먼저 동방의 領인 物部莫奇武連을 보내 자기 방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산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有至臣이 데리고 온 백성 竹斯 物部莫奇委沙奇가 불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천황의 위령의 도움을 받아 이 달 9일 유시에 성을 불태우고 빼앗았으므로 한 사람의 사신을 보내 배를 달려 아웁니다.”라고 하였다. ...⁹²⁾
- H-8. ... 여창이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구타모라에 보루를 쌓았다. 그 아버지 명왕은 여창이 행군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 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였다. 어버이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스스로 가서 위로하였다. 신라는 명왕이 직접 왔음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 이때 신라에서 佐知村의 飼馬奴苦都<다른 이름은 谷智이다.>에게 “고도는 천한 奴이다. 명왕은 뛰어난 군주이다. 이제 천한 노

8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2년 가을 7월.

89)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

90)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왕 10년 겨울.

91)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위덕왕 원년 겨울 10월.

92) 『일본서기』 권19, 흙명기 15년 겨울 12월.

로 하여금 뛰어난 군주를 죽이게 하려 한다.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왕의 머리를 노의 손에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고도가 “우리나라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하였다<다른 책에는 “명왕이 胡床에 걸터앉아 차고 있던 칼을 곡지에게 풀어 주어 베게 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구차히 살 수는 없다.”라고 하고 머리를 내밀며 참수를 당했다. 고도는 머리를 베어 죽였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다른 책에는 “신라가 명왕의 두골은 남겨두고 나머지 뼈를 백제에 예를 갖추어 보냈다. 지금 신라왕이 명왕의 뼈를 복청 계단 아래에 묻었다. 이 관청을 도당이라 이름한다.”라고 하였다.>... 93)

위의 기록은 ‘한강 전역’의 마지막인 관산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관산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관련 기록들이 많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산성 전투가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⁴⁾ 그래서 관산성 전투는 대체로 7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종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⁹⁵⁾ 그 과정도 사

93)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겨울 12월.

94) 이러한 의미에서 관산성 전투는 ‘관산성 戰役’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주보돈은 관산성 싸움은 일반적으로 전투(싸움)라고 불리지만, 엄밀하게는 전쟁이라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주보돈, 「백제 성왕의 죽음과 신라의 ‘국법’」, 『백제문화』 47, 2012, 130쪽).

95)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59~60쪽; 김영심, 앞의 논문, 2007, 263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앞의 책, 2014, 195쪽.

로 H에 의하면 7월 백제의 신라 관산성 공격, 9월 백제의 신라 진성 공격, 10월 고구려의 백제 웅천성 공격, 12월 신라의 백제 공격과 성왕의 전사 등 몇 단계로 구분된다.⁹⁶⁾

관산성 전투는 백제·가야·왜와 신라·고구려가 관련되었던 대규모의 국제전이였다. 그만큼 각국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고, 상호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다양한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관산성 전투의 핵심 인물인 백제 성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즉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백제의 성왕이 장식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성왕에게는 한강유역이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백제 성왕의 동선과 관련된 것이다. 신라에서는 이미 성왕이 전선에 직접 왔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문제는 극비에 속하는 성왕의 움직임을 신라가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첩보의 내용이 성왕이 사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 이미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장 최신의 첩보이기 때문에 백제연합군의 핵심 계층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백제와 함께 관산성 전투에 참전한 대가야 세력이다.

대가야 세력들은 대내적으로는 ‘國亂’으로⁹⁷⁾ 표현될 만큼 정치세력들 사이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정국이 불안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백제와 신라로부터 계속되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특히 553년 신라의 신주 설치 이후 백제의 기대에 대한 회의감, 백제의 패배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신라의 압박에 대한 불안감 등 대내외

96) 관산성 전투는 크게 4단계와(김갑동, 앞의 논문, 1999, 201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앞의 책, 2014, 197~198쪽; 서영교, 「여창의 백제연합군과 신라의 전쟁」, 『백제문화』 55, 2016, 58~62쪽) 3단계로(양기석,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논총』 12, 2008, 35~39쪽) 구분하고 있다.

97) 『삼국사기』 권 32, 잡지1, 악, 가야금.

적으로 여러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백제에 부용되었던 ‘방관자적’인⁹⁸⁾ 대가야는 당시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주 군주인 김무력의 휘하에는 투항한 금관가야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우륵과 함께 망명하였던 대가야의 세력들도 신주의 군사로 편제되어 참전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대가야는 백제의 연합군으로 관산성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들 대가야 세력들 사이에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교감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성왕의 동정과 같은 극비 사항이 대가야 세력들에 의해서 신라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⁹⁾ 이러한 ‘가야계’의 활동은 김무력과 연결되면서 이후 그의 정치적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라에게 사로잡힌 성왕은 맹세를 여겨서 신라의 국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성왕이 어긴 맹세가 무엇인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신라에 왕녀를 시집보낸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성왕은 왕녀를 시집보내기 전에 신라에게 한강 하류지역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신라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것 같다.¹⁰⁰⁾ 그리고 성왕은 자신의 맹세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왕녀를 시집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성왕이 맹세를 어겼다면 국법을 운운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

98) 김태식, 앞의 책, 1993, 302쪽.

99) 김병남은 성왕의 죽음과 관련하여 백제 세력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을 추정하였다. 즉 당시 백제에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전쟁에 반대하거나 고구려의 해량과 같은 존재나 세력이 개입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김병남, 앞의 논문, 2010, 24쪽). 이러한 세력은 신라에 대한 공격 문제를 두고 여창과 대립하였던 ‘기로’ 세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0) 장창은, 앞의 논문, 2011 ; 앞의 책, 2014, 205~206쪽 ; 후보돈, 앞의 논문, 2012, 146쪽.

으로 추정된다.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겼던 피해자인 백제 성왕이 가해자인 신라 진흥왕에게 항의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맹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녀까지 시집을 보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백제 성왕이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열망과 집착이 얼마나 강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산성 전투는 가야지역을 둘러싸고 신라와 백제가 벌인 경쟁의 완결판임과¹⁰¹⁾ 동시에 ‘한강 전역’의 완결판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였으며, 이후 가야지역의 낙동강유역까지 장악하면서 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해안의 당항성을 중심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독자적인 대중외교를 전개하였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¹⁰²⁾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551년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의 각국 상황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1	551	정월	연호를 개국으로 개원함					
2		3	낭성으로 순행함				백제에게 보리 씨앗을 내려줌	
3		3	우륵을 불러 음악을 연주케 함					

101) 강종원, 앞의 논문, 2021, 77쪽.

102)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결과와 영향에 대한 문제는 별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4		9			돌궐이 공격함			
5		(9)	거칠부가 고구려를 침략함		신라가 10성 빼앗음			려라밀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됨
6	이해		백제 · 임나와 고구려 정벌함			백제 · 신라와 고구려 정벌함	백제왕이 신라 · 임나와 고구려 정벌함	
7	552		계고 등을 우륵에게 보내 음악을 배우게 함		장안성을 쌓음			
8		5					백제 등이 구원을 요청함	
9		10					백제 성왕이 불상 등을 보냄	
10	이해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림. 신라가 들어가 살음	
11	553	정월					백제가 군사를 요청함	
12		정월					백제의 사신이 돌아감	
13		2	월성 동쪽에 황룡사를 지음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14		6					내신을 백제에 보냄	
15		7	백제의 동북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무력을 군주로 삼음	신라가 동북쪽의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함				
16		8					백제가 구원을 요청함	
17		10	백제왕의 딸을 소비로 맞음	왕의 딸을 신라에 시집보냄			백제가 백함야새에서 고구려와 싸움	
18	554	정월					백제가 내신 등에게 군대에 대해 물음	
19		2					백제가 구원병을 요청함	
20		3					백제의 사신이 돌아감	
21		5					내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에 감	
22		6					유자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에 음	
23		7	명활성을 수리해 쌓음					

순번	연 대		국 명					비 고
	연	월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왜	
24		7	백제 성왕이 가랑과 관산성을 공격하였으나 도도가 죽음	왕이 신라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음		백제 성왕과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함	여창이 신라의 구타모라에 보루를 쌓음	『삼국사기』에는 성왕의 죽음이 7월로 기록됨
25		9	백제가 진성을 공격함					
26		10		고구려가 웅천성을 공격함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함			『삼국사기』에는 위덕왕대로 기록됨
27		12					함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음	『일본서기』에는 함산성으로 기록됨
28		12					신라의 고도가 성왕을 죽임	『일본서기』에는 성왕의 죽음이 12월로 기록됨
29		12					여창이 셋길로 도망하여 돌아옴	

4. 맺음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은 551년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부터 554년 관산성 전투까지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한강 戰役(551~554)’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한강 전역’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반기는 551년 한강유역의 진출부터 553년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기 전까지로, 이 시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과정이고, 거칠부가 활동하였다. 그리고 후반기는 553년 신라의 신주 설치부터 554년 관산성 전투까지로, 이 시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이고, 김무력이 활동하였다. ‘한강 전역’의 특징은 백제·신라·가야·고구려·왜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였던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라가 백제와 한강유역의 진출을 협의하였던 시기는 550년 후반기 무렵에 백제 성왕이 한강유역의 진출 계획을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구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였던 거칠부 등이 공략 시기와 지역, 방법 등의 군사 작전을 비롯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략 시기는 신라와 백제가 동시에 고구려를 공략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 공략 지역은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백제가 한강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구분하였다. 양국은 공략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고구려의 방어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공략 방법은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고, 일정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상이한 지역을 공략하는 위장전술 또는 기만전술을 사용하여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신라와 백제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던 시기는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9월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인물은 거칠부인데, 젊었을 때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신라가 고현(지금의 철령)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경험이 반영되었고, 이 부근에서 활동하였던 헤량법사를 만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신라와 백제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얼마 후부터 틈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직후에 고구려와 밀약이 추진되었던 것 같다. 주목되는 것은 ‘밀약’을 주도한 것은 대체로 신라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고 다급하였던 고구려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구려가 진흥왕의 말에 감복하였다는 표현에는 이미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하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진흥왕의 말은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신라는 려라밀약을 바탕으로 553년 백제의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 신라가 신주를 설치한 것은 한강유역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실시하여 거점지배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신라와 고구려는 각각 현실적으로 추구하였던 목적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려라밀약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백제는 553년 8월 이전에 신라와 고구려가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백제 성왕의 국제정세의 판단 실패에 따라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겼다.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보다는 가야지역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게 선택하여 이 지역을 포기하였고, 이후 더 이상 한강유역으로는 진출하지 못하였다.

신라의 신주 설치는 신라의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주는 진흥왕의 개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개국과 신주는 같은 해에 한강유역의 진출이라는 같은 목적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열은[開國]’ 신라의 ‘새로운 주[新州]’라고 하는 진흥왕의 정치적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신주는 진흥왕이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개국의 결과로써 한강유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주에 ‘가야계’인 김무력을 군주로 삼았던 것은 그의 활발한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복속된 지역을 영역화하고, 복속민들을 포섭하여 신라화를 꾀하려는 대복속민정책과도 관련되었다. 이후 김무력은 역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거칠부와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진흥왕대의 정국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553년 신라에게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긴 백제는 신라에게는 보복 대신에 왕녀를 시집보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고구려와는 백합야 전투를 벌였다. 이 두 사건은 554년 관산성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성격이었다. 백합야의 위치는 고구려의 영내 깊숙한 지역인 황해도 연백평야의 배천이나 재령평야의 재령 부근으로 추정된다.

554년 백제는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면서 반격을 시도하였다. 관산성 전투는 대규모의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였던 다양한 상황도 발생하였는데, 가장 극적인 상황은 관산성 전투의 핵심 인물인 백제 성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즉 ‘한강 전역’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백제의 성왕이 장식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성왕에게는 한강유역이 숙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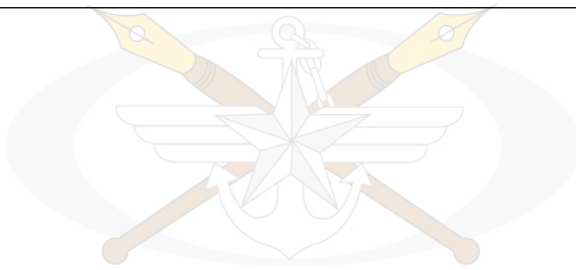
신라에서는 이미 성왕이 전선에 직접 왔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대가야 세력인데, 신주의 군사로 편제된 가야세력과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대가야 세력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형성되어 성왕의 동정을 신라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산성 전투는 가야지역을 둘러싸고 신라와 백제가 벌인 경쟁의 완결판임과 동시에 ‘한강 전역’의 완결판이기도 하였다. 신라는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였고, 이후 가야

지역의 낙동강유역까지 장악하면서 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해안의 당항성을 중심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독자적인 대중외교를 전개하였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원고투고일 : 2021. 9. 29,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진흥왕, 성왕, 한강유역, 한강 전역, 려라밀약, 관산성 전투



〈참고문헌〉

1. 저 서

- 김덕원, 『신라중고정치사연구』, 경인문화사, 2007
<http://www.uci.or.kr/G701:B-00089321002>
- 김수태, 『백제의 전쟁』, 주류성, 2007
<http://www.uci.or.kr/G701:B-00091458687>
-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http://www.uci.or.kr/G701:B-00047889091>
-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Ⅱ)』, 일지사, 2003
<http://www.uci.or.kr/G701:B-00077624799>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http://www.uci.or.kr/G701:B-00060576971>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http://www.uci.or.kr/G701:B-00091429370>
- 이정숙, 『신라 중고기 정치사회 연구』, 해안, 2012
<http://www.uci.or.kr/G701:B-00093246482>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http://www.uci.or.kr/G901:A-0006492644>
- 최근영 외, 『일본 6국사 한국관계기사 역주』,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4
<http://www.uci.or.kr/G703:RA101-01100601,199501170000 01201:1>
- 최종택,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013
<http://www.uci.or.kr/G901:A-0006476779>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Ⅱ,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http://www.uci.or.kr/G901:A-0008423223>
- 坂本太郎 外,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67

2. 논 문

-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棄]와 신라고구려의 밀약설」, 『선사와 고대』 40, 2014
<http://doi.org/10.23024/pah.2014..40.139>
- 강종원, 「성왕의 대외정책과 551년 전쟁 배경」, 『한국고대사탐구』 37, 2021
- 김갑동,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 『백산학보』 52, 1999
- 김덕원, 「신라 진지왕대의 정국운영」, 『이화사학연구』 30, 2003
<http://www.uci.or.kr/G704-001256.2003..30.032>
- _____,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1>
- 김병남,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2010
<http://www.uci.or.kr/G704-002047.2010..36.006>
- 김수태, 「백제 성왕대의 변경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44, 2006
<http://www.uci.or.kr/G704-000844.2006..44.009>
- 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http://www.uci.or.kr/G300-cX1411133.vn0p143>
- 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http://www.uci.or.kr/G901:A-0005994844>
- _____, 「관산성 전투의 배경」, 『중원문화논총』 12, 2008
-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1981
- _____,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http://www.uci.or.kr/I410-ECN-0101-2009-911-018386411>
- 박윤선,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이나사마도」, 『역사와 현실』 77, 2010
<http://www.uci.or.kr/G704-000054.2010..77.002>
- 방용철, 「553년 백제 · 고구려의 백합야 전투 검토」, 『민족문화논총』 73, 2019
<http://doi.org/10.15186/ikc.2019.12.31.10>
- 백승충, 「우륵의 망명과 신라 대악의 성립」, 『한국문화연구』 29, 2007
-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http://www.uci.or.kr/G704-SER000000776.2013.44.007>
- 양기석,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논총』 12, 2008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http://doi.org/10.35300/bjclab.1.48.201302.129>
- 유우창, 「6세기 우륵의 망명과정」, 『역사와 경계』 108, 2018
- 이도학, 「신라의 북진전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 1987
<http://www.uci.or.kr/G701:C-00056342882>
- 이영재, 「려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http://www.uci.or.kr/G704-000848.2015..80.008>
- 이인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정에 대한 고찰」, 『향토서울』 57, 1997
<http://www.uci.or.kr/G901:A-0001192831>
- 이일규, 「신라 진흥왕대의 새 영토 · 주민 시책」, 『한국고대사연구』 96, 2019
<http://doi.org/10.37331/JKAH.2019.12.96.249>
- 이정숙, 「진흥왕대 우륵 망명의 사회 정치적 의미」, 『이화사학연구』 30, 2003
<http://www.uci.or.kr/G704-001256.2003..30.012>
- 임기환, 「고구려 · 신라의 한강 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 2002
<http://www.uci.or.kr/G704-001254.2002..18.005>

- 임평섭, 「신라 진흥왕대 주의 폐치와 순수 -진흥왕순수비를 통해 살펴본
순수의 전략적 의미」, 『신라문화』 48, 2016
<http://www.uci.or.kr/G704-001251.2016.48.48.005>
- _____, 「진흥왕 집권 초기의 정치구도와 한강 유역 진출」, 『신라문화』
53, 2019
<http://doi.org/10.37280/JRISC.2019.02.53.57>
- 장창은,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관산성 전투」 『진단학보』 111, 2011
<http://www.uci.or.kr/G704-000336.2011..111.003>
- 전덕재,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신라문화』 34, 2009
<http://www.uci.or.kr/G704-001251.2009.34.34.003>
-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 _____, 「백제 성왕의 죽음과 신라의 ‘국법」」, 『백제문화』 47, 2012
<http://doi.org/10.35300/bjclab.1.47.201208.129>
- _____, 「거칠부의 출가와 출사」, 『한국고대사연구』 76, 2014
<http://www.uci.or.kr/G704-000848.2014..76.006>
- _____, 「황룡사의 창건과 그 의도」, 『한국사연구』 176, 2017
<http://www.uci.or.kr/G704-000361.2017..176.001>
- 황보경, 「신주 위치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53, 1999

(Abstract)

The process of advance into the Han River basin during the period of King Jinheung of Silla Dynasty

Kim, Deok-won

The process of advancing into the Han River basin of King Jinheung of Silla ranges from the time of advancing into the Han River Basin in 551 to the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 in 554. This can be referred to as 'the Han River Military Campaign(한강 戰役[551-554])' of that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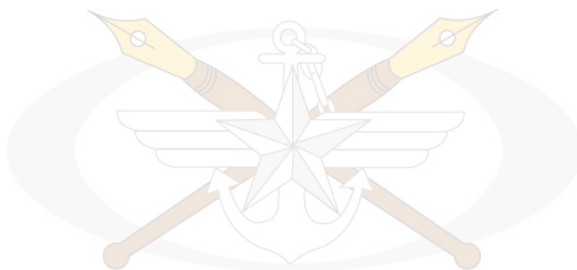
The two countries of Silla and Baekje would carry out surprise attacks to break up Goguryeo's defense system, using camouflage tactics and deception ones. At this time, Geochilbu(거칠부)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and his experience of youth was very helpful for doing his duty.

In 553, Silla took away Baekje's frontier area and set up Sinju(新州) which means new area of state. In the same year, Founding the Country(開國) and Sinju had a common aspect in that they were performed with the same goal of advancing into the Han River basin. In other words, it reflected King Jinheung's political ideal of 'a new ju(신주)' of Silla which 'opened a new state(개국)' different from before. Sinju has a meaning that symbolizes the Han River basin itself as a result of the country's founding. And Kim Mu-Ryuk(김무력) was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Sinju, which is related to the policy of subjugation of people of the region.

In 554, Baekje attacked Gwansanseong Fortress of Silla, and Silla was preparing for this in advance by obtaining information that King 'Seong' had come directly to the front line. At that time, it is presumed that a certain sympathy was formed between the Gaya forces, which were organized as the military power of Sinju, and the Daegaya forces, who participated in

the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 and conveyed King Seong's movements.

Keywords : King Jinheung(진흥왕), King Seong(성왕),
Han River basin(한강유역), Han River Military Campaign(한강 전역),
Goguryeo between Silla a secret sgreement(러라밀약),
Battle of Gwansanseong Fortress(관산성 전투)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143-184
<https://doi.org/10.29212/mh.2021..121.1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 연구

양성민*

1. 머리말
2. 중장기병의 정의
3. 한국 고대의 말과 중장기병
4.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대보병 전술
5. 중장기병의 대기병 전술과 작전
6. 맺음말

1. 머리말

중장기병(重裝騎兵)은 무겁게 갖춘 기병을 뜻한다. 이들은 창이나 검, 도(刀)와 같은 무기들을 사용, 적진으로 돌격하거나 투창 돌격 전술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는 병종으로 여겨진다¹⁾.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발굴조사단 연구원

1) 송영대, 2018, 「高句麗 南征 이후 新羅·加羅의 전술 변화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No.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한국 고대 기병 및 중장기병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장비와 관련된 고고학 연구, 그리고 기병의 전술 및 전략 전반을 다룬 연구²⁾로 구분된다. 전자엔 마갑³⁾, 기병의 무장형태⁴⁾, 유물 조합 양상을 바탕으로 한 군사체제의 변화 속에서의 중장기병⁵⁾, 유물 조합 및 사료를 통해 본 병종의 분류와 전술적 의의⁶⁾, 고분벽화 및 고고자료를 이용, 고구려 중장기병을 전반적으로 살핀 연구⁷⁾ 등이 속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중장기병, 그리고 기병이 전쟁 및 전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행렬도상의 병종배치를 근거로 중장기병 전술을 분석하기도 하며⁸⁾, 고고자료 및 벽화고분에 근거해 중장기병이 밀집대형을 구성, 적 정면에 충돌하거나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이야기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또 적 정면에 충돌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⁹⁾. 또한 기병의 형식을 설정, 전술을 언급하는 연구에서도 각각의 전술에 관한 정의 및 방식은 다루고 있지 않다¹⁰⁾. 즉 기존 연구들은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戰術), 즉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유추하기 힘든 고고자료 그리고 극소

2) 이흥두, 2020, 『한국 기마전 연구』, 혜안.

3) 장경숙, 2009, 「말갑옷(馬甲) 연구시론」, 『學藝誌』 第16輯, 육군박물관.

김성호, 2019, 「삼국시대 마갑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4) 장경숙, 2003,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주」, 『慶州文化研究』, Vol.6,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5) 이현주, 2005, 「三韓·三國時代 釜山地域 軍事體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6) 류창환, 2010, 「三國時代騎兵과 騎兵戰術」, 『한국고고학보』 제76집, 한국고고학회.

7) 정동민, 2007,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중장기병의 변화와 운용형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8) 정동민, 2007, 앞의 글, pp.49~53

9) 李蘭映, 金斗哲,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p.228

정동민, 2008,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 -古墳壁畫資料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2. p.388, 389

10) 류창환, 2010, 앞의 글.

수만 남아있는 관련 문헌사료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서술만을 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 고대 중장기병이 전투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했으며, 마갑이라는 무거운 장비를 추가하면서까지 중장기병이 등장해야 했던 이유, 중장기병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방법, 더 나아가 기병 전술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서술 속에서 중장기병 개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자신의 전공을 입증했는지 등을 파악, 이를 기반으로 한국 고대 중장기병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고고, 회화자료, 서양 고대~근대의 전쟁을 분석한 근현대 연구들, 송나라, 명나라 시기의 병법서, 조선의 병법서와 같은 후대의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비교사적 검토를 실시, 이를 토대로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전술을 거칠게나마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중장기병의 정의

국내에선 일반적으로 중장기병을 말까지 갑주를 갖춘 기병으로 정의한다. 이와 달리 서양 학계에선 마갑을 갖추지 않은 중장기병과 마갑을 갖춘 중장기병을 구분하며, 양자의 차이 및 용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¹¹⁾. 국내에서도 고구려 고분벽화를 포함, 다양한 고고자료 및 문헌사료들을 이용해 4개의 기병형식을 구분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해당 연구에선 고대 기병을 활을 쏘는 기병,

11) M, Mielczarek, 1993, 『*Cataphracti and Clibanarii, Studies on the Heavy Armoured Cavalry of the Ancient World*』, Oficyna Naukowa MS.
R. D'amato, A. Negin, 2018, 『*Roman Heavy Cavalry (1): Cataphractarii & Clibanarii, 1st Century BC-5th Century AD*』, Osprey Publishing. p.21, 22

장창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기병, 갑주를 갖춘 기병, 그리고 마갑까지 모두 갖춘 기병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기병은 흔히 중기병(Heavy Cavalry)과 경기병(Light Cavalry)으로 구분되며,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다. 그러나 후기 고대 로마¹³⁾, 중세에도 두 기병이 각자의 역할을 근거로 구분되는 경향 자체는 확인된다. 또한 『삼국사기』에도 경기(輕騎)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 고대에도 양자는 구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중기병과 경기병의 구분은 마갑의 유무가 아닌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근거한다. 또한 마갑 착용 여부는 기병이 수행하는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즉 마갑을 착용해서 중기병인 것이 아니라, 중기병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갑을 착용한다. 유럽의 경우 철제 마갑이 완전히 사라진 중세 이후에도 중기병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전과 거의 같다¹⁴⁾. 다만 서양 고대, 중세, 한국 고대와 같이 마갑을 포함한 갑주들을 갖추 수 있고 이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계층이 사회 내에서 한정되는 경우엔 특정 집단이 중기병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¹⁵⁾. 이럴 땐 갑주의 착용 여부, 즉 해당 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기병이 될 수 있는가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갑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기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본고에선 중기병 안에 말과 병사 모두 갑

12) 류창환, 2010, 앞의 글.

13) 후기 고대 로마의 군정, 행정 문서인 『노티티아 디그니타툼(Notitia Dignitatum)』에는 중무장 기병인 카타프락타리(Cataphractarii), 클리바나리(Clibanarii)와 더불어 경기병에 가까운 마궁수인 에퀴테스 사기타리(Equites sagittarii)가 명시되어 있다.

14) J. Tincey, 2002, 『*Ironsides: English Cavalry 1588-1688*』, Osprey Publishing.

15) 영남지역 각 고분군, 대표적으로 부산 복천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함안 도항리 고분군, 경주 쪽샘지구 등에서 확인되는 갑주 및 마갑이 부장된 고분들은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의 무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를 갖춘 경우, 말은 갑주를 갖추지 않고 기병만 갑주를 갖춘 경우 모두를 포함시키겠다¹⁶⁾. 다만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기병 대신 중장기병이라는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중장기병은 적진에 대한 충격 및 우회, 섬멸 전술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수행하는 기병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대로 경기병은 전투에서 적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회피, 적에 대한 산병전(散兵戰, Skirmishing) 및 기동 방해, 정찰과 같은 간접적 접촉을 수행하는 기병으로 정의된다.

3. 한국 고대의 말과 중장기병

가.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의 말

말은 체고가 높을수록 무게도 무거워진다. 이를 근거로 현대에는 말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다¹⁷⁾. 한국 고대 말은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조랑말과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¹⁸⁾. 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말은 체고가 120~136cm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크기의 말은 대략 250~350kg 정도의 무게를 가진다. 현대의 경주말인 서러브레드(Thoroughbred)의 무게가 약 550kg인 것을 감안하면, 고고학 자료를 통해 알 수 있

16) 마갑 중장기병의 경우 전술적 활용의 폭이 좁은 편이기에 서양에서는 마갑 기병을 초중장기병(Super Heavy Cavalry, Extra-Heavy Cavalry)으로, 반대는 중기병(Heavy Cavalry)로 구분하기도 한다.

17) B. Mckiernan, 2007, 「*Estimating a horse's weight*」, 『*Primefacts*』 494,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B. Cumming, 2009, 「*Estimating a horse's condition and weight*」, 『*Primefacts*』 928,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1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말, 갑옷을 입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36~38

는 한국 고대의 말은 작고 왜소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나. 말과 중장기병

대규모 기병을 운용할 수 있었던 근대엔 기병에게 각자 임무에 맞는 크기의 말들을 지급했다¹⁹⁾. 그 이유는 더 큰 말이 더 덩치가 큰 사람과 더 많은 장비를 등에 실은 채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몸무게의 약 20%까지 싣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²⁰⁾. 현대 일부 국가에서는 10%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대형 종이 존재하지 않았던 고, 중세에는 오늘날의 경형마 또는 대형 조랑말에 속하는 비교적 작은 말들이 전투에 사용되었다. 또한, 과거의 기병들은 무거운 장비를 소지한 채 전투를 수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움직이면 말에게 무리를 주는 30%까지도 허용되었다²¹⁾.

월성에서 확인된 말의 무게는 약 250~350kg 정도다. 이때 한계선인 30%의 무게를 적용하면 약 75~105kg이 된다. 마갑 중장기병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장구들은 그 종류도 많으며 철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다수다. 각각의 장구들이 완전하게 보존된 사례가 없기에 고대 한반도의 말이 전투상황에서 감당해야 했던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대략적으로라도 살펴보

19) R. B. Bruce et al, 2008 『*Fighting Techniques of the Napoleonic Age 1792-1815: Equipment, Combat Skills, and Tactics*』, Thomas Dunne Books, pp.87~90

20) B. S. Bachrach 2002, 『*CABALLUS ET CABALLARIUS in Medieval Warfare*』, 『*Warfare and Military Organization in Pre-Crusade Europe*』, Routledge, p.177

21) J. Gassmann 2018, 『*Combat Training for Horse and Rider in the Early Middle Ages*』, 『*Acta Periodica Duellatorum*』 Vol. 6, Sciendo, p.72

면, 사람 무게 약 60kg, 사람이 입는 갑주 20~30kg, 마갑 30~40kg, 마구류 10~20kg²²⁾, 그리고 기타 각종 무기류, 장신구들을 합쳐서 약 5~10kg 정도 된다 가정해보자. 이 경우 마갑 중장기병의 말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약 120~150kg 정도다. 이는 가장 가벼운 말은 몸무게의 50% 이상, 무거운 말은 약 35~42% 정도에 해당되는 무게다. 만일 마갑을 입히지 않는다면 전자는 약 36~44%, 후자는 25~31%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이 경우 큰 조랑말은 말에게 무리는 가겠지만, 일반 중장기병의 전투마로는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경주 월성에서 확인된 조랑말들은 마갑 중장기병의 말로 활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월성에서 확인된 크기가 작은 조랑말들은 전투용이 아닌 일상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 회전(會戰) 상황에서 마갑 중장기병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서양 중세 기사들이 평상시, 행군 때는 전마 대신 작은 조랑말들을 타고 다녔다는 연구²³⁾, 기마술에 뛰어난 유목민들도 평시에는 전마에 타지 않고 전투 직전에만 탔다는 연구²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고구려 고분벽화, 신라, 가야 여러 고분에서 확인되는 마갑들은 실전용이 아닌 의례용이었을까? 고구려를 포함한 고대국가들, 고려, 조선과 같은 후대 왕조들은 국가의 중요 전력인 기병을 확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 중에는 중장기병에게 걸맞은 말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²⁵⁾. 기병, 그 중 마갑 중장기병에게 어울리는 말은 고대엔 호마(胡馬)로 불렸다. 호마의 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속일본기(續日本記)』

22) 현대 승마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구의 합이 약 20kg 정도 된다.

23) D. Nicolle 2011, 『European Medieval Tactics, Vol. 1: The Fall and Rise of Cavalry 450-1260』, Osprey Publishing. p.43, 44

24) 徐榮教, 2004, 「高句麗 壁畫에 보이는 高句麗의 戰術과 武器 -기병무장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7, p.353

25) 이흥두, 2013, 「고구려 胡馬의 유입과 鐵騎兵」, 『역사와실학』 Vol.51, 역사실학회.

716년 6월 기사엔 신라가 자표마(紫驃馬) 2마리를 일본에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당 말의 크기는 5천 5촌, 즉 165cm²⁶⁾이라 전해진다²⁷⁾. 또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현대 품종들의 크기가 최소 152cm를 넘기는 경형마(Lighter horse)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²⁸⁾, 호마의 크기도 최소 152cm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최소 350kg, 종에 따라서는 최소 430kg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²⁹⁾. 430kg의 경우 마갑을 입혔을 때 27~34%이다.

다만 430kg은 현대에 군마로 사육돼 나온 말들을 측정한 수치기 때문에 고, 중세의 말들은 이보다 가벼울 것으로 추측된다³⁰⁾. 또한 고고학 조사를 통해 서양 고대 전마 중 하나의 체고가 약 148cm, 무게는 약 400kg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³¹⁾. 그러므로 한국 고대 호마의 무게도 약 350~400kg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00kg의 경우, 마갑을 입혔을 때 약 30~37%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말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무게는 아니나, 여전히 장시간 움직이면 무리가 가는 무게다.

결론적으로 마갑 중장기병의 무게는 전투를 위해 서역에서 도입된 호마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이는 마갑 중장기병의 전술적 활용 폭을 좁히는 요소로 작용했다.

26) 서영교, 2017,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항도부산』 no.33,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p.125

27) 다만 이 체고가 오늘날의 기준인 발굽에서 어깨까지의 높이인지, 발굽에서 머리까지의 높이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더 작은 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8) E. H. Edward, 2016, 『The Horse Encyclopedia』, DK. pp.99~103

29) R. C. Obrecht, 1908, 『Market Classes and Grades of Horse and Mules』, 『Bulletin』 No. 122 University Of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92

30) 근대 경기병들이 타던 말은 중세, 고대에는 대형마로 취급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무게를 가지고 있다.

31) J. Gassmann 2018, 앞의 글. p.68

4.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대보병 전술

가. 전술의 간략한 정의

한국 고대 중장기병 전술을 알아보기 전 전술을 간략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Vom Kriege)』에서 전술을 전투력을 운용하는 방법의 가르침, 전략을 전쟁목적을 위해 전투를 운용하는 방법의 가르침으로 정의했다. 또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위’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략은 국가 혹은 집단이 적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전투들을 활용하는 방법, 전술은 전투 내에서 전투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문제로 정의된다.

이때 전술은 편제, 지휘체계, 무기체계, 보급체계와 뿐 아니라 적과 마주했을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도 포함된다. 또한 전술은 특정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다시 고려하는 행위, 행동을 강요하는 상황을 극복해내는 방법 등 전투에서 발생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무기를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 적과 마주쳤을 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 관습 등도 전술에 해당된다. 본고에선 이 개념에 입각, 먼저 중장기병의 대보병 전술을 살펴본 후, 대기병 전술, 그리고 중장기병과 군사작전 순으로 한국 고대 중장기병의 전술을 알아보겠다.

나. 중장기병 대 보병

중장기병 전술을 알기에 앞서 가장 먼저 말의 행동과 습성을 파악해야 한다. 말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면 도약한다³²⁾.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거나 장애물 옆으로 통과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옆으로 지나간다³³⁾. 매체 등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말과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적의 방진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말 그리고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존 본능과 맞지 않다. 특히 보병보다 숫자가 적은 경우가 일반적인 기병은 이러한 상황에 더 심한 거부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적과 직접적인 접촉을 수행하는 중장기병들은 적과 닿지 않으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즉 석(槊)과 같이 길이가 긴 창을 선호한다. 현대인 20세기까지도 기병이 창을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만큼 창과 중장기병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마상에서 창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4개로 나뉜다. 첫 번째는 한쪽 팔을 위로 들고 팔꿈치를 굽힌 뒤, 창을 쥐고 찌르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한쪽 팔을 허리 아래쪽으로 늘어뜨린 뒤, 창을 쥐고 찌르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창을 양손으로 잡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카우치드 랜스(Couched lance)라 불리며 겨드랑이 또는 허리춤에 창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32) H. Waring 2003, 『Horse Behavior』, William Andrew Publishing. p.49

33) J. Gassmann 2018, 앞의 글. p.74

〈그림 1〉 마상창 사용예시 ① (1: 국보 제275호 기마 인물형 뿔잔, 2: 티투스 플라비우스 바수스(Titus Flavius Bassus) 묘비석, 3: 알렉산더 모자이크(Alexander Mosaic), 4: 레우카디아(Lefkadia) 킨치 무덤(Kinch Tomb)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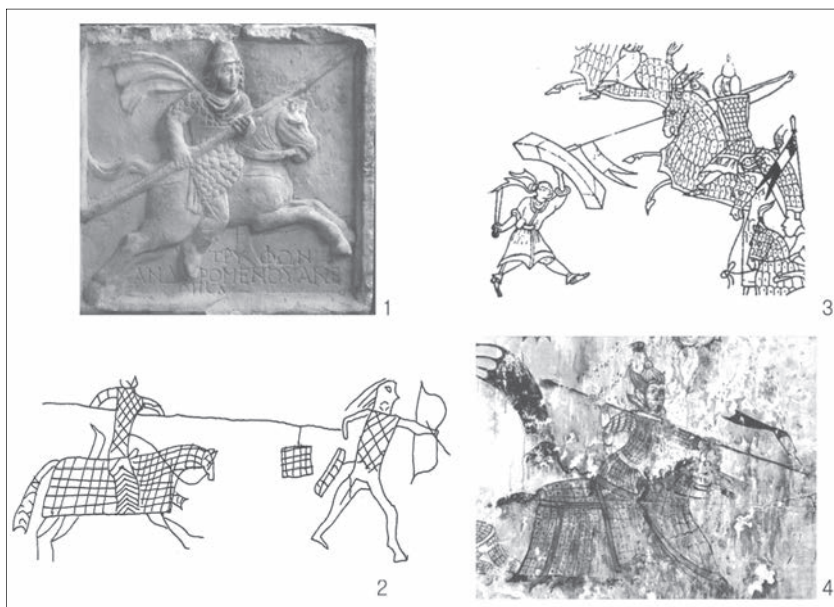
- 34) 2. 티투스 플라비우스 바수스는 트라키아(Thracia) 사람인 무칼라(Mucala)의 아들로 26년간 로마군에서 기병으로 복무하다 46살에 죽었다. 묘비석의 연대는 기원후 70~96년으로 추정되며 현재 로마-독일 박물관(Römisch-Germanisches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3. 알렉산더 모자이크는 폼페이 파우누스 저택에서 확인되었다. 모자이크의 제작연도는 기원전 2세기로 보이거나 기원전 4세기 그리스 화가의 그림을 모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Alexander_Mosaic
 4. 마케도니아(Macedonia) 왕국 당시 조성된 무덤으로 기원전 4~3세기 무덤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 <http://history-of-macedonia.com/>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인간이 말 위에 올라타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용한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김해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에서 확인된다. 한쪽 손에는 방패, 한쪽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방식의 창술이 고대 한반도에도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 ‘기마 투창돌격 전술’이 한반도 남부의 주된 기병 전술이라는 연구가 있다³⁵⁾. 그러나 이는 투창만을 위한 자세라기보다는 다른 기병들의 사례와 같이 창을 찌르는 동시에 여차하면 던지기 위한 자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손으로 창을 잡는 방식과 관련된 고고학, 회화 자료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확인된다. 이 방식은 창을 양손으로 잡기 때문에 매우 긴 창을 쓰더라도 무게중심을 잡는 데 유용하다. 고대 한반도에선 고구려 고분벽화에 창을 양손으로 쓰는 모습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삼실총의 공성도, 통구 12호분 중장기병이 창을 쓰는 모습, 덕흥리 고분벽화에서 창머리를 위로 한 채 양손으로 들고 행진하는 중장기병의 모습이 있다. 또한, 돈황 석굴벽화에서도 보병을 공격하는 중장기병이 창을 양손으로 잡고 창머리를 아래로 해 보병을 공격하는 모습이 보인다. 즉, 한반도 남부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고대 동아시아에선 창을 양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5) 송영대, 2018, 앞의 글. p.28, 29

〈그림 2〉 마상창 사용예시② (1:트리폰(Trifon) 묘비석, 2:알타이(Altai) 지역 초기 튀르크(Truk) 암각화(D. Nicolle, 2017), 3: 둔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 285호 벽화, 4: 통구 12호분)³⁶⁾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12세기 중엽 유럽 중장기병들이 발명한 이후 유럽 및 유럽 군사문화에 영향을 받은 지역들에선 보편적으로 사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명나라 가정 5년(1526년)에 그려진 그림에서 기병들이 창을 양손에 들고 싸우는 모습이 보이며, 1790년 조선 시대에 간행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도 이 방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측된다. 즉 한국 고대 중장기병들도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36) 1. 안드로메노스(Andromenos)의 아들 트리폰의 묘비석. 돈(Don) 강 하류의 그리스 도시인 타나이스(Tanais) 유적에서 확인됨.

사진출처: <http://www.encyclopediaofukraine.com>

한국 고대 중장기병이 전장에서 어떻게 포진했는지는 알 수 없다. 타지의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중앙에 보병이 위치하고 좌우의 기병이 배치되는 식³⁷⁾, 또는 기병이 주력이었던 유럽 중세처럼 보병 앞쪽에 기병이 배치된 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⁸⁾.

중장기병은 돌격 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병의 돌격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밀집대형을 갖추고 걷기(Walk), 혹은 구보(Canter)로 나아가는 단계다. 기병의 돌격은 밀집된 상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근대의 기병들에겐 서로 ‘무릎과 무릎이’ 닿을 정도로 밀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고대 중장기병이 밀집대형을 이루는 장면은 약수리 벽화고분 행렬도에서 확인된다. 행렬도에서는 기병들이 1열 횡대를 이루고 있고, 서로 부딪힐 정도로 밀집하고 있다. 밀집대형을 이루는 방식은 시대 및 지역마다 다양하다. 2열의 횡대를 이루는 경우, 췌기 대형을 이루는 경우 등등이 있다. 다만 고구려 벽화고분으로 알 수 있는 대형은 횡대를 이루는 경우, 그리고 행진을 위해 종대를 구성하는 경우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송(宋)나라 시기 편찬된 병서 『무경총요(武經總要)』에선 4열 횡대, 혹은 5열 종대 등의 기병대형이 보인다. 즉 한국 고대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밀집대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속보(Trot)로 적 진형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다.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면 마지막 단계인 질주(Gallop)를 시작한다. 이 두 과정에서 만일 중장기병이 활을 장비하고 있다면 화살을 발사했을 것이다. 실제로 돈황 막고굴 벽화의 마감 중장기병은 전통(箭筒)을 장비하고 있으며, 마상궁술

37) N. P. Milner, 2001, 『*Vegetius: Epitome of Military Science*』, Liverpool University Press. p.98

38) M. Bennett, 2006, 『*Fighting Techniques of the Medieval World*』, Thomas Dunne Books, St. Martin's Press. p.96, 100

문화가 강한 유목민들은 마갑 중장기병도 활을 장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선 이러한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반도 남부 각 고분에선 마갑과 철촉이 같이 부장되는 경우가 흔하며, 합천 옥전 28호, M1호에선 성시구가 마갑과 공반되고 있다.

마지막 과정에서 중장기병은 창을 적에게 겨눈다. 이후 말이 적진 앞에서 멈추기 전에 기병의 속도, 질량을 적에게 최대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돌격이 마무리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마지막 과정인 질주는 생략되곤 한다. 질주를 시작하면 말들은 옆 말과 부딪히는 걸 피하고자 본능적으로 서로 거리를 벌리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속도 또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밀집대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³⁹⁾.

중장기병이 돌격하는 동안 말과 기병을 노리고 적 정보병들이 중보병 진형 사이 혹은 전방에서 산병전을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날아오는 화살, 투창, 투석구, 다트(Dart)와 같은 투척, 투사무기들은 갑옷을 입지 않은 말이나 병사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다. 반면에 마갑 중장기병들은 적의 투사무기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중장기병 돌격이 적 진형에 일으키는 충격은 물리적 충격과 심리적 충격으로 나뉜다. 물리적 충격은 접촉 전에 발사한 화살 및 투창 그리고 내지른 창과 같은 무기에 의한 사상자를 뜻한다. 마갑은 보병과 중장기병이 서로 가까워지는 기간, 그리고 접촉하는 순간 발생하는 보병의 대항행위로부터 기병의 생명인 말을 지켜주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러나 냉병기가 주를 차지했던 전근대의 전장에선 쌍방의 공격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 내에서 매우 작은 비중만 차지한다. 그보다는 한쪽 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39) B. Nosworthy, 1997, 『Battle Tactics of Napoleon and His Enemies』, Constable & Robinson, p.273

발생하는 추격, 섬멸전에서 사상자 대부분이 발생한다⁴⁰⁾. 쌍방의 공격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 내에서도 화살, 투석구 등과 같은 투사무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창, 칼과 같은 근접병기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⁴¹⁾.

〈그림 3〉 헤이스팅스 전투. 앵글로-색슨 방패벽과 노르만 기병,
『바이외 테피스트리(Bayeux Tapestry)』



그러므로 돌격의 물리적 충격만으로 적 진형을 붕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보다는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심리적 충격, 그리고 돌격이라는 행위 자체가 발생시키는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 적 진형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병 돌격의 주목적이다. 실제로 전근대 전쟁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도 적의 전투의지를 꺾는 것이 물질적인 파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⁴²⁾. 더불어 전근대 전투에선 보병이 밀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적의 전투의지를 꺾어야만 적을 물질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틈이 발생한다.

전투상황에서 각각의 병사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전투가 만들어 내는

40) A. du Picq, 2005, 『Battle Studies, Ancient and Modern Battle』, The Project Gutenberg EBook(<https://www.gutenberg.org/ebooks/7294>).

41) 鈴木貞哉, 2001, 『謎とき日本合戦史—日本人はどう戦ってきたか』, 講談社現代新書.

42) 임종화, 「1차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 장군 군사사상의 현대적 함의」, 『산업진흥연구』, Vol.5, no.2, pp.88~91

어마어마한 소음, 그리고 눈먼 화살, 투창, 총알, 대포알과 같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의 극단적인 환경은 이를 견뎌야 하는 병사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마갑 중장기병이 밀집, 창을 내밀고 돌격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상대하는 측에게는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이 작용한다. 더 나아가 마갑과 갑주를 갖추고 있다는 마갑 중장기병의 특징만으로도 적의 응집력은 감소될 수 있었다. 병사들은 교전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장비,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투현장에서 이탈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 겪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면 만약 중장기병 돌격이 적의 진형을 붕괴시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이어질까? 사실 중장기병이 돌격을 성공시킨 사례만큼 돌격이 실패한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만 꼽아도 관구검이 지휘한 위군(魏軍)과 동천왕의 고구려군 사이의 비류수(沸流水) 전투, 니시비스(Nisibis) 전투⁴⁵⁾, 헤이스팅스(Hastings)⁴⁶⁾, 코르트레이(Courtria) 전투⁴⁷⁾, 배넉번(Bannockburn)⁴⁸⁾, 크레시(Crecy), 푸아티에(Poitiers), 아쟁쿠르(Agincourt)⁴⁹⁾ 등등이 있다. 이러한 사

43) 존 키건(정병선 역), 2005, 『전쟁의 얼굴』, 지호. pp.166~169

44) A. du Picq, 2005, 앞의 글.

45) 로마-파르티아 전쟁중 하나인 카라칼라의 파르티아 전쟁(Parthian war of Caracalla) 와중인 기원후 217년, 로마군과 파르티아 군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인 니시비스에서 충돌한 전투.

46) 1066년 노르망디 공작인 윌리엄 1세(William I)가 이끄는 군대와 잉글랜드(England)의 왕인 헤럴드2세(Harold Godwinson)가 이끄는 군대 사이의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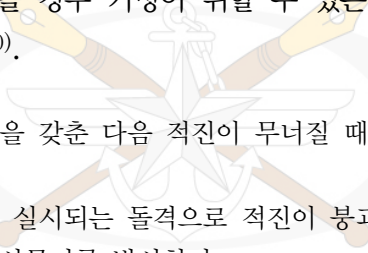
47) 1302년 프랑스군과 플랑드르 백작령(County of Flanders) 소속 민병대 사이의 전투. 플랑드르 민병대가 프랑스 무장병, 기사들을 압도한 전투로 유명하다.

48) 1314년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전투. 스코틀랜드 군의 장창방진(Schiltren)과 더불어 기병, 보병, 궁병 간의 유기적인 협동이 압도적인 전력의 잉글랜드 군을 격파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전투다.

49) 세 전투 모두 백년전쟁 중에 벌어진 전투로 각각 1341년, 1356년, 1451년에 일어났다. 세 전투의 공통점은 프랑스 군의 중기병 돌격을 지형, 장애물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무력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례들을 살펴보면, 기병 돌격을 실패로 끝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이 돌격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응집력이 높은지의 여부, 그리고 보병진에 충격을 주기 전 기병을 방해 또는 멈추게 할 수 있는 환경 및 수단이 마련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즉 단 한 번의 중장기병 돌격만으로 적 진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지형(숲, 개울, 높은 언덕과 같은 방해물이 없는 평탄한 지형), 적의 미흡한 대처, 적의 낮은 응집력 등의 다양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돌격에서 적 진형을 붕괴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했다. 그렇기에 그 후의 대비책들도 항상 마련되어 있었다. 돌격이 실패했을 경우 기병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⁵⁰⁾.

- 
- ① 후퇴해서 진을 갖춘 다음 적진이 무너질 때까지 재차 돌격한다.
 - ② 다음 차례에 실시되는 돌격으로 적진이 붕괴될 수 있게 상대방에게 투사무기를 발사한다.
 - ③ 아군 보병의 엄호 또는 아군 보병을 엄호하면서 적 진형의 취약한 부위인 후방이나 측면을 공격한다.
 - ④ 보병 주변을 기동하면서 적이 지형상 유리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적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 약점을 노출하게끔 한다.

①번, 즉 재차 돌격하는 방식은 후퇴 후 재집결, 부러진 창을 보급한 후 밀집대형을 형성, 다시 돌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훈련되고 고도로 조직된 부대만이 실시할 수 있다. 후퇴 후 재차 돌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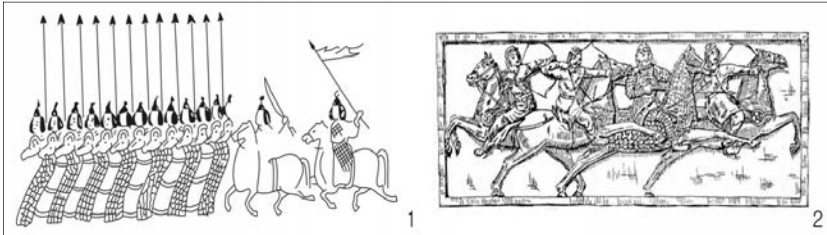
50) 각각의 행동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①~④의 행동들은 본고엔 돌격이 실패하고 난 뒤 실시하는 전술 행동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장기병이 돌격하기 전·후 언제든지 실시되는 행동들인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갑을 갖춘 중장기병도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다만 마갑의 무거운 무게가 이를 지속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마를 여러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바꿔 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번, 즉 투사무기를 통한 적 응집력 감소는 아군 정보병, 경기병이 산병전을 치를 수 있는 상황 및 탄약이 허락하는 한 전투상황 내내 발생한다. 마갑 중장기병은 ②번의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마갑은 전마에게 상당히 부담 되는 무게인데 적진 주위를 끊임없이 기동하면서 투사무기를 발사 해야 하는 상황에 마갑 중장기병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자 중장기병과 경기병을 한 진 안에 배치하거나 혹은 양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끔 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장기병과 투사무기를 든 기병 조합의 필요성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전통이 강하지 않은 중세 유럽에서도 쇄뇌를 든 경기병이 탄생하게 했다⁵¹⁾. 또한, 경기병은 적 진형에 투사무기를 발사해 응집력을 감소시키는 역할 외에도 적 기병의 기습적인 공격을 대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중장기병과 경기병이 같이 활약하는 모습은 약수리 벽화고분, 덕흥리 벽화고분, 돈황 막고굴 벽화에서 확인된다. 또한, 다른 고분벽화에서는 활을 든 경기병이 묘사된다. 송나라 시대 병법서인 『무경총요』에서도 창을 든 기병과 활을 든 기병이 순차적으로 적을 공격한다 언급하고 있다. 기병의 배치도 창을 든 기병이 최고 앞 열에, 활을 든 기병이 그 뒤로 여러 횡대를 이루어 포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고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기병 운용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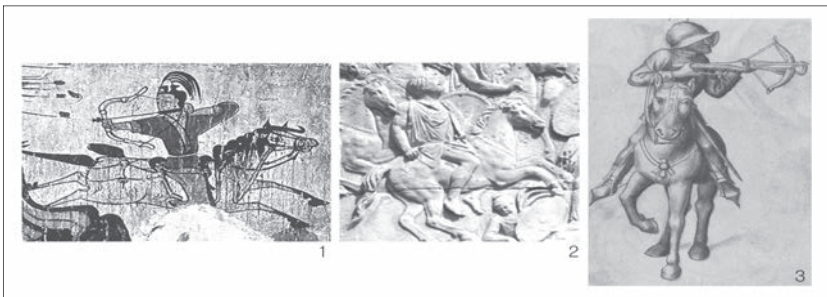
51) J. Gassmann, 2014, 「Thoughts on the Role of Cavalry in Medieval Warfare」, 『Acta Periodica Duellatorum』 Vol. 2, Sciendo, p.158

〈그림 4〉 중·경기병 혼용 예시 (1: 약수리 벽화고분,
2:우즈베키스탄 칼차얀(Khalchayan) 유적 전투도(M. Olbrycht, 2015)



③번은 ‘망치와 모루’ 전술로 볼 수 있다. 적 기병이 없거나 혹은 도주한 상태에서 적의 정면을 아군 보병이, 취약한 측면과 후방을 아군 중장기병이 공격해 적의 붕괴를 이끌어내는 전술은 칸나에(Cannae) 전투⁵²⁾에서처럼 성공만 한다면 적에게 압도적인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 진형(Formation)은 기본적으로 전방에 전투력을 집중한다. 그러므로 측면과 후방에는 전투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림 5〉 투사 무기 사용 기병 예시(1: 무용총 수렵도, 2: 트리아누스 원주
누미디아(Numidia) 기병, 3: 한스 탈호퍼(Hans Talhoffer)⁵³⁾



52)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인 기원전 216년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Hannibal Barca)의 군대와 로마군이 치른 대표적인 결전이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병력 대부분이 전사 혹은 포로로 잡히는 대패를 겪었다.

53) 3. 한스 탈호퍼, 『전투술(Fechtbuch)』(1467), 독일,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백작을 위해 제작,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 소장,
사진출처: <https://mdz-nbn-resolving.de/bsb00020451>

이쪽으로 기동성이 좋은 기병이 이동해 공격하는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기병 운용방법 중 하나며, 이는 마갑 중장기병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도 이 전술은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군 후방을 공격한 당나라 기병이 있다⁵⁴⁾.

④번은 흔히 거짓 퇴각(Feigned retreat)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거짓으로 퇴각, 적의 전력 전체 또는 일부라도 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 적의 약점을 아군에게 노출하게 하는 전술이다. 적의 약점을 드러내는 기동은 한 번의 시도로 성공되는 경우는 잘 없으며, 수차례에 걸친 도발과 후퇴를 거듭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마갑을 걸친 중장기병은 마갑의 무게로 인한 말의 선회문제, 체력문제로 이러한 기동을 지속하는데 큰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적의 응집력이 감소하면, 적 진형에는 동요가 발생한다. 동요는 대개 후열 또는 측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앞 그리고 중간 열에 있는 병사들은 뒤나 옆에 있는 아군 병사들에 가로막혀 도망갈 수 없지만, 측면과 후열의 병사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동요가 발생하고 진이 와해되기 시작하면 밀집이 풀리면서 보병 사이로 틈이 발생한다. 만일 동요를 진정시키지 못해 진이 완전히 무너지면 중장기병과 기병들이 물리적으로 적 진형을 돌파,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다⁵⁵⁾. 돌파하는 와중 기병들은 창 혹은 대도와 같은 근접병기들을 적에게 휘두른다. 그 후 전의를 상실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적들을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 추격, 섬멸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소결하면 매체에서 묘사되듯 중장기병이 밀집대형을 형성, 적진에 충격과 같이 물리적으로 들이받아 적 진형을 산산이 부수는 장

54) 이흥두, 2010,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39~42

55) 李仁哲,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pp.10~12

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선 볼 수 없다. 중장기병 돌격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적을 동요하는 데 특화된 전술이다. 또한, 기병은 말을 타고 있어 보병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며, 기동의 지속시간도 훨씬 길기에 이를 응용한 다양한 전술이 탄생했다. 돌격은 그 수많은 전술 중 하나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그 위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로운 전술이다.

마갑 중장기병은 마갑이라는 무거운 장비가 추가됨으로 인해,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속도의 기동을 장시간 동안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마갑 중장기병의 전술적 활용 폭이 경기병, 일반 중장기병에 비해 좁다는 점을 뜻한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갑 중장기병은 투사무기를 갖춘 경기병과 같이 편제되거나 이들의 엄호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마갑 중장기병의 위력은 활용 폭이 좁은 만큼 성공하기만 한다면 적을 단번에 와해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돌격 과정에서 마갑은 적의 투사무기, 근접병기로부터 기병의 생명과 같은 말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다. 그렇기에 적의 측면이나 후위를 노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갑 중장기병이 적의 저항이 강하게 발생할 정면으로 돌격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마갑은 말을 보호하는 수단인 동시에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무기다. 마갑과 마주, 갑주, 마구, 화려한 장식, 그리고 기다란 창을 갖춘 밀집된 중장기병은 전투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적병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피와 공포의 대상이며, 돌격이라는 행위는 이러한 공포를 증폭시켰다. 이런 마갑 중장기병의 위력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서 4세기라는 이른 시기부터 마갑 중장기병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중세까지도 마갑 중장기병들이 경기병과 혼성을 이루어 대량으로 운영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5. 중장기병의 대기병 전술과 작전

가. 중장기병 대 기병

중장기병 대 기병의 양상도 근본적으로는 대보병전과 다르지 않다. 중장기병과 경기병의 직접적인 접촉은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기병끼리의 접촉 자체가 기병과 보병의 교전에 비해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전근대 시기에는 경기병과 중기병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기병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기병인지 규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선 중장기병이 활을 들고 마치 경기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⁵⁶⁾. 그렇기에 이론보다 훨씬 복잡하고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기병들은 적 보병 또는 적 기병과 가능한 간격을 계속 유지, 체력, 지형, 탄약이 허용하는 한 산병전을 지속,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적의 응집력을 낮추는 역할을 선호한다. 반면 중장기병은 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중장기병과 경기병의 싸움은 한쪽은 쫓고, 한쪽은 도망가는 형태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결국 한쪽이 전투의지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중장기병 간의 접전은 양 진형이 서로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된다.

56) 유럽 중세 초기 기사들이나 대부분의 유목 국가의 기병들처럼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말 위에서 자유롭게 활을 쏠 수 있도록 훈련받거나, 아니면 고대 로마처럼 마갑을 입힌 말을 탄 마궁수(Equites Sagittarii Clibanarii)와 같은 병종이 존재하기도 했다.

기병 사이의 돌격도 보병에 대한 돌격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 돌격을 통해 노리는 효과 역시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만일 돌격하는 와중 한쪽이 자신의 전투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 진형의 응집력은 급속도로 사라져 버린다. 이후 전투의지를 상실한 기병들은 기병의 빠른 속도를 이용, 전장에서 빠르게 이탈한다⁵⁷⁾. 때때로 숙련병들은 적에게 접근하고 싶으나 말이 이를 거부, 두 개의 진형이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도 발생했다⁵⁸⁾.

〈그림 6〉 요한 야콥 폰 월하우젠(Johann Jacob von Wallhausen), 『기병술(Ritterkunst)』의 삽화(1616)⁵⁹⁾



57) A. du Picq, 2005, 앞의 글.

58) B. Nosworthy, 1997, 앞의 글. p.272

59) 요한 야콥 폰 월하우젠, 『기병술』(1616),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제작,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 소장, BSB-D1162465,

사진출처: <https://www.digitale-sammlungen.de/en/view/bsb10359342?page=2,3>

양 진형에 속한 기병들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충돌한다면 양 기병들은 서로를 지나쳐버리거나 혹은 바로 혼전(mêlee)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밀집대형을 유지, 돌격을 시작했을지라도 결과는 거의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면 적과 말 그대로 부딪혀 버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말이나 기병들이 본능적으로 틈을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질주 단계에 이르면 말들은 옆 말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서로 간격을 벌린다.

만일 정말로 밀집을 유지한 채 양 기병들이 서로 충돌했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그렇게 되면 두 기병진 사이로 창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의 거리만 형성된 채 양 기병은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왜냐면 밀집된 진형으로 인해 말이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이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다. 실제 상황과 같이 돌격하는 와중 피해가 누적되고 지형도 고르지 않고, 온갖 변수와 불확실성이 곳곳에 깔린 전장에서 양 기병이 충돌의 순간까지 정말로 밀집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서로의 창에 찢린 말과 기병이 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장애물과 거기에 걸린 뒷열의 기병들이 한 곳에 마구잡이로 뒤섞인 끝에 결국 죽거나 다친 말과 기병의 무더기만이 남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다⁶⁰⁾. 이는 그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는 결과다.

그렇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두 기병진은 충돌하기 전 밀집대형을 풀어버린다. 이후 양 진형 사이에 생긴 틈 사이로 서로의 기병들이 치고 들어가 서로에게 창과 칼을 휘두른다. 만일 전투현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병은 말을 돌려 적 기병들 사이의 틈 사이로 돌입, 적을 공격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을 혼전(mêlee)이라 부른다. 양 중장기병이 충돌한 이후의 전투는 진과 진의 싸움

60) 존 키건(정병선 역), 2005, 앞의 글.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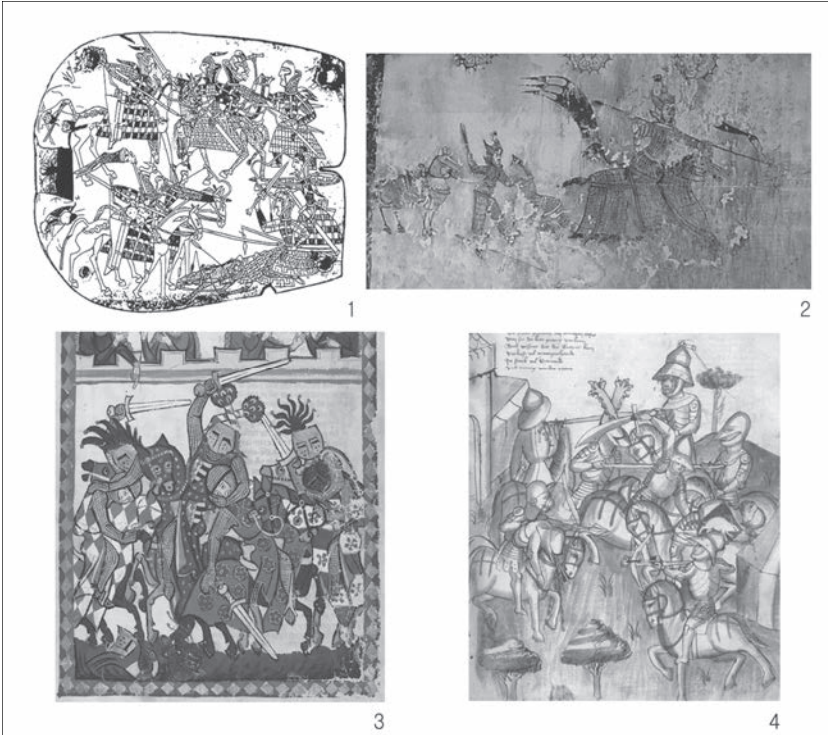
이 아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다수, 다수 대 다수의 싸움으로 바뀐다. 혼전의 승패는 어느 쪽에 도주하지 않고 버티는 쪽이 더 많은가로 결정된다.

혼전 속에서도 창은 유용한 무기다. 중장기병은 창머리를 사람에게 향해 적의 저항 의지를 꺾고 전투력을 소멸시켰다. 솜씨가 좋은 병사는 말 위에서 창으로 적을 바로 죽이거나 창을 빼앗았을 것이나, 『일본서기(日本書紀)』 19권 흠명기 14년 기록에서처럼 적을 낙마시키기도 했다. 말에게 창머리를 향하는 것은 기병의 생명과 같은 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상대방이 더는 기병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적을 낙마시키는데 초점이 잡혀 있다. 마갑 중장기병은 마갑 덕에 본인의 말이 적군의 창에 의해 상해를 입고 날뛰어 전장을 이탈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거나 죽어 낙마하는 상황을 다른 기병들보다 훨씬 적게 겪었을 것이다.

혼전 상황에서는 창만큼이나 대도, 검, 도자(刀子)와 같은 길이가 비교적 짧은 무기들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병 사이의 틈으로 기병들이 치고 들어가는 만큼 기병과 말들은 원치 않더라도 서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말 위에서 무기를 잃어버린 상태거나 혹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낙마시키기 위해 가까운 거리를 이용, 상대방을 손으로 붙잡고 비틀거나 잡아 던지는 경우도 일어났다. 숙련병들은 말 위에서 적을 제압, 자신의 전공을 증명해줄 수 있는 전리품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혼전이 발생하면 중장기병과 같이 편성, 혹은 중장기병 인근에서 중장기병을 엄호하던 다른 기병들도 혼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갑주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가능한 자제했다. 그 대신 자신들이 가진 활, 투창, 쇠뇌 등과 같은 투사무기들을 적극적으로 사용, 적 병사나 말을 노리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림 7〉 기병 간 혼전 상황 예시 (1: 오를랏 전투 명판(Orlat battle plaque)
(M. Olbrycht, 2015), 2: 통구 12호분, 3: 『코덱스 미네상(Codex
Manesse)』(1304), 4: 『트로이 전쟁의 역사(History of the Trojan
War)』(1441)⁶¹⁾



고대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중장기병 사이의 싸움도 이러한 양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실총 공성도에서 두 중장기병이 싸우는 모습, 통구 12호분 참수도에서 교전하는 중장기병들의

61) 3. 저자 다수, 『코덱스 미네상(Codex Manesse)』(1304), 취리히,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대학 도서관 소장, Cod. Pal. germ. 848, 사진출처: 필자 소장 Pdf에서 발췌.

4. 콘라드 폰 뷔르츠부르크(Konrad von Würzburg), 『트로이 전쟁의 역사』(1441), 독일, 독일 국립 박물관(Germanisches Nationalmuseum) 소장, GNM Hs998, 사진출처: <http://dlib.gnm.de/item/Hs998/html>.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를 갖춘 집단 사이의 교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묘사된 단기접전, 또는 통구 12호분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소규모 접전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중장기병 사이의 싸움은 양측 모두 단단한 갑옷으로 전신을 보호하고 있었기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였다. 게다가 싸움이 장시간에 걸친 경우도 많았다. 경주 쪽샘 C-10호에서 출토된 찰갑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묘사된 중장기병들을 보면, 얼굴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갑주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창, 대도, 도자와 같은 무기를 찔러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얼굴, 겨드랑이 인근으로 제한된다. 단단한 갑주를 갖춘 상대방을 제압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1351년의 브르타뉴 계승 전쟁(War of the Breton Succession) 중에 벌어진 30인의 전투(Combat of the Thirty)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전신을 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한 양측은 아침부터 밤까지 탈진을 거듭하면서 싸운 끝에 잉글랜드는 9명, 프랑스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4명 보다는 많은 전사자가 나왔다. 양측에 소속된 전투원들이 모두 매우 높은 전투의지, 전투능력을 가진 전사(용병) 엘리트(기사) 계층임을 고려하면 전신갑주를 갖춘 중무장병 사이의 싸움은 엄청난 체력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싸움임을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죽지 않고 낙마하면 중장기병은 상황에 따라 여러 행동을 취한다. 먼저 말 위에서 떨어진 상대방을 향해 창이나 대도, 혹은 활과 같은 무기로 공격, 적을 사살하거나 전투력 또는 전투의지를 완전히 소멸시켜 포로로 잡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말에서 본인도 같이 내리는 경우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의 말이 혼전 속에서 탈진해 버린 경우, 말 위에서는 적 갑옷의 틈 사이로 치명상을 입힐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적에게

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하마하게 만든 경우다. 그러나 세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마라는 위협을 무릅쓴 경우다.

적에게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갑옷, 무기, 말, 등이 있다. 하지만 갑주, 무기 같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전리품들은 대개 전투가 끝난 후, 시체나 부상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²⁾. 전투 중 적에게서 취하는 것은 보통 자신의 용기와 전공을 전장의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군기(軍旗)나 적을 포로로 잡는 행위, 그리고 적의 수급(首級)과 같은 것들이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선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급이 전공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적의 수급을 취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다.

고대 한반도에선 사회 상류계층만이 철제 갑주를 갖추고 이를 무덤에 부장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수급을 취할 가치가 있는 상류층들은 대개 철제 경갑(頸甲)과 투구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수급을 취하기 위해선 하마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이는 통구 12호분 참수도와 『일본서기』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만일 낙마한 적이 치명상을 입어 저항할 수 없거나 사망한 상태라면 경갑과 투구를 벗기거나 치운 상태로 길이가 짧은 도나 도자를 찔러 넣어 수급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낙마했음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은 적은 살아남기 위해 반격했을 것이다. 참수도에서도 낙마해 무릎을 꿇고 있는 쪽이 한쪽 손을 뻗어 바닥에 있는 무기를 잡고 반격하려고 한다.

62) 1361년 스웨덴 비스뷔(Visby) 전투 후 조성된 집단 매장지를 발굴조사 한 결과, 갑주를 착용한 채 대량으로 매장된 시신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더운 날씨와 2000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신의 양 때문에 전리품을 포기한 특수한 경우라 볼 수 있다(B. Thordeman, 1939).

〈그림 8〉 중무장병 근접전 예시(1: 통구 12호분, 2: 『아시아마테라엔기예마키(石山寺縁起繪卷)』제6권 제25단(段), 3: 검투술(Gladiatoria)』(1430), 4: 요르그 빌헬름 후터(Jörg Wilhalm Hutter)(1520).⁶³⁾



- 63) 2. 『아시아마테라엔기예마키(石山寺縁起繪卷)』, 일본, 가마쿠마 막부 기간인 쇼우쥬우(正中)년간(1324~1326)부터 제작된 것으로 추정. 이시야마테라(石山寺) 소장. 사진출처: <https://ja.wikipedia.org/wiki/石山寺縁起繪卷>
3. 작자미상, 『검투술(Gladiatoria)』(1430), 빈 미술사 박물관 소장(Kunsthistorisches Museum), KK5013. 필자 소장 관련서적에서 발췌.
4. 요르그 빌헬름 후터, 『검술서(kunst zu Augspurg)』(1522), 독일,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 대학 도서관 소장. Cod.I.6.4.5.
사진출처: [https://wiktenauer.com/wiki/J%C3%B6rg_Wilhelm_Hutters_kunst_zu_Augspurg_\(Cod.I.6.4%C2%BA.5\)](https://wiktenauer.com/wiki/J%C3%B6rg_Wilhelm_Hutters_kunst_zu_Augspurg_(Cod.I.6.4%C2%BA.5)) Cod.I.6.4.5

참수도는 수급을 취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낙마한 병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죽지 않기 위해 상대방과 싸웠을 것이다. 이윽고 두 병사는 서로 엉겨 붙어서 갑주와 갑주, 무기와 무기를 부딪치면서 상대방 갑주 사이의 빈틈을 노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심지어 양쪽이 모두 무기를 손에서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그래도 싸움은 멈추지 않고 레슬링, 관절기와 같은 맨몸격투도 동원되었다. 갑주를 입은 전사들 사이의 싸움이 잦았던 서양 중세에서는 이를 위한 교범이 있었고, 이를 갈고 닦아 갑주를 갖춘 무장병을 공략하기 위한 정교한 기술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신에 갑주를 갖춘 전사들이 활약했던 고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등장, 발전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급을 취하는 과정이 곧 치명상을 입히는 과정이었기에 상대방을 자신의 체중으로 제압,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 그대로 목에 칼을 찔러 넣어 수급을 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심지어 한 명의 수급을 취하기 위해 여러 명이 달려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제압한 후 수급을 취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을 것이다⁶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한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더기로 도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한쪽이 전투의지를 완전히 상실, 전장에서 도주하기 시작하면 반대편은 이를 쫓아 추격, 섬멸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이 추격, 섬멸 과정에서 사상자 대다수가 발생했다. 추격, 섬멸전에서 중장기병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혼전을 겪으며 말, 기병 모두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추격 과정은 다른 기병이나 예비대(Reserve)에 의해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결하면 중장기병 대 기병의 전술도 대 보병전과 근본적으로 다

64) 鈴木真哉, 2000, 『刀と首取り—戦国合戦異説』, 平凡社新書.

르지 않다. 즉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해 격파한다는 개념보다는 적의 응집력을 감소시켜 적을 도주하게 만드는 것이 주를 이룬다. 중장기병 간의 전투는 말의 습성, 그리고 전술적 성과를 위해 초기의 밀집대형을 유지하지 않고 혼전으로 나아가는 양상이 일반적이다. 마갑은 혼전 속에서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말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다. 동시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그 무게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중장기병 간 혼전은 말 위에서의 싸움, 하마해 이루어지는 싸움으로 나뉜다. 한편, 양쪽이 전신을 갑주로 보호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매우 근접해서 싸우는 일이 잦았다. 고대 한반도,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구 12호분 참수도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수급과 같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 하마한 상태에서 두 중장기병이 근접전을 벌이는 일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한쪽 기병이 도주를 시작하면 보병 때와 마찬가지로 추격, 섬멸이 시작된다.

기병 간의 교전에서도 마갑은 말에게 엄청난 체력소모를 강요한다. 그러나 혼전 상황에서 상대방을 낙마시키기 위해 말을 노리는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했기에 대기병전에서도 마갑 중장기병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보병전과 마찬가지로 마갑은 상대방보다 자신의 전투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다. 이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무기로 작용했다. 추측이지만 마갑 중장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와 동급인 마갑 중장기병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5세기 이후부터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넓은 지역에서 마갑 중장기병이 널리 성행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나. 군사작전과 중장기병

지금까지 언급한 전술들은 회전(會戰) 즉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쌍방의 군대가 만난 상태를 가정한 것들이다. 하지만 전쟁 혹은 군사작전(Military campaign)이라는 큰 과정에서 회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수백, 혹은 수천, 수만의 대규모 군대가 드넓은 평야에서 만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명 ‘결정적인 전투(Decisive Battle)’는 한쪽이 다른 쪽

〈그림 9〉 『볼페그 성 가문지침서(Housebook of Wolfegg Castle)』(1480) 수록 삽화



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어느 한쪽이 전략적 기동을 통해 더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등 승산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판돈을 거는 도박에 가까운 행위다.

⁶⁵⁾전쟁은 오히려 각양각색의 규모 및 특징을 가진 전술단위들이 보급의 문제, 적에게 노출돼 격파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방지, 적이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65) 저자 미상, 『볼페그 성 가문지침서(Housebook of Wolfegg Castle)』(1480), 독일. 라인강 중부유역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 GND-Kennung:1043738894. 사진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ousebook_of_Wolfegg_Castle

위해 기동하는 것을 방해, 그리고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역(戰域) 이곳저곳을 행군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 전술단위의 규모와 특징은 시대, 지역마다 다 달랐지만, 대규모의 주력과 소규모의 분견대가 필요에 따라 합쳐졌다 떨어져 나갔다 하는 패턴은 계속 유지되었다. 대규모 주력과 별개로 행동하는 소규모 분견대는 적 지역 혹은 아군 지역에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주에서 몇 달씩 독립적인 전략, 전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전술단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소규모 분견대간의 전투도 전역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했다. 소규모 분견대 간의 전투에서 사용되는 전술도 사실 규모의 차이 외에는 회전에서 사용되는 전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장거리, 장시간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분견대 임무는 대부분 기병으로 수행되었다. 기병 분견대의 임무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상황과 전황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정찰, 차단, 징발, 교란 등이 있다. 흔히 돌격에 특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서양 중세의 기병들, 그리고 다른 기병들도 회전보다는 이러한 소규모 분견대 활동 및 전투에서 그 위력을 최대로 발휘한다고 밝혀졌다⁶⁶⁾.

전쟁터에서 기병이 수행하는 다양한 군사작전들 속에서 마갑 중장기병의 입지는 좁은 편이다. 분견대 활동은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 장시간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마갑의 무게가 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적의 분견대가 나타나 교전이 벌어지기 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 또한 적의 민가나 민병대, 분견대를 급습해야 하는 상황과 같은 유연하게 행동해야 하는 경우엔 마갑의 무게가 큰 방해물이 된다. 또한, 마갑은 무게뿐 아니

66) 아더 웨일 저, 이춘근 역, 1990,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pp.109~110

J. Gassmann, 2014, 『Thoughts on the Role of Cavalry in Medieval Warfare』, 『Acta Periodica Duellatorum』Vol. 2, Sciendo. pp.170~174

라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동량과 물자를 요구한다. 그렇기에 장시간에 걸쳐 적대적인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마갑은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마갑 중장기병이더라도 장기간의 분견대 임무에서는 마갑을 벗기고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갑을 가지고 다닐 수만 있다면 소규모 분견대 사이의 교전에서 마갑 중장기병은 앞의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누구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활약했을 것이다.

6. 맺음말

인간이 말을 가축화한 이래, 전쟁터에서 말은 가장 먼저 짐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후 여러 마리의 말을 묶어 전차(戰車)로 사용하는 방법이 발명된 후 말 위에 인간이 직접 타는 방식이 탄생한다. 이윽고 기병은 시대, 장소에 맞춰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전술이 탄생하게 된다.

마갑 중장기병은 기존에 사람만을 갑주로 보호하던 것을 넘어 말까지 갑주로 보호한 기병이다. 중장기병의 등장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나 동아시아에서는 4세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장기병의 전술적 활용 폭은 다른 기병에 비해 좁다. 가장 큰 이유는 말이 입는 마갑의 무게 때문이다. 마갑은 말에게 다른 기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방어력을 선사해줬지만, 그 무게는 말이 고속으로 장시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양날의 검으로 돌아왔다. 그렇기에 중장기병 돌격 이전 혹은 이후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돌격이 성공하여 적진이 와해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추격, 섬멸전에서 중장기병은 그 입지가 좁았다. 이것은 보병전 뿐 아니라 기병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갑의 방

어력은 기병 간 전투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말이 장시간 활약할 수 없게 하는 족쇄였다. 말이 날랜 기병에 대한 추격, 도주하는 적 기병에 대한 추격, 섬멸전에서도 마갑 중장기병의 활용은 떨어졌다. 그렇기에 대부분 중장기병과 경기병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회전 외의 군사작전에서도 중장기병의 활용도는 떨어졌다. 소규모 분견대가 며칠, 몇 달에 걸쳐서 독립적으로 장시간, 장거리에 걸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작전 속에서 마갑의 무게와 까다로운 관리법은 상당히 큰 골칫거리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마갑 중장기병이 동북아시아에선 4세기에 등장, 이듬고 5세기부터는 알타이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보급된 후, 수·당을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활용된 이유는 간단하다. 마갑은 기병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말의 생존능력을 기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주었다. 또한 마갑은 그 존재만으로도 적 보병, 기병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마갑 중장기병의 돌격, 혹은 기동만으로도 적 보병, 기병의 응집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장기병간의 싸움에서 사용되는 여러 전술을 살펴보면, 추측이긴 하지만 마갑 중장기병을 상대하기 위해선 같은 수준의 마갑 중장기병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고대 마갑 중장기병에 의해 수행되는 전술의 위력은 앞서 이야기한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마갑 중장기병이 등장,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1. 10. 4, 심사수정일 : 2021. 11. 15, 게재확정일 : 2021. 11. 29.)

주제어 : 중장기병, 기병, 전술, 고구려 고분벽화, 고고학, 갑주, 마갑

〈참고문헌〉

1. 國 文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0, 『말, 갑옷을 입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김성호, 2019, 「삼국시대 마갑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http://uci.or.kr//I804:21016-000000138927>
- 류창환, 2010, 「三國時代騎兵과 騎兵戰術」, 『한국고고학보』 제76집, 한국고고학회.
<http://uci.or.kr//G704-000699.2010..76.001>
- 徐榮教, 2004, 「高句麗 壁畫에 보이는 高句麗의 戰術과 武器 -기병무장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7. p.353
<http://uci.or.kr//G704-001250.2004..17.009>
- 서영교, 2017,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항도부산』 no.3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https://doi.org/10.19169/hd.2017.2.33.105>
- 송영대, 2018, 「高句麗 南征 이후 新羅·加羅의 전술 변화 고찰」, 『한국고대사탐구』, No.3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https://doi.org/10.35160/sjekh.2018.12.30.9>
- 아더 웨일 저, 이춘근 역, 1990,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http://uci.or.kr//G901:A-0008264707>
- 李仁哲, 1996, 「4~5세기 高句麗의 南進經營과 重裝騎兵」, 『軍史』, 33.
- 李蘭映, 金斗哲,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https://doi.org/G901:A-0008567726>
- 이현주, 2005, 「三韓 · 三國時代 釜山地域 軍事體制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http://uci.or.kr//G901:A-0005228578>
- 이흥두, 2010,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기마전」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ttps://doi.org/10.29212/mh.2010..77.33>

- 이흥두, 2013, 「고구려 胡馬의 유입과 鐵騎兵」, 『역사와실학』 Vol.51, 역사실학회.
<http://uci.or.kr//G704-002032.2013..52.004>
- 이흥두, 2020, 『한국 기마전 연구』, 해안.
- 임종화, 「1차대전 연합군 총사령관 포슈 장군 군사사상의 현대적 함의」, 『산업진흥연구』, Vol.5, no.2.
<https://doi.org/10.21186/IPR.2020.5.2.083>
- 장경숙, 2003,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갑주」, 『慶州文化研究』, Vol.6,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http://uci.or.kr//G901:A-0001866695>
- 장경숙, 2009, 「말갑옷(馬甲) 연구시론」, 『學藝誌』第16輯, 육군박물관.
<http://uci.or.kr//G901:A-0002895616>
- 정동민, 2007,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중장기병의 변화와 운용형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http://uci.or.kr//G901:A-0005359131>
- 정동민, 2008, 「高句麗 重裝騎兵의 特徵과 運用形態의 變化 -古墳壁畫 資料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2.
<http://uci.or.kr//G704-000848.2008..52.005>
- 존 키건(정병선 역), 2005, 『전쟁의 얼굴』, 지호.
<http://uci.or.kr//G901:A-0006086794>
- 천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http://uci.or.kr//G901:A-0005987497>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김만수 역), 2016, 『전쟁론(Vom Kriege)』, 갈무리.
<http://uci.or.kr//G901:A-0006620039>

2. 英 文

- A. du Picq, 2005, 『Battle Studies, Ancient and Modern Battle』, The Project Gutenberg EBook.
- A. William et al, 2016,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Late Medieval Combat with The Couched Lance』, 『Journal of the Arms and Armour Society』Vol.22, Arms & Armour Society.
- B. Cumming, 2009, 『Estimating a horse's condition and weight』, 『Primefacts』 928,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 B. Mckiernan, 2007, 『Estimating a horse's weight』 『Primefacts』 494,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 B. Nosworthy, 1997, 『Battle Tactics of Napoleon and His Enemies』, Constable & Robinson.
- B. S. Bachrach 2002, 『CABALLUS ET CABALLARIUS in Medieval Warfare』, 『Warfare and Military Organization in Pre-Crusade Europe』, Routledge.
- B. Thordeman, 1939, 『Armour from The Battle of Wisby, 1361』 Vol, I II, Kungl Vitterhets Historie och Antikvitets Akademien.
- D. Nicolle 2011, 『European Medieval Tactics, Vol. 1: The Fall and Rise of Cavalry 450-1260』, Osprey Publishing.
- D. Nicolle, 2017, 『Horse Armour in the Medieval Islamic Middle East』 『Arabian Humanities』Vol.8, CEFAS
<https://doi.org/10.4000/cy.3293>
- E. H. Edward, 2016, 『The Horse Encyclopedia』, DK.
- H. Waring 2003, 『Horse Behavior』, William Andrew Publishing.
- J. Clark, 1995, 『The Medieval Horse and Its Equipment C. 1150-C. 1450 (Medieval Finds from Excavations in London)』, Museum of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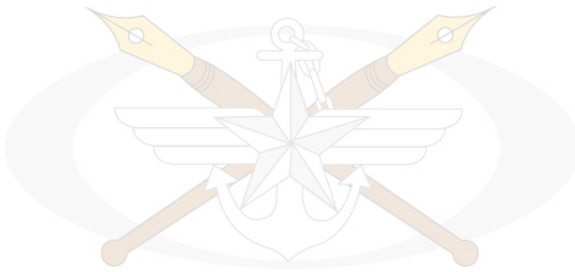
- J. Gassmann, 2014, 「Thoughts on the Role of Cavalry in Medieval Warfare」, 『Acta Periodica Duellatorum』Vol. 2, Sciendo.
<https://doi.org/10.36950/apd-2014-005>
- J. Gassmann 2018, 「Combat Training for Horse and Rider in the Early Middle Ages」, 『Acta Periodica Duellatorum』Vol. 6, Sciendo.
<https://doi.org/10.2478/apd-2018-0003>
- J. Tincey, 2002, 『Ironsides: English Cavalry 1588-1688』, Osprey Publishing.
- L. E. Nolan, 1860, 『Cavalry, It's History and Tactics』, Bosworth & Harrison.
- M. Bennett, 2006, 『Fighting Techniques of the Medieval World』, Thomas Dunne Books, St. Martin's Press. p.96, 00
- M. Mielczarek, 1993, 『Cataphracti and Clibanarii, Studies on the Heavy Armoured Cavalry of the Ancient World』, Oficyna Naukowa MS.
- M. Olbrycht, 2015, 「Arsacid Iran and the Nomads of Central Asia—Ways of Cultural Transfer」, 『Complexity of Interaction along the Eurasian Steppe Zone in the First Millenium CE』,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https://doi.org/10.4000/abstractairanica.46891>
- N. P. Milner, 2001, 『Vegetius: Epitome of Military Science』, Liverpool University Press.
- R. B. Bruce et al, 2008 『Fighting Techniques of the Napoleonic Age 1792 – 1815: Equipment, Combat Skills, and Tactics』, Thomas Dunne Books.
- R. C. Obrecht, 1908, 「Market Classes and Grades of Horse and Mules」, 『Bulletin』 No. 122 University Of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R. Cowan, 2007, 『Roman Battle Tactics 109BC-AD313』, Osprey Publishing.

R. D'amato, A. Negin, 2018, 『Roman Heavy Cavalry (1): Cataphractarii & Clibanarii, 1st Century BC-5th Century AD』, Osprey Publishing.

3. 日 文

鈴木真哉, 2000, 『刀と首取り—戦国合戦異説』, 平凡社新書.

鈴木真哉, 2001, 『謎とき日本合戦史—日本人はどう戦ってきたか』, 講談社現代新書.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tactics of heavy equipped cavalry in the period of ancient Korea

Yang, Seong-min

Heavy equipped cavalry are units with heavy equipments not only armor for riding soldiers but also their horses. Generally, Heavy equipped cavalry are considered to be soldiers who use weapons such as spears and swords to charge into enemy formation.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tactics meaning of heavy equipped cavalry in campaign and battles.

The ancient Korean horse is a species of small horse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the Pony. Therefore it is not suitable to play the bearer of a heavy equipped cavalry who equipped a horse armor.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Horses, which were brought from the West, would have played the heavy equipped cavalry. However, even These horses from overseas were bigger than the species of pony, they could not move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weight of armor for them.

The survivability of heavy equipped cavalry with a horse armor was not compared to those of other ordinary cavalries. The psychological pressure it impressed on the enemy was also enormous. These are why heavy equipped cavalry prevailed until the Middle Age's battlefield. But the tactical limitations were also clear. The biggest reason is the weight of the armor on horses. the horse armor provided the horse with strong survivability power, but it is a double-edged sword that prevents the horse from moving at high speed for a long time. The low utilization of heavy equipped cavalry applies not only to the decisive battle but also to campaign situations.

Keywords : Super-heavy Cavalry, Cavalry, Tactics, Goguryeo Tomb-painting, Archaeology, Armor, Horse Armo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21, pp. 185-198
<https://doi.org/10.29212/mh.2021..121.18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중국과 경쟁시대, 미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Christian Brose, Hachette Book Group, 2020,
『The Kill Chain: Defending America in the Future of
High-Tech Warfare.』 -



최영진*

1. 지는 전쟁을 하다.

이 책의 저자 크리스찬 브로스(Christian Brose)는 존 매케인¹⁾
미국 상원의원의 국가 안보 및 군사 문제 수석 참모로서 일했다.²⁾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1) 존 시드니 매케인 3세(John Sidney McCain III, 1936~2018년)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으로 하원과 상원의원을 지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바마에게 패했다. 베트남 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으며, 5년 반 동안 전쟁포로로 지낸 경험이 있다. 뇌종양 투병 중 2018년 8월, 8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 2) 저자는 콜린 파월과 곤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의 연설작성자와 정책 참모로 일했으며(2004~2008년), 한동안 Foreign Policy의 수석편집인을 맡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케인 상원의원과 상원 국방위원회 수석 참모로 국방부 관련 업무를 관장했다. 이후 벤처 지원 방산업체인 앤두릴(Anduril) 산업에서 수석 전략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매케인이 죽기 전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고 한다. 중국의 위협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대표되는 테러와의 전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1년 5월 당혹스러운 미군의 철수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간 전쟁은 사실상 실패로 종결되었다. 20년간 거의 6천 명에 달하는 미군과 민간군사기업의 계약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2조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2의 베트남 사태로 귀결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입해 있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흔히 ‘강대국 간의 경쟁(competition of super power)’으로 귀환한 것이다.

2017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도처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매케인은 미 상원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을 준비했고, 합참의장이었던 조셉 던포드(Joseph Dunford) 장군은 “우리의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질적, 양적 경쟁에서 우위를 잃게 될 것이다.”³⁾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랜드 연구소에서 그해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는 “그렇듯한 가정 아래 생각할 때 미군은 그들이 싸워야 할 다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⁴⁾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중국과 위게임 결과였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의 위게임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경우 패배했다. 이러한

3) General Joseph Dunford,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ne 13, 2017.

4) David Ochmanek, Peter Wilson, Brenna Allen, John Speed Meyers, and Carter C. Price, U.S. Military Capabilities and Forces for a Dangerous World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7), xii.

사실은 국방부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미국 국민은 말할 것없고 미 의회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10여 년간 매케인과 함께 미국의 국방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중국의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했다. 그와 매케인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문제도 이것이었다. 이들의 결론은 지금 미국은 ‘지는 경기를 하고 있다 (playing a losing game)’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미국은 중국과 분쟁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토해내는 절박한 위기감이 단순히 경고로 끝난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중국과 같은 동급 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다. 이 책의 제목이 ‘킬체인(kill chain)’이 된 것도 저자의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

2. 플랫폼에서 킬체인으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쟁 시나리오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많은 무기체계에 있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경우에 따라 앞서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극초음속(hypersonic) 미사일이다. 음속 5배로 돌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항공모함과 기지들이 무력화될 것

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즉 미국의 공격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추구해왔던 접근거부(Anti Access / Aerial Denial; A2/AD)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0년이면 중국의 국민총생산량이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강력한 경제력으로 군대를 현대화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할 것이다. 단순히 규모의 문제만이 아니다. 무기체계가 더욱 첨단화되고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자율 무인 무기체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우주 경쟁 시대가 열렸다. 중국 2007년에 인공위성 요격 실험을 자랑스럽게 과시했다. 사이버 전력 역시 막강하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이버와 우주에서 먼저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누가 먼저 적의 신경망과 감지장치를 차단하느냐에 따라 승패는 갈라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말 그대로 중국은 동급 전력을 가진, 진정한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미국은 매년 국방비로 1조 달러의 4분의 3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⁵⁾ 그것은 국방비 지출순위 다음 10개국의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다. 중국은 2위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인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현격한 국방비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이 미국의 동급 국가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미국의 국방 기관이 미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의 건설과 대비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5) 2020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2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로 2~11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2위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인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자료: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국방기술품질원).

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방위산업을 오판하고 있으며 잘못 관리해 왔다고 지적한다.

국방에 있어 우리는 흔히 군사력의 지표가 ‘플랫폼(platform)’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플랫폼은 항공모함, 비행기, 전차와 같이 개별 차량이나 특정 선진화된 군사 장비 그리고 시스템을 말한다. 군대에서 군사력의 요구사항을 플랫폼의 측면에서 제출한다. 예산을 책정하거나 지출에 있어서도 기준은 플랫폼이다. 군사적 역량에 대한 국가의 목표도 플랫폼에 기반해서 설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투입 요소를 결과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무기만 많으면 이길거라 생각하지만 전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쟁사가 보여주고 있다. 장비가 많다고 잘 싸운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도자들 역시 더 큰 목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처음에 우리가 왜 그러한 플랫폼을 원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플랫폼을 구입하는 것이 군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목표는 전쟁 방지책, 즉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역량을 갖추므로써 그들이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결코 추구하지 못하도록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가? 플랫폼은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킬체인이다. 킬체인은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지만 군대에서는 늘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세 개의 단계가 포함된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understanding)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making a decision)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taking

an action)이다. 비록 그 효과가 살상과 관련될 수 있지만, 훨씬 많은 경우 전쟁이나 전쟁 이전 단계의 군사적 대립에서 승리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종류의 비폭력적이고 비살상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실제로, 더 나은 이해와 결정 그리고 행동은 군대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야 그들 자신의 국민과 무고한 시민 모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 플랫폼 중심의 군사력에 집중하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킬체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유념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적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역량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 무기체계에서 강조되었던 킬체인이 전쟁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바꾸게 된 것은 정보혁명에 의해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정보의 수집, 처리 및 배포를 혁신했고 킬체인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 군사 시스템은 이해를 촉진하고, 다른 군사 시스템이 의사 결정을 한다면, 또 다른 군사 시스템에서는 의도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시키는 대신, 군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 체제로 이루어진 ‘전투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킬체인은 전체적인 과정과 목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킬체인은 정보 수집에서 출발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의사 결정 그리고 행동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계기들의 사슬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군사 분야에서의 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이하 ‘군사 분야의 혁명’)'이다.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방식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군사분야의 혁명은 전투 네트워크에 함께 수행되는 일종의 전투 인터넷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킬체인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킬체인이나 군사혁명의 언어를 주창하면서도 미국의 국방 기구는 결코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군은 킬체인보다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입하는 데 여전히 주력해 왔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에도, 미국은 미군을 현대화하는 데 수천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잘못된 방식이었다. 미군이 수십 년 동안 의존해 온 플랫폼을 약간 개선된 형태로 생산하려고 했다. 이 프로그램 중 많은 것들이 수십억 달러의 조달 실패로 귀결되었다. 일부 플랫폼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단일 전투 네트워크로 통합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미군은 킬체인을 완료하는 데 있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걱정한다. 미군의 킬체인은 매우 수동적이고 선형적이며 동적이지 못하고 변화에 둔감하다. 기존의 특정 군사 시스템[예컨대 구축함]은 하나의 특정 목적[예컨대 적 잠수함 공격]을 위한 상황 이해, 의사 결정 및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적절히 작동할 수 있지만, 다른 예기치 않은 목적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군사 시스템은 미군이 전쟁에서 이해를 도출하고, 상황에 대한 지식을 의사 결정으로 전환하고, 행동을 취하게 하는 수단(시스템)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도록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미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훨씬 더 위급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여부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지적하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미군과 미군의 전쟁방식에 대해 총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왔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중공군 예산은 900%나 증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쟁을 위한 전략을 고안해 왔다. 즉, 미군이 목표

를 달성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미군이 지금까지 싸우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거부/차단할 무기체계와 교리를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군의 전투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미군의 전통적인 플랫폼을 파괴하며, 킬체인 완료 능력을 뒤흔들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를 빠르게 개발해 왔다. 이러한 위협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었다는 진단이다.

3.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 위협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전쟁수행방식, 즉 방위전략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무엇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이 어떻게 싸울 계획인가 하는 것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부정하려는 목표에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 전략보다는 방어적 전략이 더 유리하다. 군사력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보다, 나쁜 일을 막기 위해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국가방위전략》의 입안을 도운 국방전문가 크리스 더허티(Chris Dougherty)가 ‘새로운 미국식 전쟁 방식(new American way of war)’이라고 qnf렸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미국의 전쟁 수행방식은 공세적 사고방식에서 방어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전쟁방식은 근본적으로 공격적이었다. 미국은 공격적으로 싸워왔다. 미국은 막대한 전투

력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적진 깊숙이 침투시키고,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들의 물리적 공간을 점령하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그곳에 머무는 방식을 추구했다. 그리고 미국의 적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기는 극도로 어려워졌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이 첨단 정밀 타격 무기의 대규모 개발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들 무기들은 미군이 군사력을 투사하는데 이용하는 대규모 기지와 플랫폼을 찾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통적이고 공격적인 전쟁방식에 집착한다면, 새로운 기술만으로는 미국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전쟁 방식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공간에 침투하고, 그들의 영토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지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거부전략을 미국의 방위전략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자산, 그리고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 방식의 목표는 미군이 공격을 가하는 어떤 군대든 궤멸시킬 수 있으며, 상대가 그들의 영토를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손실을 그들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보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오래 전투를 지속하면서 그들의 공격 지속능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잠재적 침략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격이나 전쟁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미국식 버전일 것이다.

4.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현실적이고 긴박한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은 새로운 종류의 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저자의 주장은 개별 플랫폼과 시스템이 아닌 킬체인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매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기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력 자체보다 군사적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전투 네트워크와 인간의 이해, 결정,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 미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저자가 가장 상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첫째, 소수의 대형 시스템보다 더 많은 수의 소형 시스템을 중심으로 미래의 군사력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군이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경쟁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감지장치와 발사장치를 몇 개의 대형 표적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가의 시스템보다는, 미래의 군사력은 효과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저비용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보충 비용이 저렴하다면, 미국이 그것을 상실한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쟁국의 추가적인 군비 부담을 강요할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공격적으로 미사일 무기고를 확장해 온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아울러 미래의 미군은 다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플랫폼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고도의 지능형 무인 기계들을 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람은 값비싼 존재이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무기는 훨씬 더 비싸기 마련이다. 그러나 저가의 지능형 기계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또 대량으로 분실 및 교체가 가능하다. 위험한 곳에 더 적은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더 효과적이며 더 나은 윤리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래의 군사력은 오늘날 많은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하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보다는 제한된 양의 데이터를 주고 받는 고도로 분산된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재의 미군 네트워크가 공격에 취약한 이유는 상대방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소수의 중앙 집중적 거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주변에서 정보를 훨씬 적게 이동시킬 수 있고 주요 네트워크 기능을 다수의 지능형 기계에 분산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가 공격에 취약한 거대한 거점을 갖고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재구성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분산되어 있다면 경쟁국이 이를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가 미래의 전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인간 운영자가 지능형 기계와 더 나은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군사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디지털 군사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사력이 운영되어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드웨어였다. 쇠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드웨어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능하게 할 것은 ‘정보(information)’다. 그것은 모든 군사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전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확보된다. 그리

고 성공에 가장 필수적인 역량은 인공지능, 기계 자율성, 사이버 전쟁, 전자 전쟁,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Software-Defined Everything; SDE)일 것이다. 이것은 전투 중인 인간이 경쟁자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킬체인을 완료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의 군사 하드웨어는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보는 방식과 비슷하게 고급 소프트웨어를 위한 운송체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내 아이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모든 소프트웨어인 반면, 하드웨어는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교체되는 저렴한 플랫폼에 불과하다.

이러한 변화의 요체는 하나의 비싼 시스템을 다른 저렴한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저가 시스템의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통적 플랫폼은 많은 자율적 시스템을 구성된 거대한 네트워크, 즉 군사용 사물인터넷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목표는 스마트 시스템을 어떻게 결합하든지 간에 인간이 이해/결정/행동에 얼마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초점은 킬체인에 맞춰져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방위전략을 추구하려면 미국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또 하나의 통찰은 동맹의 중요성이라 강조한다. 미국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같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경쟁자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미군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수단을 바꾼다고 해도 힘의 균형을 유리하게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동맹국과 협조자가 필요하다.

5. 미덕과 교훈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미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저자가 미국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새롭게 상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시스템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이다. 사람 중심의 전력에서 다수의 무인 자율시스템을 통합된 전투 네트워크를 통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드론이나 자율 무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전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저자가 잘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 건설의 토대가 된 생각은 플랫폼 중심의 사고였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의 공세 전략으로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상력의 빈곤이 가져온 잘못된 선택이라는 비판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전쟁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로렌스 프리드먼(Lawrence Freedman) 교수는 《전쟁의 미래: 역사》(2017년)에서 지난 150년간 미래의 전쟁을 예측한 것을 분석하면, 제대로 예측한 전쟁이 없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모든 나라들은 공세를 통해 4개월 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전쟁 과정에 화학탄이 개발되었고 항공기와 전차가 전력화되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마지노선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전격전에 힘없이 무너졌다.

미래는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미래에 확실히 유일한 점

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쟁국들이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 해왔던 익숙한 방식이 편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들이 국방 문제에 깊이 결합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미덕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책의 내용은 미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개념들, 예컨대 효과적인 킬체인, 구축과 시스템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투 네트워크의 확보, 그리고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 특히 감지장치에서의 역량 강화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개별적 시스템 차원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수준이나 내용은 대한민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개념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구체적 시스템 차원에서는 현실적 요구와 필요에 상응하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첨단 미래군으로의 변신을 추구하고 있다. 올바른 미래군을 건설하려면 미래 전쟁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 군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래 전쟁을 염려하는 이들이 꼭 참고해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일독을 권한다.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1-3차 군사사연구포럼
 - 일자/장소: 2021. 9. 29.(수)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군 및 대외기관 10여 명
 - 세부진행

* 사회 : 윤지원(상명대)

14:00~14:10	개회사,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14:10~15:30	제1주제 : 국군역사와 청일전쟁의 독립전쟁사적 의미 * 발표 : 김정록 (군사편찬연구소) 토론 :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15:50~17:10	제2주제 : 중일전쟁 전후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변화 * 발표 : 박정현 (조선대) 토론 : 윤은자 (고려대)
17:10~18:00	맺음말씀, 사진촬영, 폐회, 식사



〈2021-3차 군사사연구포럼〉

2. 인 사

○ 임 명

- 계용호(국방사부장) · 김기섭(전쟁사부장) : '21. 9. 15.부
- 안지영(정보자료실) : '21. 11. 1.부



〈 국방사부장 · 전쟁사부장 임용자 신고 〉



〈 안지영 임용자 신고 〉

3. 기 타

○ 국방출판지원단 소개 교육 : 11. 4.(목)

- 국방출판지원단장 등 5명, 소개 및 출판 소요기간 최소화 토의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http://doi.org/10.12345/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5(김태헌)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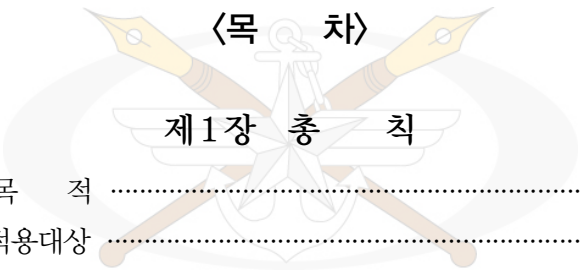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제 1 조 목 적 208

제 2 조 적용대상 208

제 3 조 적용범위 208

제 4 조 용어의 정의 208

제 5 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209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10

제 7 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211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212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212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212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213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213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214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214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215
제16조	판 정	215
제17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215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216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216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217
부 칙		2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 세상

유능한 안보
본토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메

모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심현용(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경희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1/12(第121號)

2021년 12월 8일 印刷

2021년 12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5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1110787)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21. 2021. 12.

Lee, Ji-won	The Rhee(the first president of ROK) Government's Air Power Buildup Effort from 1948 to 1950
Kim, Myung-seob	The Independent Activities in Manchria coducted by military Instructor 'Oh Kwanghyun' in Sinheung Military Academy
Park, Hui-seong	A study on the Amphibious operations of the Unggi and Rajin area conducted by the Pacific Fleet(Тихоокеанский флот)
Kim, Deok-won	The process of advance into the Han River basin during the period of King Jinheung of Silla Dynasty
Yang, Seong-min	The Research on the tactics of heavy equipped cavalry in the period of ancient Korea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